



5

1997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7. 5호

(루게 595)



◆◆◆◆◆◆◆◆◆◆ 차 례 ◆◆◆◆◆◆◆◆◆◆

시대를 진감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4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8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 높이 부르겠습니다	8
태양찬가를 높이 부르며 주체문학건설에 이 한몫 바치렵니다	9
조선의 영광	10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송가	11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태양의 송가	11
언제나 태양의 노래와 함께	12
세월이 흘러도	12
동강의 5월	13
우리 수령님	13
국제친선전람관	14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창조의 강령적지침	15
전조선에 노을이 불탄다	20
감사	31
만민의 심장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태양상을 새겨주시려	32
야전복	42
명절중의 명절	43
솟아오르는 태양	44
뜻깊은 명절도 병사들과 함께 보내시며	45
백과전서적인 로작의 위대한 생활력	48
5월은 탄다	52

번영하는 대지	53
나는 대홍단사람 (외 1 편)	56
내 고향의 흰 구름	56
내 고향 대홍단 (외 1 편)	57
봄씩	57
우리는 열일곱살	57
나리꽃	58
잠간만, 렬차여 멈추어주려마	65
출근부를 펼칠 때마다	66
들끓는 벌	67
추천의 말	68
넓은 교실	68
《북애자》	78

시대를 진감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격동하는 시대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던 환호성의 분출인가 20세기의 령마루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가 높이 울려 퍼진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

행복과 영광, 희망과 미래, 인류가 받아안은 모든 행운이 다함없는 위인찬가로 하늘땅을 진감한다. 태양의 애무속에 한껏 부풀던 대지의 천만 꽃송이들도 5월의 봄별아래 아꼈던 향기를 누리며 뿌리며 일시에 꽃망울을 터치며 노래의 여운처럼 퍼져간다.

백두대산줄기로 이어진 금수강산 삼천리가 감격의 숨결로 들먹이는데 동서해의 푸른물도 대양과 대륙을 향해 기쁨을 전하며 출렁인다.

보라! 인민의 령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는 흠모의 송가가 울려 퍼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저 푸른 하늘을-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강의한 신념과 배짱이 샘솟는 성스러운 우리의 붉은기는 이 노래의 메아리를 안고 더욱더 세차게 나뭇긴다. 그 힘찬 나뭇짐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모진 봉쇄와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의 죄사슬을 검불처럼 휘뿌려던지고 고난을 박차며 파감히 전진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대오에 천백배의 열정과 기상을 더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필승불패의 힘과 혁명적략관에 충만된 시대에는 그 힘의 원천과 락관의 근원을 힘있게 구가하는 노래가 있다.

그 힘찬 시대의 송가가 바로 **《김정일장군의 노래》**이다.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웠던 망국의 비운을 몰아

내고 조국해방의 해빛이 밝게 비치던 반세기전 그날 우리 인민은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구원자를 우리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불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붉은기를 펼칠 휘날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대를 이어 튼튼히 지켜가시는 운명의 수호자를 우리러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심장으로 터쳐울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부흥과 승리의 상징이시며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위대한, 삶의 태양이시다.

...

태양의 위엄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소생과 성장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인민도 지켜주고 빛내주는 태양이 있어야 존재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천만년 뿌리내리고 삶을 꽃피울 사회주의 이 터전에 공기처럼 해빛처럼 흘러넘치는 자기 운명의 보호자의 사랑과 믿음을 폐부로 느끼며 살고있다.

하기에 자기 운명의 정치적보호자, 행복의 수호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삶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였으며 사상도 령도도 인품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우러르며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력사상 그 어느 인민도 지내보지 못한 수령복을 지니고있다. 바로 이 행운으로 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가진 궁지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이 행성에는 수십억을 헤아리는 인민들이 천태만상의 생활세계속에서 자기나름의 생활신조와 정서를 안고 살고있으며 자신들의 기대와 념원을 담아 부르며 사랑하는 노래 또한 많다.

그러나 우리 인민처럼 전적으로 운명을 다 맡

기고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따르는 자기 운명의 아버지를 칭송하여 부르는 이런 영생불멸의 혁명 송가를 가진 인민은 없다.

노래는 생의 환희와 기쁨에 대한 인간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면서도 가장 정화된 철학적 감정이다. 따라서 그 어떤 강요나 지지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래가 태어날수도 없고 불리워질수도 없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우리의 생활 그자체의 숨결이며 환희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의 진두에 거연히 서서 여 백전백승의 진로만을 펼쳐주시는 **김정일**장군의 눈부신 혁명활동력사의 시간속에서 긍지높고 존엄높은 생활을 누리고있다.

수령이 위대하여 위대해진 인민이며 수령이 강하여 강해진 내 조국이다.

하기에 자기의 삶을 보람있게 꽃피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자기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로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완전무결한 숭배심으로써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절대적인 그 숭배심에서 솟구친 환희의 찬가이다.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노래의 구절구절에 형상적으로 심오하게 담겨진 정서의 흐름은 우리 인민이 안고사는 사상감정의 정수이다.

노래는 아이들도 부르고 어른들도 부르는것으로서 특히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같은 전인민적인 송가는 그 가사와 선율에 있어서 더욱 인민적이고 통속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노래는 형상적인 표현들로 그 서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상징적인 표현들을 자연스럽고 박력있게 인입함으로써 대중가요로서의 그 성격을 잘 살리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시대의 지향을 폭넓게 일반화하여 송가로서의 품위를 잘 돋구고있다.

노래에 심취될수록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행복감이 가슴 가득 샘솟고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실 신념과 의지가 백배해진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주기 위하여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세계를 둘러보면 령도자를 잘못 만나 많은 나라 인민들이 피눈물나는 생활속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참다운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하여 한때는 희망과 기쁨속에 누리던 참다운 생활을 하루아침에 잃은 인민도 수없이 많다.

현세기의 령마루에 높이 서서 우리 인민은 세계를 굽어보며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수령의 위업을 배신하여 전세대의 피로 물든 붉은기를 내리우고 당과 국가를 창건한 레닌의 동상도 넘어뜨리고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스탈린의 묘지도 파헤치며 거대한 보루를 이루었던 사회주의진영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뜨린 현실을 보며 우리 인민은 참다운 후계자의 진가를 사무치게 느끼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심각한 대결속에서 전진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어리석게도 우리의 붉은기가 퇴색되고 내리워지기를 바라며 단발마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노예로 되느냐, 아니면 승리자가 되어 존엄높은 주인으로 사느냐, 운명을 판가리하는 이 대결속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더더욱 뜨겁게 느껴안게 되었으며 그이만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배짱을 안고 자주적인 인민으로 삶의 보람을 누리고있다.

노래의 구절구절에 귀기울이느라하면 바로 인민의 가슴속에 차고넘치던 열화같은 격정의 분화구가 마침내 터져오른 환희의 감정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

노래를 부를수록 신심과 열정에 넘친 힘있는 장단이 심장의 박동을 세차게 고무한다.

호방하고 시원하게 펼쳐는 노래의 여운은 누구에게나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마음 달려가게 한다.

우리 인민은 장군님만 믿고 장군님을 따라 일떠섰으며 오늘의 《고난의 행군》길에서 단순히 이겨내는 《동면》자가 아니라 승리의 돌파구를 열며 맞받아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사로 더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었다.

우리 인민은 지구상의 온갖 원수들이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광풍을 맞받아 후려치며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피눈물이 마를새도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모든것을 지키기 위한 총포성 없는 전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거리거리에선 아침이면 학교가는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울렸고 사랑의 우유차들이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를 찾아 제시간에 출발하였다.

실망의 그늘 한점 없는 밝은 모습들이 신들매를 조여매고 활기에 넘쳐 일터로 나갔다. 거둬되는 자연재해의 흑심한 난관앞에서도 맥을 놓고 주저앉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봉쇄와 압력, 그에 따르는 곤난속에서도 일터마다에서는 백두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창조의 마치소리가 높이 울렸고 사회주의 협동전야에는 씨앗만이 아니라 피와 땀을 묻었다.

용광로에서는 쇠물과 함께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끓어 강철로 굳어졌다.

이 땅 그 어디에서도 난관에 주눅이 든 기색은 엿볼수 없었으며 오히려 신심과 랑만에 넘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인간의 가장 큰 정신적지탱점은 믿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이 계시기에 잘 살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안고 살기에 인민은 굴함없이 도도한 대하처럼 승리의 언덕을 향해 전진하고있다.

오늘의 《고난의 행군》으로 하여 우리는 더더욱 위대한 인민, 강철의 인민으로 되었으며 적들은 더더욱 피동에 몰려 무릎을 꿇고말았다.

우리의 붉은기는 더욱 세차게 펄펄 나뭇기며 승리의 표대로 기세찬 열정과 붉은 빛을 누리에 뿌리고있다.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언제나 백전백승의 천하제일장군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빨찌산의 아들이신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첨예한 대결전의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우리 인민과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

전을 벌리시며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이어나가시였다.

총대는 곧 당이고 조국이라는 드팀없는 총관을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전선길에 계시면서 모진 강추위에 발도 얼구시고 끼니도 번지시며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하시며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힘겨운 전투를 치르시였다.

인민은 장군님께서 새겨가시는 자욱자욱에서 해가 솟고 별이 뜨는 낮과 밤에 눈에 젖고 비에 젖고 파도에 젖은 야전복을 입으신채로 말리시며 강철의 신념과 의지, 담력을 떨치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령도자의 위대한 헌신을 목메이게 체험하고있다.

얼음장도 녹여내리는 무한한 사랑을 안으시고 해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태양의 인품과 함께 천만대적도 순간에 오금이 얼어붙게 하는 번개와 같은 안광을 지니시고 속도있고 여유작작하면서도 령활무쌍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따라 련전련승의 합성이 터져올랐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우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류가 희망의 등대로 지켜보는 우리 혁명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중요한 투쟁전구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이 시대의 력사적사명감과 책임감을 한몸에 지니시고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헌신, 위대한 령도의 낮과 밤에 백전백승의 위대한 전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을 산산이 부서버림으로써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였다.

세계의 눈빛에는 경탄과 희망의 별빛이 어렸다.

인류는 력사의 엄연한 현실앞에서 20세기의 총화로 정의의 수호자, 자주 수호자, 령도의 거장을 보았으며 21세기를 맡길 위대한 태양을 보았다.

인류의 이 한결같은 찬양과 흠모, 념원의 감정을 절절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세상에 올려퍼진 그 첫 순간부터 온 세계의 합창으로 되었다.

...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피부색과 언어, 생활풍습도 서로 다르고 제 나름의 정견과 신앙을 가지고있어도 4월의 봄 평양의 하늘아래 모여온 세계의 수많은 예술인들도 심장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정녕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우리 인민과 온 세계 인민들의 영원한 흠모의 송가인 동시에 행복과 영광, 승리와 번영의 노래로 세기와 더불어 영생불멸할것이다.

위대한 태양의 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의 천리방선 고지들과 위훈이 창조되는 일터마다에서 전투적인 창작활동을 벌려나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가슴속에서는 지금 천백배의 용기와 신심이 용솟음치고있다.

위대한 령도로 위대한 변혁이 창조되는 시대에는 위대한 작품들이 태어난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창작에서의 빛나는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문학작품마다에 훌륭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공산주의적미덕과 강의한 투쟁정신도 담력과 배짱, 생활의 모든 정서도 모두 장군님품에 태를 두고있다.

위대한 정치, 위대한 전략, 위대한 령도예술을 깊이있게 그려내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모를 격이있게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수령형상작품은 주체문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경험과 지식에 의거하여 창작실에 앉아 자료나 들추어서는 만대에 빛날 불멸의 작품을 써낼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의 철학, 붉은기사상이 내려치고 시대의 절박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무계있는 작품들과 함께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나선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서가 흐르는 전투적이며 락관적인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요구하고있다.

창작조건과 물질생활의 일시적인 불편에 발걸음이 떠지고 사색과 열정이 식어지는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이며 변절이다.

배낭을 지고 현실에 나갔다고 해서 《동면》의 울타리를 벗어난것이 아니다.

모든 작가들은 현실에 몸을 깊이 잠그고 하나의 언어에도 피와 땀이 묻어나게 사색하고 탐구하는 투사가 되여야 하며 생활의 본질과 력사의 진리를 심오하게 해부하고 형상해내는 열정가가 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고난의 행군》대오의 종군작가가 되여야 하며 당사상전선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하나의 작품을 내놓아도 장군님의 작가답게 부끄럼없이 살았다고 자기의 이름을 떼땀이 새겨놓을수 있도록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위대한 태양의 찬가를 높이 부르며 새로운 신심과 열정에 넘쳐 떨쳐나선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어제와 그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와 요구, 우리 인민과 시대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들로 명작풍년을 안아올것이며 눈앞에 바라보이는 승리의 《북대정자》의 대회장에 자랑스럽게 들이설것이다.

편집위원회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김일성

반향묶음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4돐을 맞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된것은 우리 인민이 오래동안 바라던 숙원의 빛나는 실현이며 일대 경사가 아닐수 없다.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세월을 두고 간직해온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존경의 감정, 다함없는 믿음과 사랑의 감정의 뜨거운 결정체이며 심장의 분출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총포성없는 싸움을 벌리고있는 이 시기 오직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사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이 무기야말로 핵탄보다도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인민들은 50년 전화의 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원쑤와 싸워 이겼듯이 오늘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고난의 행군》

을 승리적으로 결속할것이다.

이 노래는 남조선과 해외에서 장군님을 끝없이 따르며 흠모하는 우리 민족모두에게 위력한 고무적기치로 될것이며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이 노래는 힘과 용기를 주고 굳은 신념을 안겨주며 심장에서 심장으로 메아리쳐갈것이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따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싸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휘황한 미래를 안겨줄것이다.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도 이 노래를 부르며 가장 행복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나갈것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로력영웅 시인 오영재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 높이 부르겠습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 그리고 우리 작가들의 크나큰 경사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나와 있을 때 내 나이 열한살이었다. 그 나이에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나온 의의와 노래에 담긴 뜻을 다 알수 없었던 나였다. 그러나 감격에 겨워 불렀고 부르면서 모든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조국의 해방을 이룩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감사의 노래, 어버이수령님께 운명을 맡기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노래였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해방된 조국땅위에 인민의 새 조선을 건설했고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전후 채더미만 남은 빈터우에서 허허미미를 줄라매고 나라를

일떠세워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건설했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준엄한 오늘에도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보루로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뽐냈고 과시하고있다.

정녕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우리에게 혁명적 신념을 주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의지를 키워주는 투쟁의 노래이고 승리만을 가져다주는 불멸의 기치,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꼭 같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전진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행복속에 우리가 부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이것은 또한분의 위대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모신 우리 인민에게만 차려진 영광이고 자랑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는 어

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흠모, 우리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장군님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장군님만을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가 글줄마다에서 그대로 흘러넘치고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피로써 쟁취한 어버이수령님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완성할것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도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그 길에 어찌 시련이 없고 난관이 없으랴. 하지만 우리는 용감히 뚫고나갈것이며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태양의 위업을 빛내이신 인민의 령도자, 주체의 락원을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자주주의 기치를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오직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신념의 노래, 승리의 노래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목숨보다 귀중히 간직할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있을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는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더욱 특별한 경사로 된다.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선 혁

명임무로부터 문학예술부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우리 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불려일으키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 우리 시대가 바라는 명작의 본보기이다. 이 짧은 노래속에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함께 불굴의 기상,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옹위하고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굳센 의지와 지향, 정서가 훌륭하게 구현되어있다.

그러므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사상정치적면에서만이 아니라 미학정서적인 면에서도 우리 인민과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깊이 연구하고 노래가 거둔 사상미학적 성과들을 따라배워 명작창작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이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가진 행복과 자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노래들을 소리 높이 부르며 자랑찬 조선의 민족사를 변함없이 빛나게 장식해나갈것이다.

**《김일성상》계관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보형**

태양찬가를 높이 부르며 주체문학건설에 이 한몫 바치려 니다

세계는 감격에 넘쳐 부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걱정을 뚫게 하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입니까!

우리 인민은 물론 진보적인류가 그토록 절절히 부르는 이 노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의 가슴은 우리 시대에 또하나의 불멸할 혁명송가를 가지게 된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마냥 부풀어오르고 벅차기만 합니다.

정녕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천출위인을 우리 혁명의 최고령수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은 최대의 행운이며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하늘에 닿게 하는 영원불멸할 태양찬가입니다. 일찌기 백두광명성으로 찬란히 솟아오르시여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시었으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문무충효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여 조국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위대성과 업적을 체험하는 매일, 매 순간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절감하며 자기들의 심장속 깊이 간직된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충성의 감정을 활화산처럼 터쳐줄 태양의 찬가를 절절히 바라왔던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을 칭송하는 혁명송가와 더불어 역세계 전진하고 승승장구하여 온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은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부르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고 건국의 초행길을 개척해왔으며 미제를 쳐물리치는 결전의 피어린 나날을 거처 세기적인 빈궁과 락후속에 헤매이던 우리 나라를 세인이 경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가장 엄혹하고 준엄한 시기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데는 참으로 혁명의 선대들이 걸어온 수령결사옹위의 그 길을 끝까지 이어갈 신념의 맹세를 더더욱 불태우게 하는 역사적사건으로 됩니다.

지금 작가동맹안의 전체 작가들과 일군들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구절구절에 맥맥히 굽이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과 만민의 칭송을 다함없는 격정의 찬가로 높이 부르며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작가로 살며 투쟁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좋은 때 백날 따르는것보다 준엄할 때 하루를 따르는 충신이 되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려는것이 지금 우리 작가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혁명적지조이며 생의 좌우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심혈과 로고를 바쳐 이룩하신 우리의 주체위업과 우리 식 사회주의를 혁명의 필봉으로 끝까지 지켜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는 우리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위대한 정치, 위대한 령도로 빛나는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고 우리 인민의 운명이십니다.

우리 작가들은 비록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고 설사 단두대에 오른다 해도 끝까지 변심없이 오직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장군님을 위해 붓을 들고 싸우는 장군님의 제일근위병, 제일결사대가 될것이며 장군님의 작가로 길이 남아 있을것입니다.

주체적인 혁명문학을 건설하고 당과 수령을 위한 혁명적문학작품을 써내어 주체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우리들이 맡고있는 기본임무입니다.

지난날 혁명시인 김혁, 리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열렬히 칭송하며 불멸할 혁명송가를 창작하여 우리 혁명과 인류에게 혁명의 무기—신념의 노래를 안겨준것처럼 우리 전체 작가들과 일군들은 우리 시대의 태양찬가인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혁명적인 창작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길위에 더 많은 문학작품을 펼쳐놓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장상의

조선의 영광

자주시대의 봄대기속에 노래가 장중하게 울립니다. 온 누리를 진감하며 《**김정일**장군의 노래》소리가 환희의 격류를 타고 메아리치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역사적전환기에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엔 무상의 행복과 영광이 차넘치고있습니다.

나의 생애에 두분의 위인을 모시면서 두분을 칭송한 불멸의 혁명송가를 받아안은것은 이름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의 파도로 가슴설레이게 합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는 장군님의 고귀한 업적과 위대성이 집대성되어있습니다.

태양의 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장군님, 주체의 락원의 창조자로서의 장군님, 자주위업의 세계사적인 승리를 위한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장군님에 대하여 격조높이 구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야말 신념의 맹세를 다지고있으며 사회주의 붉은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나아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충효의 마음으로 받드는것은 오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중국적 승리와 온 세계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고 숨쉬며 언제 어디서나 그이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그이의 혁명전사들인 우리들의 응당한 본분입니다.

이 시각 나는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사심없는 충성과 깨끗한 량심을 다 바쳐 살며 투쟁할 결의를 다 시금 굳게 다지게 됩니다.

당면하여 단편소설 《영원한 기발》을 높은 형상 수준에서 창작완성하며 계속하여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명령관철에 충실했던 시대의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신념으로, 불굴의 의지와 투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당과 수령을 따라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걸어온것처럼 앞으로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을 위한 길을 정보로 걸어가겠습니다.

소설가 김익철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송가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더불어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오늘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크나큰 걱정을 일으키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격동적인 사변과 충격적인 일들로 하여 류레없이
복잡다단했던 20세기의 마지막 령마루에서 21
세기 인류의 자주위업을 령도하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래가 시대의 위대한 송가로
울려 퍼지게 된것은 자주적인민의 경사이고 환희
이며 유구한 민족문화사와 인류문예사에 특기할
자랑이고 영광이며 긍지입니다.

불멸의 혁명송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
대한 령도자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위업승리의
진두에 높이 모신 시대와 인류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수령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행운과 긍
지, 열화같은 송축과 충성의 감정이 폭넓고 깊이
있게 노래된 혁명송가로서의 풍격을 훌륭히 갖
추고 있습니다.

혁명송가는 수령의 업적을 형상하는것을 위대
성형상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구현할데 대한 주
체적문예사상의 요구를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
신 불멸의 업적을 혁명송가의 형태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형상하였습니다.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
의 사상, 령도,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있는 시적
형상으로 폭넓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력사는 바야흐로 새 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도래할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
으로 빛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높이 부르며 언제나 승리하여온것처럼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것이며 21세
기를 김정일세기로 찬란히 빛내일것입니다.

우리 평론가들은 불멸의 혁명송가가 발휘하고
있는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깊이있게 해설한 좋은
글들을 많이 씀으로써 사람들을 경애하는 장군님
께 끝없이 충실하며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도록 힘있게 불려일으
키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평론분과위원장 최길상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태양의 송가

9살의 어린 소년시절에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받아안았던 나는 60고개
를 바라보는 오늘 또다시 《김정일장군의 노래》
를 받아안게 되었다.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 세월 《김일성장군의 노
래》를 부르며 나는 소년시절도 마치였고 전화의
날을 거쳐 청춘시절도 맞이했으며 오늘은 어느덧
로년기에 이르렀다.

실로 전설적영웅이시며 만고의 빨찌산 대장군
에 대한 노래와 함께 날로 룡성번영하는 사회주
의조국의 참모습을 체험하면서 나는 성장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조국의 위대한 변
혁의 나날들을 걸어온 저에게 있어서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또다시 받아안게 된것은 크나큰 행
운이 아닐수 없다.

우리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을 말하여주는 이
노래는 현세기는 물론 21세기에도 높이 울릴 위
대한 태양의 송가이다.

불멸의 혁명송가를 또다시 받아안게 되니 해방
을 맞이하고 새 삶의 첫걸음을 시작하던 그날처
럼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신심이 솟음처럼.

저는 가사창작지도일군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
인들이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예술적성가를 더욱 공고발전
시키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
대성을 형상한 더 많은 가사들을 창작하는데 자
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저는 지금 이 위대한 혁명송가와 함께 21세기
에 자라날 우리의 후대들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
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는듯하다.

천만의 심장파 심장으로 이어지며 온 세상을
진감하는 이 노래는 정녕 새 세기를 김정일세기
로 장식할것이며 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울리며
인류를 밝고 아름다운 미래로 불려줄것이다.

시인 전병구

언제나 태양의 노래와 함께

해썬는 강산에 노래가 울립니다.

만사람들을 무한한 감격과 세찬 흥분으로 격동시키며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장엄히 울려 퍼집니다.

백두의 하늘가에 백두광명성이 찬연히 솟아오른 그날부터 인민의 가슴속에서 뚫어넘치며 솟구치던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송가!

나는 끝없는 환희에 젖어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서 주체의 새 시대, 동터오는 새 세기의 누리를 붉은 노을로 물들이게 될 영생불멸의 송가에 심장의 고동을 맞춥니다.

아, 조선아! 너는 위대한 수령의 송가를 부르며 장장 반세기가 넘는 승리의 길을 걸어왔고 이

제 또다시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지니고 변함없이 울려 퍼질 태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지 않았느냐.

언제나 다함없는 걱정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시가창작의 붓을 달려온 저는 태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그것을 총검마냥 더욱 억세게 비껴들고 당과 숨결을 같이하면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설사 고난과 역경이 막아서고 단두대에 오르게 될지라도 언제나 태양의 노래—《김정일장군의 노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시인 송재하

세월이 흘러도

리명근

장군님 전사들 찾아
최전연초소에 오신 날
그이는 밝게 웃으시고
전사들 그 품에 모두 안겨
울며 웃으며 만세를 터쳤네

일당백 구호도 보아주시고
그 뜻을 더 불태워주시며
추억도 새롭게 걸으신 초소길
대덕산에 새기신 그 자욱은
하많은 새 전설을 수놓으며
또다시 전선길에 새겨졌구나

그날에 초소에 가득 차넘친
명장과 전사의 혈연의 정은
이 땅의 세월을 이루었나니
전사들은 순간순간 언제나

장군님 걸으신 그 자욱우에 산다네

장군님 앉으셨던 자리에
복무의 삶을 삼가 없어놓고
그날에 보아주신 훈련의 높이에
언제나 총권 자세를 세우고 살기에
장군님 오셨던 그날은
세월이 흘러도 가지 않아라

초소에 세워진 표식비에도
장군님 오신 날만 새겨지고
영원히 전사들의 가슴가슴에도
장군님 오신 날만 남아있어
아, 초소엔 초소엔
장군님 오신 날은 있어도
장군님 가신 날은 없네

동강의 5월

림공식

천고의 밀림에
흐르는 봄빛
푸른 잎새들을 흔들며
춤추듯 날아에는 산새들

5월

동강의 5월
위대한 **김일성**동지
조국광복회창립선언문을 드시고
멀리 바라보시는 그 안광에 비낀
동강의 봄빛

피의 격전장
간고한 행군길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온 심혼을 다 바쳐
구상하시고 집필하신
불멸의 대강을 다시금 되새기시며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날으시는
그이의 마음

봄물오른 나무아지를 부여잡으시고
뜨거운 시선 없으시는 하늘끝 어디선가
장엄한 봄우뢰가 울려퍼지고
강산을 진감하는 환호성이 울려오는듯
그이께선 한자옥한자옥 마중하시듯

걸음을 옮기신다

모여오리라
간악한 일제의 압제와 억압에
그처럼 시달리던 노동자 농민들이
식민지 지식인의 불우한 운명을 두고
가슴 두드리던 사람들이
위대한 기치아래 파도쳐오리라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
그이를 우러르며
인민은 전민항쟁으로
찾으리라 금수강산 내 나라를

밀림은 설레이고
그이께서는 미소하신다
거족적인 투쟁에 하나같이 일떠설
미더운 동포들을 그리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발걸음 옮기신다

아 5월

뜻깊은 동강의 5월이어
조국해방을 위한 항쟁의 대오앞에
승리의 지름길을 펼쳐준 봄날이어
력사의 발걸음에
푸른 나래를 달아준 5월이어!

우리 수령님

(총련) 오향숙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조선이
일본이
온 대륙이
만민이 본다
텔레비죤화면의 수령님영상을

우리 수령님을 우러른다

백두산을 뒤흔든 우렁우렁한 목소리
봄날인양 환하신 웃음
쿵쿵 심장을 쥐여흔들고
쨍쨍 세월의 얼음장도 녹이시네

수령님 포용력에 손님들 매혹될제
세계는 눈뜨고 조선을 주시하고

수령님 담력에 손님들 탄복할제
력사는 벌써 새 길을 걷네

번쩍이는 안광 겨레의 앞길 비칠제
공민된 궁지 풍선마냥 부풀고
굳고굳은 악수 조선의 행복 약속될제
수령님 모신 영예 하늘을 치뚫네

텔레비죤화면의 수령님영상
정녕

조선이 낳은 걸출한 수령
세계가 낳은 으뜸가는 정치가
불세출의 영웅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도
아, 그저 수령님!
우리 수령님!

국제친선전람관

(총련) 맹복실

대륙과 대륙을 넘어
대양과 대양을 건너
세계의 친선사절들의 마음이
여기 국제친선전람관에 다 모였다

향산의 아름다움
에서 보자 찾아왔나
5천년력사국의 민족문화
자랑 펼치려 불렀던가
민족의 자랑 국제친선전람관으로

세계의 지혜와 창조들 여기 살아숨신다
이름난 건축가의 한생과 바꾼
고향 만경대의 상아조각
천에다 300번나마 옷칠해 만든
신기한 《공예품》

어찌 세계공예예술의 보물고라고만 하랴
인간창조의 산물
위대한 창조의 극치이거니
사람들이여 찾아보시라
인간의 무궁무진한 힘
무한한 아름다움을

사회주의시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회주의 개척의 위훈
빛나게 어려있어
여기엔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전세계 혁명가들 한결같은 지향
살아 빛난다

혁명의 가시밭길 함께 헤쳐가며
인류의 미래 사회주의상상봉 향해 줄달음쳐온
모택동, 호志明, 스탈린... 혁명의 원로들
그 뜨거운 동지애
굳은 련대와 신뢰의 정 여기 넘치고
세계의 충성과 영생기원의
마음과 마음들
앞을 다투어 오늘도 여기로 찾아드는구나

만년청춘 기원하는 마음
저 하늘 은하수에
백마리 두루미로 새겨지고
사시절 아름다운 꽃속에 모시고픈 마음
시들지 않는 영생의 꽃으로 피었으니

정녕 국제친선전람관은
우리 **김일성**민족의 자랑
위대한 주체사상승리의 시위
세계 수억만의 충성과 흠모의 최고정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할
아 주체시대 태양의
찬란한 기념비여라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창조의 강령적 지침

김정웅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큰 견인력과 생활력을 나타내며 작가, 예술인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창작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회주의총진군운동을 세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문헌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발표 30돐을 맞는 작가, 예술인들은 문헌에 제시된 문예사상과 리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주체의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과 성과를 이룩할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7년 5월 30일에 발표하신 이 력사적인 문헌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과학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지난 시기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으며 오늘날 작가, 예술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창작으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고전적문헌을 발표하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반혁명적사상을 극복청산하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대선을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러한 시기에 고전적문헌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고전적문헌에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할 합법칙적요구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총적방향이며 문학예술은 당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입니다. 당사상사업의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문학예술이 당사상사업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옹계수행하는가 수행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됩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창조 발전되며 당의 수중에 장악된 당사상사업의 훌륭한 수단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를 구현하여야 하며 수령이 개척하고 이끄는 혁명위업에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본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창조와 건설에서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모든 일꾼들과 작가, 예술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그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당의 문예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문헌에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가 당시 정세의 복잡성으로 하여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침략책동과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썩어빠진 부르조아문학예술을 부식시켜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책동하였으며 사상문화적침투의 축수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뻗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다른 한편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부르조아문학예술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였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부인하고 수령의 령도적역할과 권위를 헐뜯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강화되고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심해지자 당과 혁명대오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우경화하고 부르조아문학예술에 용해시키며 작가, 예술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정세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혁명위업에 적극 복무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

구하였다.

고전적문헌에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문학예술자체발전의 중요한 요구라는것이 밝혀져있다.

이 시기 우리 문학예술부문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깊이있게 형상하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전형을 창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미학적과제들이 수많은 제기되고있었다. 시대와 혁명발전이 제기하는 이러한 미학적과제를 옹계 수행하려면 문학예술부문에서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에 의거하여 창작활동을 벌려나가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할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고전적문헌에는 작가, 예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주체적문제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울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관시킬데 대한 문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정중하고 빛나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적문제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유일적평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제와 혁명적인 규율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유일사상으로 일관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미학적과제들이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져있다.

고전적문헌에 제시된 이 여러가지 사상미학적과제들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데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사명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예술창작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문헌에서 제시하신 문학예술부문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 무궁무진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항구적인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만이 그 어떤 어렵고 복잡다단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성과 전투성,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혁명적전환과 비약적인 창작적결실이 이루어졌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을 유일한 신념으로, 창작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창작활동을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이 그 어떤 세찬 광풍이 불어와도 동요하지 않고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힘과 지혜, 재능을 다 바치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창작가, 예술인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시기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지난 시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빛나는 창작적성과가 이룩되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형상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고 그 사상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제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체제이며 수령의 령도체제이다. 수령을 떠나서 당을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실현될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 고매한 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과업이며 문학예술부문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수령의 형상을 얼마나 훌륭히 창조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우라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전례없이 활발히 창작되었으며 그 사상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지난 시기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항일혁명투쟁편에 속하는 15권의 장편소설들과 해방후편에 속하는 장편소설들,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 시절을 형상한 장편소설 《만경대》, 《동트는 압록강》, 《배움의 천리길》, 혁명영화 《백두산》, 《조선의 별》(10부작) 과 《민족의 태양》을 비롯한 예술영화들, 희곡 《승리의 기치따라》,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서사시, 서정시, 담시들,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한 시가작품들, 《만수대대기념비》, 《삼지연대기념비》를 비롯한

대기념비적미술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문학예술작품들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가 깊이있게 형상화되어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어나가는 과정에 우리 문학예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동해천리》, 《예지》, 《푸른 하늘》, 《아침해》를 비롯한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 가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사랑의 미소》, 《정일봉의 우뢰소리》, 《빛나라 정일봉》을 비롯한 시가작품들과 기념비적미술작품들에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품모와 불멸의 혁명업적, 정력적인 혁명활동이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화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창조에 바쳐진 작품들은 당의 유일사상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강렬한 미학정서적감화력을 나타내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된 주인공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도 새로운 혁신적성공을 거두었다.

창작가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품성으로, 가장 본질적인 성격적특질로 내세우고 그것을 두드러지게 형상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적수령관을 심어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해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그 사상예술적수준도 훨씬 높아졌다. 우리 문학예술은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사회주의현실주제, 조국통일주제, 계급교양주제 등 다양한 주제영역에 걸쳐 왕성한 창작적결실을 이룩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의 화원을 풍부히 하고 사람들의 사상정서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문학예술부문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세워짐으로써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개조되고 주체적으로 새롭게 발전하였다.

문학, 영화, 연극, 음악, 가극, 미술, 무용, 교예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요소들을 털어버리고 주체의 요구대로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된것은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움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시기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전적 문헌에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해주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력력히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창조와 건설의 전 과정에 일관하게 들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력사적경험은 문학예술부문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지 않게 되면 자본주의사상, 부르쵸아사상, 수정주의사상과 같은 불건전하고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이 침습하게 되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성과 순결성이 흐려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일관하게 들어쥐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우리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창조발전시키며 그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대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시대, 자주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이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적문제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조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문예학설이다.

작가, 예술인들이 불멸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제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아야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할수 있으며 작품창작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예사상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는 한편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의 표현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사소한 현상과도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수령형상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기본인 기본이며 수령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데서 창작가의 당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문학예술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사상적무기인것만큼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총적목표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문학예술이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시기 수령형상창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더 훌륭히 창조해내야 한다. 창작가들은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화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도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려내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화하는데 바쳐진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의 대가이시고 문무충효를 겸비한 회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숭고한 인간적품도를 깊이있게 형상한 여러가지 형태의 작품들과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문헌에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

제는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우리의 혁명적문예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시대의 개척기에 종래의 문학예술과 구별되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새형의 전통, 주체의 전통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한 혁명적문예전통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전 력사적행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예사상과 리론,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혁명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이 이룩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전행정을 방향지어주고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문학예술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과 혁명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에 옮기는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자주시대의 문학예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훌륭한 본보기이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에 옮기는 사업은 혁명적문예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는 매우 영예롭고 중요한 사업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사업을 높은 충성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주체의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며 수령님의 문예전사, 수령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혁명적인 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여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문학예술 창작과 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사상경향의 침습을 미리 막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 창작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장군님께 집중시키고 장군님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체

계와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내고 그 사소한 표현과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하여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이며 불건전한 사상조류들과의 투쟁을 동반하고있으며 이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유일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적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

현시기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며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매우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의 침습과 발현을 철저히 막아내는것은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요구로,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지 않을수 없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그 어떤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고 그 어떤 세찬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당의 의도와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의 령도를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고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될 때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되고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이 승리적으로 진행되게 될것이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대렬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며 일심단결의 위력, 일심단결의 지혜로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현시기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주체적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려면 모든 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붉은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창작활동을 벌려야 한다.

우리의 붉은기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 안녕을 심장으로 받들고 견결히 지켜 싸운 항일의 7련대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하며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해나가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기고 비록 풀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철석같은 신념, 태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투철한 인생관을 지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충진군을 다그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이 벌리고있는 《고난의 행군》은 난관을 참고 건디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방어가 아니라 대담한 공격으로 새로운 승리를 마련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

작가, 예술인들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충진군운동의 앞장에 서서 달려나가며 시대와 혁명적현실에 맞게 창작전투를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맥박치고 자력갱생정신, 집단주의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흘러넘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야 한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빛내이기 위한 창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과 애로가 있을수 없으며 문학예술창작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과 거대한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문헌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대하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자주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 있어서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문헌에서 제시된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창작의 지침으로 삼으며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의 상상봉에 높이 올려세워야 할것이다.

전초선에 노을이 불타다

리범수

1

가신 길 멀고도 험난해선가
새기신 그 뜻이 높아서인가
가도가도 끝없는 장군님의 전선길
가도가도 못다갈 이 시의 행군길

걸음걸음 가슴속에 솟아고이는
시정의 샘물에 붓을 잠그고
복받치는 격정을 터치고터치며
내 오늘 이 길을 걷고걸나니

조국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
장군님 걸으신 이 전선길
헤아려 몇천몇만리인가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비에의 피눈물속에서
이 땅에 밝아온 설아침에도
한해가 저무는 그 저녁에도
눈비를 맞으시고
찬바람 맞으시며
장군님 걸으신 이 길

우리 함께 굳게 손잡고
수령님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하시며
해와 달을 이으시고
사계절을 이으시는 길

수령님이 그리울수록
초소에 발을 붙이시고
총대에 마음을 의지하시는
장군님의 전선길이어!

나는 그이의 전사
병사출신의 평범한 시인
아버지가 가는 길을
자식이 따라가듯이
최고사령관이 가시는 길을
붓을 들고 따라섰나니

하늘땅 바다위에 아로새기신
끝없는 로고와 심혈의 자욱
숭고한 그 뜻에 머리숙이며
내 지금 올라섰노라
전선서부 대덕산초소에

발밑으로 타래쳐 지나간
군사분계선 철조망 넘어
적들의 백학산과 일월봉이
눈앞에 도사린 이 전구에
우리 장군님 오시였어라

서른세해전
수령님 모시고 함께 오셨던
력사의 그날을 길이 전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적비앞에
발걸음 멈추신 그이

사적비의 글밭에서
수령님의 그 음성 들으시는듯
수령님의 그 모습 그려보시는듯
추억에 젖으시고
그리움에 젖으신
장군님의 그 마음

수령님께서 이 초소에
다시 오시겠다 하시였건만
끝내 오리지 못하셨기에
오늘 자신께서 다시 왔다고
조용히 아뢰이시는듯

수령님 지퍼주신 일당백불씨
산마루 뿌리깊은 구호바위에
전사들의 가슴가슴에
신념의 불길로 타오른다고
뜨겁게 아뢰이시는듯

걸음걸음 수령님과 마음 나누시며
초소를 돌아보시던 그이
그이께선 취사장에 들어서시여
수도물꼭지를 틀어보신다
좌- 물소리물소리
은구슬이 쏟아져내리는듯
사랑의 맑은물 흐르는 소리

그 물소리에 마음을 적시시고
흐르는 맑은 물에 한손을 잠그신채
창밖에 내리는 추억의 눈송이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장군님

깊은 골짜기 샘물터에서
등짐으로 물을 날라다먹는

초병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신
수령님의 그 마음 되새기시는가

천만금을 들어서라도
초병들의 물고생을 풀어주자고
양수기도 전동기도 다 보내주자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 들으시는가

찬물에 감겨
불그스레 얼어드는 그이의 손을
근심속에 바라보던 한 일군
-장군님! 물이 참니다!

하지만 생각에 감기신채
움직일줄 모르시던 그이
문득 시선을 돌리시며
일군에게 물으시여라
-그래 무슨 일이요
이제 뭐라고 했소?

송구한듯 얼굴 붉히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며
손에서 물기를 닦으신 그이
-나는 물이 차다는것을
느끼지 못했소!

순간 주위엔 침묵
그 침묵속에서
승엄히 울리는 그이의 음성이어
-이 물은 수령님께서
초병들의 가슴에 부어주신
영원한 사랑의 생명수입니다

천만년 식지 않을 사랑의 물소리
은정의 맑은 물소리를
전사들의 가슴가득 채워주시며
그이께선 발걸음 옮기시였다

수령님 펼치신 사랑의 력사
수령님 이끄신 군건설력사
수령님 쌓으신 군령도업적을
걸음걸음 이어가시고
걸음걸음 빛내가시는
장군님의 그 자욱이여!

그 자욱 따라가니
지휘소 쌍안경으로
적진을 살피시던 수령님 모습
오늘은 장군님의 모습이 되어
포대경을 내다보시고

초소의 국맛을 보아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손길이
오늘은 장군님의 손길이 되어
부식물창고를 열어보신다

병사들의 노래도 들어주시고
훈련모습도 보아주시며
수령님 박수소리 울려주시던
그날의 병실과 훈련장에서
오늘은 장군님의 박수소리 울리고

수령님의 그 음성
수령님의 그 미소 비껴흐르던
눈덮인 그날의 전호가에
오늘은 장군님의 그 음성
장군님의 그 미소 비껴흐르나니

오늘도 그날처럼
래일도 오늘처럼
초소길에 끝없이 울릴
두분의 발자욱소리
발자욱소리

그 자욱우에 빛나는
위대한 두분의 일치여!
그 일치는
군건설사상의 일치
군령도방법의 일치
군령도풍모의 일치

그 일치로
아버이수령님 영생하심을
불멸의 진리로 밝혀주시는
장군님의 전선길이여!

오, 전선길 굽이굽이에
장군님 새기신 충효의 자욱
의리와 도덕의 그 자욱따라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곁에
우리곁에 다시 돌아오시였노라

오늘도 수령님의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령마루초소에 서계시는
우리 장군님

바로 이분이시다
하늘이 무너져
눈물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땅이 꺼져
비애의 바다가 흐르던 그때
우리의 하늘 우리의 땅

우리의 태양이 되어주신분
바로 이분이
력사의 조종간
시대의 타종봉을 틀어잡으신
우리 혁명의 수뇌부

하늘의 못별을 다 모아도
태양이 될수 없듯이
이 땅의 모든 심장
모든 두뇌를 다 합쳐도
절대로 대신할수 없는
김정일장군님!

정녕 그이가 없다면
조선은 또다시 빛을 잃고
인민은 또다시 노예가 되어
력사의 기슭에 던져지리니

아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회주의
영원한 우리 삶의 태양이여라!

2

군화끈을 조여매고
차디찬 눈비도 뜨겁게 맞으며
장군님의 그 자욱 따라
나는 왔노라 전선동부
나의 병사시절이 값높이 흘러간
영웅의 고지 351고지여!

내 여기서
원췌의 철조망에 몸을 던지며
—동무들 나를 딛고 앞으로!
영웅이 남긴 그 웨침소리
서투른 붓을 들어 노래불렀고

내 여기서
불뿔는 적의 화점 가슴으로 덮은
김인택 김룡택...
영웅들의 그 이름 거울로 삼아
그 얼마나 위훈을 갈망했더냐

내 이제는 고지를 떠나
문예전선의 한 초소에 가있어도
장군님 모셨던 너의 영광이
크나큰 격동속에 나를 불렀거니

고지의 정점에 솟아 빛나는
수령님의 축하문비앞에 서니
장군님 레찬하신 그날의 말씀
귀전에 뜨겁게 울려오누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그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장군님의 그 음성이
낮에도 밤에도 흐르는 고지
병사들을 크나큰 위훈으로 부르는
영광 넘친 고지의 전호가에서
나는 만났노라 한 전사를

장군님 친히 부르시여
어깨의 총도 벗겨보시고
숨동복자락도 만져보시던
그날의 나 어린 감시병

병사여!
고지를 다녀가신 그날밤
추울세라 너의 옷깃 여며주시며
온밤 너를 안고 잠 못드시던
장군님의 그 마음 알고있느냐

오늘은 장군님 보내주신
두툼한 솜옷을 입고
폭신한 솜신을 신고
미덥게 서있는 복받은 병사

말하라 그대 병사여!
눈비에 젖은 야전복자락을
2월의 바다가 찬바람에 날리시며
너의 솜옷을 만져보시던
못잊을 그날의 그 사연을

병사는 대답대신 미소 지으며
소박한 수첩을 나에게 보였나니
내 지금 그날의 그 사연 담긴
병사의 시구절 소중히 펼치노라

...

내 정녕 몰랐습니다
그렵던 아버지장군님을
그렇듯 몸가까이 뵈게 될줄을
내 정녕 몰랐습니다
크고작은 나라일 다 말아보시는
그이의 바쁘신 그 손길이
나의 솜옷까지 만져보실줄을

군복천은 어떤것이며
숨은 얼마나 넣었는가
누빈 자리로 스며들
한줄기 찬바람도 가늠하시며

그이께선 안색을 흐리셨습니다
-숨이 얹구만!

다시금 허리를 굽히시고
나의 숨신을 만져보시며
-역시 숨이 얹구만!
그러니 발이 시릴수밖에...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춥지 않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아뢰이건만
한마디 인사도 못올리고
목메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병사들은 언제나 봄날에 살건만
나의 숨옷을 만져보시며
안색을 흐리신 장군님 마음
내 언제면 다 알수 있겠습니까...

병사의 그 수첩에서
나는 새겨들었노라
수원들과 지휘관들의 가슴 울리던
장군님의 근엄한 그 음성

-백두에서 떠나온
우리의 혁명대오는
수령님의 애병사상에 원천을 두고
장강대하로 굽이쳐왔다

명심하라!
지휘관을 위하여
전사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전사들을 위하여
지휘관이 있다는것을

전사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불편없이 돌봐주는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준비
이것을 떠나 동무들도 없고
나도 없노라!

전쟁의 주인도
전쟁승리의 요인도
무기보다 무기를 다루는
전사-인간에게 있다는
혁명의 철리를 밝혀주신분

그 사랑의 절대시
그 믿음의 신성시로서
전사들을 영웅으로 키워주시고

일심강군을 이끄시나니
그이의 가르치심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보았더라
눈비에 젖은 그이의 야전복
돌부리에 실크가 굽히우고
신잔등이 젖어오른 그이의 군화

그이께서 마른 옷을 입으시고
마른 신을 신으셨다면
그들의 그 마음이
그처럼 죄스럽진 않았으련만

한줄기 찬바람도 막아드리지 못하고
한꼬치 눈비도 가려드리지 못하는
애타는 그 마음 안고
일군들은 눈굽을 적시었나니

오,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초소로 떠나보낸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아시는가

자나깨나 자식들생각에
시름을 놓지 못하는
그대들의 그 심정 다 모아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그 마음을

초소의 귀중한 전사들이
배가 고프세라 추위할세라
때식도 밤잠도 잊으시고
일년열두달 늘 마음쓰시며
따뜻이 돌보시는 그 은정을

그대들의 그 손길이
아직은 한번도 와닿지 못한
천리전초선의 초소마다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끝없이 잇닿아 덧놓이거니

여기 고지의 병설에도
전기온돌바닥을 더듬어 짚어보신
그이의 후더운 온기가 흐르고
마안산모포를 보내줄테니
새것은 덮고
낡은것은 깔고 자라고
다정히 이르시던 그이의 말씀
전사들의 가슴 뜨겁게 울린다

생각하면
천리전선길에 펼쳐진
사랑의 그 이야기 얼마이던가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에

근무로 빠진 한 전사의 마음 헤아려
그이께서 기뻐하신 그 사랑을
전호가의 다박술도 속삭여 설레이고

너성해안포병들이 추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자를 쓰겠느냐고
차안에 벗어두신 방한모에도
가시여 보내주신 약크림에도
사랑의 그 전설 깃들여
바다가의 해당화 붉게 피노라

장군님과 함께 근무를 서던
선조암초소의 두 감시병
철령의 복받은 보초병의 가슴에도
그 사랑 힘이 되고 용맹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다
희생된 전사들의 그 위훈을
세상이 다 알게 내세워주시려
백리물길굴도 헤쳐가시고

하늘에 사는 별
길영조영웅을 잊지 못하시여
영웅이 날던 하늘을 안으시고
영웅의 뜻을 키운 활주로도 걸어보신
그이의 전선길을 어이 잊으랴

오, 위대한 사랑의 전선길
영원한 사랑의 전선길에 받들려
고지마다 솟아오른 성새우에서
병사들은 총검높이 선언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인민들이여!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선
초소는 언제나 금성철벽이여라!

3

빠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사색의 밤길도 걸으며
내 이 길에서
맞고 보낸 낮과 밤 그 얼마더나

전신 동부에서 서부와 중부로
동해에서 서해로 서해에서 남으로
신출귀몰하는 장군님의 기동술을
전설아닌 현실로 나는 체험했거니

내 작은 발걸음으로써야
그이의 큰걸음 어이 따르고
내 무딘 붓으로써야
그이의 높은 뜻 어이 다 담으랴

이 길에서
장군님 어깨우에 내린 눈송이
다 모아 쌓으면 산을 이루리
장군님 옷자락을 적시던 찬비
다 모아 합치면 강을 이루리

이 길에서 우리 장군님
쪽잠드신 그밤은 얼마이고
때식을 넘기며 헤치신
위험한 고비는 얼마였던가

말하라 구름봉이여!
몸소 운전대를 잡으신 장군님
혁명의 전투차를 몰아가시던
전선중부의 아득한 평길이여!

너의 험준한 령길
그 어느 벼랑가에 서려있느냐
차바퀴가 낭끝으로 지쳐내리던
위기일발의 그 순간은

앞에는 얼음갈린 언덕길
뒤에는 아슬한 칼벼랑
누군가 다급히 아뢰었더라
—장군님! 위험합니다!

전사들의 그 마음 헤아리신듯
그이의 태연한 음성
—가만!
동무들은 마음놓고
음악이나 감상하시오!

좌절을 모르고
후진을 모르는
조선혁명의 방향타인듯
운전대를 튼튼히 잡으신 그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혁명의 총대로 지구도 들어올리실
기적의 힘을 안으신 그이

그이의 침착하신 그 모습이
손에 땀을 쥔 전사들의 마음을
조용히 달래이시는듯
노래소리 노래소리
차안에 흐르는 은은한 노래소리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노래소리 기관소리 높이 울리며
용진용진 전투차는 달려오르고
그 노래 구절구절 따라부르며
전사들은 눈시울 적시었나니

앞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인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다 하시며
한평생 수령님 헤쳐오신
《고난의 행군》길을 이어가시는가

폭격에 다리는 끊어져
우회로를 찾는 수원들에게
화선의 전사들이 기다린다 하시며
불붙는 철교의 침묵우로
승용차를 몰아가신
우리 수령님의 그 모습인가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고
위험이란 위험을 다 헤치신
수령님의 그 자욱 이어가시며
굽이굽이 높고 험한 령길로
장군님 차를 몰아가시었나니

사람들이여! 생각해보시라!
그대들이 아늑한 방안의 창문가에서
내리는 눈비를 무심히 바라볼 때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차디찬 그 눈비를 다 맞으시며
멀고도 험한 길 걸으셨는지

그대들이 텔레비존화면앞에서
즐거운 저녁상을 마주할 때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찬이슬 맞으시며
별빛을 밟으시며
힘겨운 강행군을 하시였는지

그대들이 잠든 깊은 밤에도
명절과 휴식일의 이른새벽에도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철조망과 지뢰원이 발밑에 놓인
적진으로 다가서고계시었는지

혁명의 수뇌부가
어느 계선에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가를
혁명앞에 인민앞에 보여주시는
그이의 전선길이 대답하노라

그이는 백두산의 아들
그이는 빨찌산의 아들
수령님 총대로 개척하시고

총대로 이끄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야 하시기에
그이는 오늘도 전초선에 계신다고
그이는 오늘도 전선길을 걸으신다고

투쟁과 전진의 구령을 내리시며
그이 걸으시는 전선길 따라
땅이 가고
조국이 가고
인민이 간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 위하여
그이 걸으시는 전선길 따라
붉은 쇠물이 흐르고
황금이삭이 물결치고
창조와 건설의 탑이 솟는다

그 길을 따라
이 땅에 사제절이 흐르고
혁명의 력사가 흐르고
자주시대의 대하가 굽이치거니
오, 이 나라의 모든 전선
사회주의전선이 불패로 다져지는
장군님의 전선길이어!

그이의 거룩한 그 자욱은
여기 서해바다
풍랑 세찬 배길에도 이어졌나니
함선의 닻줄이 폭풍에 끊어지고
사령탑이 파도우에 기울던 그날
어떻게 우리 장군님
최전방 섬초소로 가시였던가

이런 날 이런 밤
이런 배로는 가실수 없다고
일군들은 간절히 만류했건만
산악같은 파도의 대적을 향해
돌격의 전투함에 거연히 오르신듯
어둠을 무찌르는 그이의 시선
폭풍을 휘여잡는 단호한 음성

—아니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녔는가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앞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하리라!

그이에겐 전사들이
사랑과 혁명의 전부이시고
불패의 사회주의보루이시고
그이자신과 다름없거니
그이와 전사들을
날바다 풍랑인들 그 어이 가르랴

백두령장의 호탕한 웃음으로
달려드는 격랑을 때려눕히시고
사랑하는 전사들을 품에 안으신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날에 헤쳐가신 그 배길로
내 지금 러객선을 타고가며
잔잔한 수면이 전하는 그 사연에
이 가슴 뜨겁게 젖어들 때
그이께선 또다시 눈보라치는
땅크부대훈련장에 계시었나니

내 달려와 두팔로 그러안은
무쇠철마여 이야기하라!
한나라의 령도자께서
눈보라 흑한속에 발을 얼구시며
전사들을 찾으신 그런 이야기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씌여졌더냐

일찌기 백두산시절에
모진 설한풍에 얼구신 발을
오늘은 전선길 눈보라에
다시 또 얼구신 장군님

발이 언다고
발을 녹이시라고
전사들은 불들을 구워드렸건만
불들보다 뜨거운 전사들의 마음을
의지의 주추들로 삼으시고
그이께서 언땅우에 서계실 때

장군님 만세를 높이 웨치며
돌진하는 땅크의 무한계도소리
울부짖는 땅크포의 세찬 불길은
조국땅을 얼마나 뜨겁게 덥히었던가

언땅을 녹이시며 얼구신 발을
천만의 마음들이 감싸안는데
그이께서 읊으신 랑만의 시구절이여!

—김정일은 발이 얼어도
땅크는 전진하리라!

듣는가 이 나라 인민들이여!
듣는가 나의 조국이여!
그이의 고귀한 희생성
그이의 완강한 헌신성
그이의 강철같은 그 의지가
시대를 진감하는 장엄한 메아리

—김정일사회주의는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리라!

태양이 없는 꽃을
바랄수 없듯이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는것!

20세기의 이 명언
력사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내 지금 듣고있노라
아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당부
—김정일동지가 없으면
조국도 없고
동무들도 없다
김정일동지를 잘 모시라!

아 하늘땅 이 천지에
운명의 경종으로 높이 울리는
수령님의 음성이여!
수령님의 뜻이여!

우리 언제나
수령님의 그 음성 들으며
그 뜻을 지키면
죽어도 산 사람이요
그 뜻을 지키지 못하면
살아도 영원히 죽은 몸이거니

병사들이여!
아버이수령님의 그 유훈을
총검에 더 깊이 새겨안으라
병사의 영원한 좌우명으로!
병사의 참된 삶의 목표로!

4

전선길 전선길
노래도 많고 사연도 많고
전설도 일화도 많은
장군님의 전선길

이 길을 걸으며
나는 들었노라
안개도 구름도 장군님을 보위하고
바람도 별도 내리던 눈비도
그이의 뜻을 따라 조화를 부린다는
전사들의 그 이야기

나는 들었노라
원썩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그 모자이야기
제국주의 큰 범을 잡으시려고
장군님 쓰셨다는 《포수모자》이야기
들을수록 그 얼마나 힘이 솟는가
전사들은 말하더라

장군님 모시고 찍은 그 사진
다 모아 합치면 하늘처럼 넓을거라고
장군님은 그 하늘의 태양이시고
전사들은 그 태양 지키는 못별
이것이 시가 아닌가요

장군님 안겨주신 쌍안경으로
한나산도 지척에 굽어보고
장군님 믿음어린 기관총으로
섬멸전의 불바다 펼쳐가리니
이것을 시에 담아달라고

전선에서 만난 병사시절의 한 친구
나에게 권고하더라
-장군님 고지마다 펼치신
작전도에 대해서 써보게!
북침격발기를 담긴
놈들의 전쟁포성을 눌러버리신
위대한 령장의 그 모습이
작전도에 비껴있지 않는가

그렇다 그이는 강철의 령장
희세의 군사전략가
351고지에 작전도를 펼치시고
그이는 찍으셨더라
포위소멸하고 생포해야 할
적들의 수자까지도

대덕산마루에 작전도를 펼치시고
그이는 단칼에 꺾어놓으셨더라
음흉한 속심을 가리워보려는
적들의 기만적인 타격기도를

오성산마루의 작전도에서
그이는 밝히셨더라
이 세상에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고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고
쇠보다 더 굳은 쇠가 있음을

허나 그이의 비범한 그 천품을
어찌 군사예술에서만 찾으랴
그이는 인간중의 위대한 인간
한없이 친근한 아버지시거니

사람들이여!
잠시 일손 멈추고
그대들의 마음을 여기로 보내시랴
전초선의 전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장군님의 야전식탁으로

너무도 수수하고

너무도 간소하구나
췌기밥에 마른 빵 몇쪽
고추장 한종지

전화의 그날
포연서린 전호가에서
된장을 박아넣은 주먹밥을
전사들과 허물없이 나누시던
수령님의 검박하신 그 천품을
장군님의 식탁에서 다시 보는듯

뜨거움이 가슴속에 몽클거려
전사들은 수저를 들지 못하는데
그이께선 소탈하게
췌기밥 한덩이 먼저 드시여라
-췌기밥은 이렇게 들고먹어야
제맛이 나는거요!

그이의 유쾌하신 그 말씀에
어느덧 전사들의 식탁우에는
희희락락 화기가 돌고
몇었던 수저가 오르내린다

하지만 전사들의 눈길은
고추장종지에서 떠나지 못하는데
마른 빵을 고추장에 찍어드시는
그이 모습 바라보며
전사들은 생각했더라
고추장종지에 갇든
백두산시절의 그 이야기

어느해 겨울이던가
소금에 무친 풀뿌리나물로
끼니를 에우시는 어리신 장군님
그 정상 차마 불수가 없어
소부대의 녀대원이 목숨걸고 구해온
쌀 한줌
고추장 한종지

그 쌀 한줌으로
어머님 지어주신 한공기의 밥
물을 부어 두공기로 만드신 장군님
사령부전령병과 함께
귀틀집 가마목에 나란히 앉아
술갈꼭지로 고추장을 찍어드시었나니

오늘도 장군님의 식탁우에
고추장종지가 놓인 까닭은
어머님의 사랑과 함께
그날의 녀대원을 잊을수 없고
혁명이 간고했던 그 시절을
잊을수 없기때문 아닌가

한공기의 밥
한중지의 고추장에서
혁명의 만년재부로
동지애의 력사를 이 땅우에 펼치신
백두산시절의 그 천품을
초소에 안고오신 우리 장군님

허물없이 전사들과 마주앉으시여
그렇듯 검소한 야전식사를
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즐겁게 드시며
영원한 행복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주셨나니

그이께선 언제나 식도락보다
화락의 진미를 즐기시는분
식탁을 생존의 요구에 앞서
전사들과 마음을 나누시며
정책의 령감을 불러오시는
정서적공간으로 여기시는분

그이께선 소박성과 검박성을
생활의 첫자리에 놓으시기에
전사들의 마음속 첫자리
제일 가까운 첫자리에 계시고

다정함과 친근함을
참다운 안내자로 삼으시기에
전사들속으로 가시는 길을
제일 많이 알고계시여라

아름다운 인간미의 그 향기로
전사들의 심장을 불타게 하는
끝없는 매혹의 그 세계여
그 매혹에서
병사의 숭배심은 싹트고 자랐거니

숭배하노라
백두산천지처럼 맑은 정기로
세기를 밝히시는 그이의 예지
백두산처럼 용맹하고 변화무쌍한
그이의 담력과 지략
백두의 바위처럼 드높지 않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
백두의 지맥처럼 삼천리를 품어안은
그이의 숭고한 그 덕망을

숭배하노라 숭배하노라
언제나 총대를
혁명위업의 개척자
혁명위업의 수호자
혁명위업의 승리자로

사람과 믿음의 중심에 세우시는
그이의 총관
그이의 령군철학을

돈과 재부도 줄수 없고
직위와 권력도 줄수 없는
숭배여 너는 다름아닌
우리 운명의 영원한 길잡이

폭풍사나운 이 세월에
너없이 그 어이 살랴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너 없이 그 어이 걸으랴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해도
숭배여 너와 함께
병사의 총대는 변함이 없고
병사의 총대는 흔들림 없으리라

오, 숭배여 숭배여!
너는 장군님과 전사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주는
혼연일체
운명공동체의 피줄기

너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할
혁명의 무기고에서
대포보다 땅크보다 더 위력한
전사들의 으뜸가는 무장이거니

숭배의 그 무장으로
병사들은 지키리라
혁명의 최고뇌수
인류의 위대한 그 심장을

숭배의 그 무장으로
병사들은 지키리라
그이의 립체적인 사색
백발백중의 예언
비상한 기억력
혁명철학의 결정체로 빛나는
그이의 로작과 명언들

그이의 숨결이 흐르는
시간과 공간
그이의 열정이 깃든
창조와 건설의 기념비들
그이의 미소가 비껴흐르는
한송이 꽃과 한그루 나무
이름모를 숲속의 작은 용달샘도
고스란히 고스란히 지켜가리라!

5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산넘고 들을 지나 바다 건너 몇 천리
장군님 걸으신 그 자욱따라
마침내 나의 발걸음 머무른곳
판문점 판문점이며!

땅위에 그어진
한줄기 선으로 하여
하나의 강토
하나의 피줄이 둘로 갈라져
북남겨레가 오가지 못하는 땅

여기선 적아의 눈길
무시로 엿갈리며 불꽃을 뿜기고
오가는 목소리도 서로 부딪쳐
때없이 폭풍을 일으킨다

오, 전쟁과 평화의 분기점
통일과 분열
애국과 매국의 대결장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판가리결전장
판문점!

침략의 검은 총구
검은 포신들이
도발의 불심지를 물고
순간을 노리는
여기 최전연의 최전방초소에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오시었다

눈비를 맞으시며
령을 넘고 파도를 헤치시며
수천수만리 전선길에 다지신
조선의 신념
조선의 의지를 다 모아 안으시고
그이는 오시었다

조국의 고지마다에서
무적의 지락을 펼치시던
섬멸전의 작전도를 다 합쳐 안으시고
판문점초병들을 찾아오신
우리의 장군님

오시여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 떼지 못하시며
조국통일의지를
천만의 총검에 새겨주시고
오시여
노예가 되겠는가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겠는가
시대의 엄숙한 그 물음에
계급의 보검을 안겨주셨으랴

지금 그이께서 서계시는
판문각로대우에서
40메터 앞에는 악마의 세계
마지막 악을 쓰는 제국주의겨울
그이의 뒤에는 붉은기아래
꽃피는 사회주의봄

그 봄빛을 안으시고
봄우뢰를 안으시고
적진을 굽어보시는 장군님

지구의 중심
시대의 혁혁한 령마루에 서시여
《압살》과 《봉쇄》의 얼음장을 녹이시고
제국주의겨울을 쳐몰아내시거니

천하제일명장을 모신
최전방의 하늘도 땅도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듯
때아닌 환안개를 굼실굼실 몰아와
조용히 소리없이 또 포근히
그이를 따르며 감싸흐른다

고요한 그 정적
소리없는 안개바다속에서
열풍을 일으키듯
장군님의 한품에 안긴
영웅초병들의 흐느낌소리

꿈결에도 뵈고싶던 장군님을
적들앞에 소리쳐 부를수 없어
초병들은 목메여 목메여
심장으로 뜨겁게 아뢰었더라
—최고사령관동지!
뵈고싶었습니다!
뵈고싶었습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성벽을 쌓고
가슴과 가슴으로 진을 친 전사들
장군님 우러러 손과 손을 흔들며
소리없는 환호성을 터치었나니
아 이 세상에
이런 환호성이 그 언제 있었더냐

정녕 그 환호성은
소리가 없고
진동이 없고
메아리가 없었던가

아니다 그 환호성을
조국이 듣고 인민이 듣고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
바람과 구름이 그 소리 나르고
강과 내물이 그 소리 담아흐르고
새들이 깃을 치며 그 소리 전했다

오, 소리없는 그 환호성에서
얼마나 우렁찬 피성이 일고
얼마나 세찬 화염이 솟고
얼마나 장엄한 멸적의 총포성이
적진을 들부시며 울려갔던가

심장의 전호
승배의 좌지에서
소리없이 터져오른 환호성이여
너는 아직 력사가 모르고
너는 아직 세상이 모르던
결사옹위 총폭탄이 터지는 소리였다
신념의 총폭탄이 터지는 소리였다

하기에 그 환호성에서
우리는 들었노라 초병들의 웨침소리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는 들었노라 하늘 땅 바다에서
일제히 화답하는 전군의 웨침소리
—결사옹위 **김정일**
—결사옹위 **김정일**

그 어떤 의무에 앞서
량심의 호소인 그 웨침소리
그 어떤 사명에 앞서
신념의 폭발인 그 웨침소리

바로 그 신념에
투사들의 넋이 살아있지 않느냐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싸우던
그날의 고귀한 넋이

바로 그 신념에
친위대의 붉은 피가 뛰고있지 않느냐
수령님 가시는 길에
쏟아지는 적기의 기총탄을
가슴으로 막던 붉은 그 피가

바로 그 신념에서
반혁명의 음모에 반격을 가하며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한
충성의 포성이 울리지 않았더냐

수령옹위의 전통적기질을
총검에 새겨안은 이런 전사들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반혁명의 예봉을 꺾어버리거니

장군님을 옹위하는 그 길에서
우리모두 백두의 넋을 지니고
백두의 총검을 높이 든
오늘의 오중총7련대로 자란다

그렇다 7련대여!
너는 조국의 초소마다
우리 장군님 불러세우신
충효정신의 첫 대오!
육탄정신의 첫 분화구!
성새방패정신의 첫 봉우리!

장군님의 만수무강도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도
조국통일의 그 아침도
7련대여 너와 함께
장군님의 1선호위병들인
우리의 총검이 안고있나니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국을 위하여
아름다운 래일의 삶을 위하여
값높은 자폭을 엄숙히 각오한
우리는 총폭탄
김정일 결사옹위 총폭탄

매혹과 승배
충성과 효성을
멸적의 불씨로 품어
불발을 모른다

신념과 의지
량심과 의리를
백승의 장약으로 다져
빛나갈줄 모른다

결전을 앞둔 준엄한 폭풍시대에
장군님 위하여 력사에 출현한
사상의 핵탄!
최강의 혁명무장이여!

몸은 불타 재가 되어
하늘가에 흩어진대도
태양의 위성으로 다시 뭉치고
전호가에 피는 흘러 굳어진대도
성새방패로 다시 또 솟아
김정일 장군님 결사옹위하리라!

혁명의 수뇌부 끝까지 지키리라!

전사들이 터치던 신념의 웨침소리
전군의 그 웨침소리에
내 심장의 고동소리 합치며
장군님 오르셨던

판문각로대우에 올라서니
아 노을이 불탄다
전조선의 하늘가에 아침노을 불탄다

천출명장의 그 시선이
검은 구름장을 불질렀는가
자욱자욱 전선길에 새기신
그이의 심혈이 물들었는가

산도 강도 바위도 숲도
안개도 구름도 붉게 태우며
장군님 높이 드신 붉은기의 기폭처럼
태양이 펼친 거대한 나래처럼

혁명의 전조선

사회주의전조선에
찬란히 불타는 승리의 노을
아름다운 희망의 붉은 노을이여!

너는 새 시대의 하늘을 펼쳐
이 땅에서 뿔어올린 열정의 불길
너는 위대한 전환의 역사를 알리는
조선의 장엄한 선언

래일도 모래도
백두의 붉은 노을을
누리에 펼쳐가실 장군님의 전선길에
내 여기에 다 쓰지 못한
불멸의 영웅서사시가 새겨지리니

아버지가 가는 길을
자식이 따라가듯이
장군님의 전선길을 끝까지 따라갈
나의 행군길
이 시의 행군길은 계속되리라!

1997. 2. 12

감사

량덕모

뜨거움에 젖어
눈물에 젖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장군님의 감사

생각할수록 꿈만 같아
다시보는 글발우에
뜨겁게 어려오는 자애로운 영상
가슴 가득 차오르는 이 고마움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있고
병사들이 있어야 이 행복 있는줄 알기에
그들 위해 원호의 지성 바친것뿐인데
어쩌면 이리도 높이 불러주시라

군대를 위하고만싶은 이 마음
우리의 가슴속에 키워주신분도
령너머 초소로 오가는 그 길
친혈육의 정으로 이어주신분도
아, 우리의 **김정일**동지
부모의 사랑 뜨거우면

자식들 사랑 뜨겁듯이
아버이가 되시여
장군님 그리도 사랑하시는 군대와 인민
어찌 뜨거운 정에 넘치지 않으랴

서로 돕고 아끼는 그 작은 싸도
크게 헤아려주시는 장군님의 감사
군민이 사랑하는 마음 꽃이라면
지지 않게 품어주는 햇빛

세상에 더는 없는 군민일치의 미풍
내 나라 가풍처럼 꽃피워주시는 장군님
그래서 군민은 언제나 한전호속의 전우
나날이 화목한 한가정의 혈육

가를수 없는 이 혼연일체 힘으로
넘지 못할 준령이 있으랴
이기지 못할 대적이 있으랴
이런 군대, 이런 인민만이 받아안은 영광
아, 장군님의 감사여!



만민의 심장속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태양상을 새겨주시려

인류력사와 더불어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의 초상은 동서고금에 적지 않지만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크나큰 은정을 담으시고 한없이 인자하신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수령님과 같이 자애롭고 거룩하신 영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밝고 환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롭고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게 하시려고 기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효심과 정력적인 지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더더욱 후덥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늘처럼 믿고살던 우리 인민은 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접하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여지는 상실의 고통으로 뼈를 에이는듯한 모진 아픔속에 피눈물을 흘리였다.

정녕 사람도 산천도 온통 눈물의 바다, 비애의 바다속에 몸부림치던 때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여러가지 사업을 포치하시고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영결식때 모실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새롭게 형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많은 사진문헌중에서도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밝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몸소 선정하시여 미술가들에게 초상화를 형상하도록 보내주시였을뿐 아니라 초상화의 액틀의 색깔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미술가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훌륭히 형상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격려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을 받아안은 미술가들은 복받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그때만 하여도 그들은 영결식의 관례대로 지금까지 모셔온 초상화를 모시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룩하신 영상을 우리르는 미술가들은 솟구치는 걱정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실로 태양의 밝은 미소로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형상하는것은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충효의 발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진문헌자료들을 우리르는 미술가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게 되는 가장 비통한 시각에 자나깨나 자애로운 어버이로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며 살아온 친근하신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 태양의 따사로움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잊지 못할 불멸의 영상을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창작에 달라붙었다.

충효의 뜨거운 마음 안고 미술가들이 막상 붓을 들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이신 뜻이 그대로 어린 태양의 미소로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문헌 그대로 형상해내겠는지, 초상화에 《이민위전》의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오직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인민을 위해 80평생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모를 그대로 현상해내겠는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오직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사흘낮과 사흘밤 충성의 창작전투를 벌렸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효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그들의 가슴속에 충성의 불길로 세차게 끓어번져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초상화로 형상할수 있었다.

7월 14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형상한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손수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각이한 거리와 각도, 명암관계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아주시고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면 볼수록 생존해계실 때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는 인상이 강하게 안겨 온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초상화를 모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가슴 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겹쌓이는 여러가지 중대사들을 미루신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7월의 그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다 완벽하게 형상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구체적인 형상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즐겨 입으시던 옷의 질감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가르쳐주시였을뿐 아니라 수령님께서 애용하시던 넥

타이를 몸소 고르시어 색깔과 무늬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나게 형상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는듯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초상화의 액틀을 수령님께서 좋아하시던 우리 나라 국화인 목란꽃으로 장식하도록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대단한 걸작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영구보존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미술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전사의 자세와 립장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이 세상 끝까지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충성과 효성이 그대로 뜨겁게 굽이치는 마음을 안은채 미술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화폭에 재현하려고 충성의 창작전투를 벌렸다.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만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며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뜻을 가슴에 안은채 그들은 옷 색깔과 넥타이를 다시 형상하였고 충효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지성어린 수천송이의 꽃을 만들어 초상화액틀둘레를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7월 18일에 다시 형상한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초상화의 옷색깔이 좋다고 하시면서 초상화액틀을 꽃으로 형상하니 우리 수령님께서 꽃속에서 환히 웃으시는것만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보고 또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확실히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래일 수령님의 초상화가 나가면 평양시민들이 다 울것이라고, 그들이 가정에도 밝게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자고 할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된 간절한 소망까지도 깊이 헤아려주시었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을 안으신채 태양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시는 불멸의 그 영상을 만민의 가슴가슴에 깊이 새겨주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은 실로 헤아릴 수 없다.

태양도 빛을 잃고 산천초목도 목놓아 울며 몸부림치던 1994년 7월 19일, 영결식행렬의 앞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수도의 거리거리에 인산인해를 이룬 평양시민들뿐만아니라 텔레비존화면을 마주한 전국의 방방곡곡의 모든 사람들은 일시에 뚫어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 부디 잘 있으라고 자자손손 복락하여 금수강산 이 땅을 락원으로 펼쳐가라고 당부하시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모습을 심장속깊이에 새기고 또 새기는 사람들은 막혔던 물목이 일시에 터진듯 견잡을수 없어 땅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못다바친 충성과 효성을 합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갈 불타는 결의가 뜨겁게 굽이치고있었다.

참으로 자애로운 태양의 미소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안겨주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열화같은 충효심과 정력적인 지도의 거룩한 자욕은 세기와 더불어 만사람의 가슴마다에 충성의 열정을 더 세차게 불러 일으킬것이다.

본사기자 석유균

1

1974년 여름 어느날,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새로 건립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구내에 들어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울긋불긋한 고무풍선이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우거진 록음속에서 지저귀던 새들이 환호의 메아리에 실려 기념관 상공을 날아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웅장하게 일떠선 기념관외형을 바라보시었다.

주변경치에 어울리면서도 무게있게 건립된 기념관은 건축형식도 독특하고 그 규모에서도 종전의 기념관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을정도로 방대한 것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웅대한 건축물을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일떠세운 인민군군인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기념관 내부를 돌아보시었다.

《대전관》을 거쳐 본관으로 향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대전관>의 반경화가 세계적인 걸작이요. 잘형상했거던. 마치도 대전시내에 갔다온것만 같소. 어떻게 그렇게 대전시가를 방불하게 그려냈소?》
《대전해방전투 참가자들의 방조를 많이 받았습시다.》

동행하던 책임일군이 그이께 말씀올리었다.

《4사 18련대 동무들도 왔겠소?》

《예, 그런데 인젠 다 제대되고 군대에는 얼마없습시다. 사단계선에는 전쟁참가자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는가? 세월두 참, 아까운 사람들이 자꾸 늙는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방금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확인하시듯 뒤따르는 일군들을 한사람한사람 둘러보시었다. 어깨의 견장에 주름히 붙은 별만 아니라면 할아버지라고 불리울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다.

흐르는 세월은 어쩔수 없다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수령님의 심중에 갈마들었다.

《전쟁참가자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이고 나라의 재보입니다. 그들을 내세워주고 끝까지 잘돌보는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숭고한 동지적의리입니다. 때문에 복무조례만 따지지 말고 일할수만 있다면 예순을 넘겨도 그냥 군복을 입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누구에게라 할것없이 말씀하시고는 본관으로 들어서시었다.

강사가 수령님을 안내해드렸다. 산뜻한 군복차림에 량볼 보조개가 움푹움푹 패이는 처녀강사는 은방울 굴리는듯한 정찬 목소리로 간단하고도 명백하게 전시된 자료들을 수령님께 설명해 드리었다. 마치도 그자신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던듯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눈물을 가랑가랑 머금으며 열정적으로 해설하는 강사를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이따금 긍정하시듯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모름지기 오늘을 위해 몇백번은 더 외우고 준비했을 저 애어린 처녀강사만큼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이 준비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드시었다. 그걸 위해서 그걸 바라고 김정일동지가 이렇게 통이 크게 구상하고 세상에 더없이 훌륭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일떠세우지 않았는가!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다 음관으로 들어서시었다.

《여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해병들의 위훈을 전시한 해군관입니다.》

처녀강사는 곧바로 실물 그대로인 어뢰정앞으로 수령님을 안내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어뢰정앞으로 다가가시었다.

선수에 새긴 전술번호가 뚜렷이 안겨온다. 그것을 보시는 순간 수령님의 눈앞에는 문득 류다른 환영이 떠오르시었다.

《정 차렷!》

여무진 함선호각소리와 함께 울리는 담찬 구령소리, 맞춤한 키에 어깨가 짝 벌어진 정장 김군옥이가 걸어나와 보고한다. 목소리도 해병답게 걸걸하면서도 힘차다. 술진 눈섭아래 부리부리한 눈은 정기가 돈다.

《어디 한번 함께 달려보자구. 정장동무, 출항하시오.》

우람찬 기관동음소리, 흘날리는 물보라.

어뢰정은 박차를 가한 말처럼 선자리에서부터 댕다 달린다. 선수를 건듯 쳐들고 기세좋게 내달리는 어뢰정을 맞받아 파도가 들이친다. 사령탑 우에까지 덮썩우는 물보라. 조타를 틀어쥐고 서있던 정장이 파도를 맞받아 앞을 막아선다.

《난 일없소. 지금 속도가 얼마요?》

《30노트입니다. 장군님.》

《최대속도를 놓소.》

《그건 위험합니다.》

《일없소. 적함에 돌입한다고 생각하고 지휘하시오. 돌격침로요. 파도가 세다고 침로를 바꾸지 말고 곧바로 항로를 굽소.》

《알았습시다.》

선미에서 솟구치는 물기둥, 갑판에 덮썩우던 파도...

수령님께서는 귀에 익은 그때의 기관동음소리가 다시금 울리는것만 같으셨다.

력사적인 해군무력의 탄생을 선포하시던 26년 전, 청진항에서 타보셨던 어뢰정이었다. 다만 그 전술번호가 다를뿐이었다. 그날의 정장은 지금 어디에 가있는가?

《1950년 7월 1일 밤 열시, 네척의 어뢰정으로 편성된 어뢰정대는 적함을 맞받아 장전함을 출항 하였습니다.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 해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처녀강사는 해설을 계속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맹세문의 글줄을 더듬으시였다. 최고사령부의 작전탁앞에서 받으셨던 맹세문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이시여.

조국의 바다에 오만하게 기여든 해적선을 수장시키고야 말 결의에 충만된 우리는 전투출항을 앞두고 삼가 이 맹세문을 올립니다.

조국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미제해적선이 떠있을 자리가 한치도 없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가슴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다운 전사답게 항일선렬들의 고매한 뜻을 이은 조선청년답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히 싸워 미제해적선부리들을 바다깊이 수장해버릴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령님의 눈앞에는 그때의 일이 다시금 떠오르시였다.

1950년 7월 3일.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방금 끝냈는데 부관이 들어와 쓰련대사관의 한 군사일군이 대기실에 와있다고 알리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시였다.

키쨌이 늘씬한 그는 웬일인지 얼굴에 웃음을 가득담고 들어와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 축하를 드립니다.》

《내가 무슨 축하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그의 손을 잡으시였다. 대사관의 군사일군은 가방에서 한장의 신문을 꺼내 펼쳐놓았다.

《우리 나라 신문 <쁘라우다>입니다. 여기에 미군 <빨찌모르>호 중순양함과 구축함을 까부신 조선어뢰정대의 전투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신문을 보시였다.

전투상황을 크게 소개한 글에서는 조선의 영웅적해병들이 이룩한 전과는 세계해전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사변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이 기적이라면 그런 기적은 이제 얼마든지 또 생겨날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군사일군은 두손을 마주잡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 형세가 이렇게 역전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령군술에 탄복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평가입니다. 내가 천재가 되여서가 아니라 우리 전사들이 잘 싸웠기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작전탁우에 있는 맹세문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그 어뢰정대 전사들이 전투에 나가면서 나에게 보낸것입니다.》

맹세문을 읽어나가는 군사일군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점차 짙게 어렸다.

구절구절 피가 뛰는 심장의 맹세가 그의 가슴도 세차게 흔들어놓은듯싶었다.

맹세문을 다 읽은 그는 말했다.

《조선전쟁이 무력의 대결이기전에 사상의 대결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만나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동무를 만나볼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동무는 자기에게 처벌을 달라고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처벌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전투지휘를 잘못해서 손실이 크다고 가슴을 치며 통탄해하고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웁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계가 감탄할 만한 진짜배기 영웅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대사관의 군사일군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1950년 7월 15일.

수령님께서는 정대장 김군옥을 비롯한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전사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에 수표하시였다. …

수령님께서는 그때 일을 회고하시면서 전시관의 벽면을 둘러보시였다.

벽면 한가운데 대형사진으로 돌격하는 어뢰정을 찍은 사진이 있고 그우에 전투성과를 부각으로 새겨놓았다.

그러나 그 전투를 지휘하여 위훈을 세운 영웅 정대장 김군옥의 사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세계가 기적이라고 떠들었고 것처럼 이름을 날렸던 해군영웅 김군옥이는 어디에 갔는가?

《바로 이렇게 근위제2어뢰정대 해병들은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강사의 해설은 계속되고있었다.

《가만, 강사동무. 김군옥이의 사진은 없소?》

수령님께서는 강사의 해설을 끊으며 물으시였다.

《예?!》

처녀강사는 한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김군옥영웅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시였다.

치녀장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옆에선 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니 결국 치녀장사는 김군옥이의 이름 자체도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책임일군이 한발 나서며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1960년도에 파오를 범하였습니다.》

《1960년도에?》

수령님께서는 뜻밖이신듯 반문하시였다.

그러니 15년전에 김군옥이는 영웅들의 대렬에서 제명된것이 아닌가.

수령님께서는 회고하기조차 괴로우신듯 나직이 물으시였다.

《60년도면 그때 그 일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군옥이가 왜 그런 길을 걸었는가?》

《맹종맹동한것 같습니다.》

《맹종맹동이라.》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응당 후세에 높아 평가되고 전쟁력사에 기록되어야 할 그의 위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처럼 배짱이 드세고 쇠소리가 쟁쟁하던 군사지휘관 김군옥이는 영영 묻혀버리고 말았는가?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가슴아프시였다.

《그래 김군옥이는 지금 어디에 있소?》

수령님께서는 책임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책임일군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드리였다. 아마도 그의 행처를 모르는것 같았다.

《그가 살아있는가?》

수령님께서는 여러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물으시였다. 서로 마주볼뿐 그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더 묻지 않으셨다.

15년 세월이 흘렀으니 인젠 모두 관심밖에 든것 같았다. 김군옥이 자신이 그걸 바라고 그 어딘가 깊숙이 숨어버린것이나 아닌지. 이제라도 그가 옛 모습 그대로 불쑥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령님께서는 송구스럽게 서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 사람이 범한 파오를 미워해야지 사람자체까지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전쟁시기 그는 잘 싸웠습니다. 물론 어뢰정대가 발위한 대중적영웅주의에 비하면 김군옥이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파오를 범한건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지 못했기때문에 우쭐해서 다니다가 그렇게 되었습니.

후대들을 교양할 때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대오에 돌아올수 있게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일군은 허리를 곧게 펴며 수령님께 대답올렸다.

수령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내가 그를 돌봐주라는것은 당장 찾아서 명예

도 회복시키고 여기로 데려오라는것은 아닙니다.

혁명규률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정이나 값죽은 아량으로는 김군옥이를 다시 대오에 뗏뗏이 세울수 없습니다. 그가 자기 발로 뗏뗏이 걸어들수 있게 뒤에서 잘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많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김군옥이도 그걸 바라고 그렇게 오고있을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념관을 다 돌아보시고 집무실로 돌아가시는 수령님께서는 승용차안에서 줄곧 김군옥이에 대해 생각하시였다.

새로 건립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김군옥이의 모습을 볼수 없는것이 가슴아프시였다.

사람이 일을 하느라하면 파오를 범할수 있다. 큰 파오건 작은 파오건 우리 당은 그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내린다.

그것은 당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규률이고 그 누구도 어길수 없는 당적원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규률속에서 더 굳센 강철로 버려졌다.

그런데 김군옥이는 영영 주저앉아버렸는가? 다시는 우리 대오에 들어설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는가.

수령님께서는 그 생각을 부정하시였다.

자신께서 품을 들어 키운 사람인데 그걸 배반할 사람이 아니였다.

그 어디에 가서는 김군옥이가 아직도 전쟁시기의 영웅다운 기질로 자신께서 그어주신 항로를 따라 곧바로 따라오리라 믿고있으시였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먼길이기기는 하지만 아무때건 김군옥이는 옛모습그대로 혁명의 군함에 입항할 날이 있을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 김군옥이는 지금 어디에 가있는가?

수령님께서는 차창밖에 눈길을 주시였다.

2

백암림산사업소 벌목공 김군옥아바이가 공화국 영웅이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사업소적으로 몇 사람 없었다.

그의 과거 경력을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있었다.

본인 김군옥은 이미 30년전에 사진기의 섬광처럼 눈부시게 번쩍거리던 자신의 과거를 영영 묻어버렸다. 그때, 곧바로 굶던 그의 인생항로에 갈지자가 생겼다. 그것은 그자신도 미처 알수 없었던 혁명의 배신자들을 따라가는 맹종맹동의 항로였다. 그 항로는 결국 북부산간오지 압록강기슭의 자그마한 농촌마을로 이어지고 말았다.

고개를 뒤로 제껴야 하늘을 쳐다볼수 있는 산 끝막바지에 인생의 닳을 떨구면서 김군옥은 자책으로 졸아드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나를 잊어버리자.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김군옥이는 이 세상에 없다.)

조국의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 숨쉬고있는것만으로도 천만번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 김군옥이었다. 낮을 들고 사람들을 마주보기가 두려웠다. 지금보다 더 깊은 산 골짜기로 들어가 조용히 혼자살고싶었다.

가정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사 온지도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떤 짐들은 그대로 집구석에 처박혀있었다.

북방의 사나운 추위가 문풍지를 울리는 어느날 밤, 군옥은 저녁술을 놓고나서 아래목에 꼬부리고 누웠다. 압록강너머 우중충한 수림속 어디선가 송냥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온다. 눈보라에 휘말려 끊을락말락 이어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있던 안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리소재지에서 오늘 저녁 새 영화를 한 다던데...》

안해의 말꼬리가 자신없이 끊어졌다.

군옥은 고개를 돌려 안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영화구경을 가자는 말이 하늘에 별따리 가자는 것 만큼이나 어처구니없이 느껴졌다. 거기가 어디라구 빼앗이 낮을 들고 간단말인가?

《당신이나 가오.》

군옥은 통명스레 말하고는 돌아누웠다.

문풍지가 아츠럽게 푸르릉거렸다.

안해가 조용히 돌아앉아 웃고름을 눈가에 가져간다. 그걸 보니 또다시 가라앉았던 후회가 같기를 처든다. 저 사람을 왜 단호히 떼버리고 오지 못했던가? 이제 나때문에 저런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다 흘리겠는가. 이제라도 보내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 생각에 채찍을 안기듯 안해의 말이 울린다.

《그 어디에 가든 함께 가서 죄를 씻어두 함께 씻겠어요. 우리 가정이야 수령님께서 무어주시는 정정이 아니냐요.》

그 말은 두달전 이사짐을 싸면서 안해가 한말이었다.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

안해의 말대로 가정을 이룰 때 수령님께서 직접 관심해주셨었다. 1954년 영웅대회때에 군옥은 외국에 장기출장으로 참가 못하게 되자 그의 누이가 참가하였다.

대회에 몸소 참석하신 수령님께서 군옥이의 누이를 만나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군옥이가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좋은 색시감을 플라주라고 하시었다.

누이는 수령님의 다심하신 말씀에 어려움도 있고 품속에서 처녀의 사진을 꺼내드렸다.

《처녀가 잘 생겼구만. 마음씨도 곱겠소, 내 마음에두 드는데 군옥이가 어떻가?》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둘사이느 벌써 마음이 통한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격 잔치를 해주라구. 군옥이에게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라구 내가 축복하더라구 전하오.》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런 가정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는가?

오늘수록 더더욱 높아만지는 자책의 칼벼랑을 다시 뚫는데 문득 문앞에서 발소리가 탁탁 울려더니 석싹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 사람 있나?》

군옥은 용수철에 튕긴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밤중에 누가 우리 집을 찾아오는가? 이곳에 와서 리당위원장 다음에 찾아오는 첫 손님이였다.

대답도 하기전에 부엌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래 마을에 사는 최로인이 들어섰다.

《있었구만. 영화구경은 안가나?》

《예, 그저 좀...》

군옥은 애매한 대답을 하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최로인은 성애가 허영계 불린 털모자를 벗어 탁탁 털더니 구들에 올라와 앉았다.

《방이 썩구만. 흔한게 나문데 아궁에 꼭 먹일것이지.》

《예, 이제 더 때겠습니다. 여보.》

군옥은 서둘러 안해를 재촉했다.

《됐네. 내가 추워서가 아닐세. 나야 한뼉을 여기사 살아온놈인데... 아주머니, 거 뭐 김치쪽이 있으면 뒤져가락 집게 가져오시우.》

최로인은 털조끼안에서 술병을 꺼내놓았다. 안해가 급히 상을 차려 들여오자 최로인은 잔에다가 술을 부었다.

《자, 한잔 들게. 우리 로친이 담근걸세.》

최로인은 제먼저 단숨에 쭉 마시고는 수염을 씻었다.

군옥은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왜서인지 목구멍이 껍 메며 술이 넘어가지 않는다. 술대신 뜨거운것이 가슴을 지지며 흘러든다. 군옥은 들었던 술잔을 도로 놓았다.

《왜? 입에 불지 않나? 하긴 자네야 이런 뿌연 건 처음일테지.》

최로인은 자기 잔에다가 술을 부어 연거퍼 두잔을 또 마시었다. 그리고는 안주대신 큼직한 마라초를 붙여물었다.

《내 한마디 하려구 왔네. 듣자하니 자넨 공도 크게 세우구 죄도 크게 저터군. 우리 수령님앞에 큰 죄를 저터란말이야. 자네 본심으루 그런건 아니겠지?》

아바이의 후더운 입김이 얼굴에 확 끼쳤다.

《...》

군옥은 머리를 떨구었다. 너무나도 깨끗한 랑심앞에, 순결한 물음앞에 가볍게 입을 열수 없었다.

《어디 대답해보게.》

최로인의 엄한 눈길이 화살처럼 박힌다.

《아바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난 문초하려구 온건 아닐세. 사람의 금새를 알려구 왔지.》

《제가... 본심으로야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테지. 그럼 우리 수령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야 지금두 변함없겠지?》

군옥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것까지 의심하는가? 나에게서 그 마음까지 떼놓으면 남는것이 뭐란 말인가? 불시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싶었다.

《아바이, 그것두 말이라구 묻습니까?》

군옥은 저도모르게 술상을 내리쳤다.

《그렇다면 됐지 응?》

최로인의 커다란 주먹이 마주 상을 때렸다.

《그거면 됐지. 그 마음만 변치 않았으면 무엇이 두려워 고개를 쳐박고 다니는가 말이야. 당에서는 눈을 바루 뜨라고 자넨 여기로 보낸거야. 산이 둘러막혔다고 여기 사람들의 생각도 둘러막힌줄 아나? 자네처럼 공을 세운 영웅은 여기 없어두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 반드는 마음만은 자네보다 열곱, 백곱으루 높은 사람들이야. 바루 그걸 배우라구 자넨 여기루 보냈는데 그런 사람들을 피해 다니니 그 행동거지가 돼먹었는가? 틀렸단 말이야!》

푸들푸들 떠는 최로인의 굵직한 손가락잡에서 담배재가 툭 부러져내렸다. 노기가 사라진 최로인의 눈에서는 물기같은것이 번뜩이고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군옥은 불시에 최로인의 무르팍에 얼굴을 묻었다.

《아바이, 절 때려주십시오. 제가 속통이 좁은 놈이었습시다.》

최로인의 거울진 손이 들먹이는 군옥이의 잔등을 어루쓸었다.

《이사람아, 여기는 백두산말이야. 저 앞산에 올라가면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네. 늘 그걸 궁지루 안고 정을 붙이게. 이제 백두산바람이 자네머리를 시원히 가서줄걸세. 미국놈을 둘러메치던 그 손탁으루 우리 함께 일해보자구.

그럼 난 가겠네.》

최로인은 움쭉 일어서더니 털모자를 꼭 눌러썼다.

《아니, 아바이 좀더 앉았다가...》

《난 영화화문 오금을 못쓰는 사람이야. 로친네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놔줄걸세.》

군옥은 맨발로 따라나가 최로인을 바래왔다. 안해도 옆에 서서 옷고름으로 연신 눈물을 씻는다. 군옥은 멀리 사라진 최로인의 등뒤에 대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고맙습시다. 아바이, 이 김군옥이는 다시 일어 서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새벽에 작업반장이 찾아왔다.

《날씨가 독을 쓰기 시작하누만.》

반장은 장갑도 끼지 않은 시뻘건 손을 화로우에 대고 썩썩 마주비비더니 말꼭지를 뺐다.

《오늘부터 매 세대에서 퇴비 열톤씩 밭에 내기루 했수다.》

《열톤씩이요?》

군옥이가 미처 대답하기전에 안해가 앞질렀다.

《예, 그렇수다.》

《그 많은걸 잡자기...》

안해가 행주치마에 두손을 감싸쥐며 말꼬리를 흐렸다.

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시원스레 그루를 박았다.

《좋수다. 그럼 절반만 하시우. 가지 이사왔으니까 집집승두 없겠는데. 여기저기서 굶어모으면 서너톤은 할수 있을거우다.》

반장은 움쭉 일어서더니 털모자를 집어썼다.

《가만, 반장동무.》

군옥은 나가려는 반장을 불러세웠다.

《우리도 열톤을 하겠습시다.》

《할수 있겠소?》

《해내겠습시다.》

《하여튼, 되는 힘껏 해보시우.》

반장은 군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반장이 남기고 간 말이 군옥이의 비위에 거슬렸다. 되는 힘껏 해보라? 이런 명령도 있는가? 왜 내가 첫마디에 대답을 못했던가. 내가 군대에서도 이랬던가? 불쑥 치밀어오르는 충동에 못이겨 군옥은 주먹으로 문턱을 쳤다.

《여보, 당신 정신있소?》

안해가 와들 놀라며 쥐고있던 부지깽이를 떨구었다.

《열톤이건 백톤이건 하라면 됐지. 응? 무슨 타발질이요. 군대가 임무를 받으면 알았습시다 대답 한마디면 다지 무슨 흥정인가 말이요!》

군옥이의 짝 부르친 주먹이 푸들푸들 떨렸다. 안해의 놀란 눈길이 이쪽에 와서 박혔다. 그 눈의 초점이 점차 풀리더니 얼굴엔 애매한 미소가 어설프게 실렸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깨달은 순간 군옥은 주먹에서 힘을 뺐었다. 내가 무슨 군대라고 흰소리를 치는가. 아무리 입에 오른 말이라도 리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함부로 췌쳤다는 씩스리운 생각이 들었다. 군옥은 툭 가라앉은 어조로 변명하듯 말했다.

《여보, 그건 반장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요. 난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마음의 군복은 벗지 않겠소. 10년이건 20년이건 내 힘이 진할 때까지 말이요.》

그길로 군옥은 안해를 이끌고 부엉산기슭으로 갔다. 허리를 치는 눈을 삼으로 파헤치며 군옥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퇴비가 없으면 부식토라도 파자. 나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다.)

언땅을 까내는 곡괭이끝에서는 불꽃이 팍팍 튀긴다. 하루종일 까내놓고 보니 한달구지 되나마나 했다. 하지만 그 한달구지의 부식토에 군옥이도 안해도 녹초가 되어버렸다.

저녁술을 놓기 바쁘게 군옥은 숨처럼 나른해지

는 몸을 억지로 일켜세웠다.

《여보, 삼태기를 준비하오. 영일아, 너두 옷을 입거라.》

《어찌자는거예요?》

안해가 불안스레 물었다.

《길바닥에 널려있는것이 온통 퇴비요.》

《그런일에 애까지 끌구 나갈거야 뭐 있어요?》

《그애도 밥숟가락의 무게를 알아야 하오.》

낮이면 부식토를 파내고 밤이면 널려있는 퇴비를 모으는 일이 군대의 일과처럼 되었다. 앞마당의 울바자옆에 퇴비무지가 키를 솟구기 시작했

다. 언감자국수를 치마폭에 싸들고 들어오던 옆집 아낙네가 그걸 보고 혀를 찼다.

《실루 기차기두. 아이, 이 집에서 언제 농사를 해봤다구 이럼메? 실농군이 왔다가 울고 가겠소.》

며느리의 해산날이 며칠 안남았다고 미역을 얻으러 왔던 최로인에게 마누라가 맛장구를 친다.

《내 말이 그 말이요. 왕눈이네는 어방두 없어.

소궁둥이 하나만 쳐다보구 건달치지 말게나.》

《이 아마이 별걱정 다하오. 소궁둥이건 돼지궁둥이건 열톤을 하면 될게 아이요. 제사 무슨 반장이라구.》

옆집 아낙네는 마치도 제집처럼 찬장을 열고 소랭이를 내려놓고는 들고온 바가지의 국수를 폭 쏘아놓는다. 그리고는 부엌바닥에 놓은 김치단지를 열어보더니 또 혀를 딱 찬다.

《예구, 그새 갓김치를 다 먹었구마. 그랬음 와서 가져갈게지 또 가져다 달라오?》

억양이 거센 북방사투리가 마치도 싸움이라두 거는것 같다. 그리고는 김치단지를 힝 들고는 연방 혀를 차며 나간다.

《아니, 내가 가요.》

안해가 황급히 따라서며 만류했다.

《봐두라구. 그 집은 내외간이 다 저렇게 맘이 곱다네. 그럼 래일저녁 영일이랑 데리구 건너오라구. 우리 령감 생일이야.》

일이 사랑이라고 일에 정을 붙이니 단번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것 같았다.

군옥은 마치도 자기네가 그 어디 먼곳에서 흘러 온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여기서 살았던듯싶었다. 정을 주어도 드세게 폭폭 퍼주는 이런 소박한 사람들속에서 진하게 풍기는 새로운 생활의 감미로운 향기가 가슴빠근히 흘러든다.

일을 하자! 뼈마디가 늘씬하게 내 힘껏 일을 해서 고마운 사람들의 믿음에 보답하자!

군옥은 자신도 모르게 두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글타글 노력해서 장만한 열여섯톤의 퇴비를 발에 다 실어내간 밤, 군옥은 네활개를 쭉 펴고 아래목에 드러누웠다.

(반장동무, 농장원 김군옥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마음은 똥똥 떠서 어디론가 자꾸만 흘러가는것

같았다.

아 이런 맛에 일을 하는가?

영일이가 구울듯이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의 가슴우에 덩싹 엮드렸다.

《아버지, 아버지가 속보에 났어.》

《뭇라구?!》

군옥은 벌떡 일어났다.

《저 관리위원회마당 계시관예요. 가보자요.》

《가보긴 뭘.》

군옥은 아들의 손에서 팔을 뽑았다.

10년전 영웅칭호를 수여받던 그때처럼 가슴이 쿵쿵 뚫다.

그날밤, 안해와 아들이 다 잠든뒤에 군옥은 살그머니 일어나 옷을 꺼입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휘영청 밝은 달이 두둥실 떠서 온통 백색으로 덮인 마을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발밑에서 뽀드득 뽀드득 눈발히는 소리가 기분 좋게 울린다. 군옥은 그 소리가 잠든 사람들을 깨울것만 같아 발소리를 죽여가며 관리위원회 마당으로 갔다. 주르륵 붙은 계시관의 세번째 자리에서 군옥은 자기의 이름을 보았다.

《주인다운 일본새.

8작업반 3분조 농장원 김군옥동무. 미국놈을 쳐부시던 그 기백으로 16톤의 퇴비생산!》

군옥은 그 자리에 박힌듯 서서 오래도록 보고 또 보았다. 자기도 모르게 눈곱에서 뜨거운것이 두르르 굴러내린다.

자신을 잊어버리자고, 김군옥이는 이 세상에 없다고 몸부림치던 때는 언제이던가!

(고맙습니다. 이 김군옥이를 다시 찾아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군옥은 계시관앞에 깊숙이 허리를 꺾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군옥은 길옆에 두텁게 쌓인 하얀 눈우에 네활개를 펴고 털썩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거칠것이 없는 하늘을 향해 웃음을 터쳤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마음껏 웃었다. 새 생활은 얼마나 보람찬것이냐!

일어나보니 자신이 누웠던 자리에 눈도장이 깊숙이 찍혀져있었다. 문득 어렸을 때 눈이 오면 저마끔 눈우에 누워 도장을 찍던 생각이 났다.

군옥은 자신이 찍어놓은 눈도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웨쳤다.

(수령님, 죄많은 김군옥은 다시 태어나 새 마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생활은 시작되어 8년이 흘렀다. 만아들이 커서 새로 개발되는 백암림산사업소에 자원진출하였다. 김군옥은 어려운 일터에 자진해가는 아들을 따라 생활의 보금자리를 다시 옮기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백암림산사업소에서 《날도끼》아바이라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일에서 드세고 생활에서 락천적인 아바이를 사람들은 존경하였다. 하지만 그가 영웅이었다는것은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김군옥아바이의 가슴속에 날이 갈수록 더더욱 커만가는 생각이 무엇인지도 알수

없었다. 그 생각은 오직 본인, 김군옥이만은 가슴깊이 묻어두고 늘 거기에 비취보며 살아가고있었다.

그 량심의 거울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지 못한 지나온 생의 공백을 대를 이어 가면서라도 메꿔야 한다는 자각이었다.

도저히 가져질수 없고 끝나지 않는 그 자책의 시효속에 김군옥은 어느덧 칠순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다.

3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에서 올려온 보고자료의 마지막 장을 덮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문건을 놓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시금 마지막장을 되번지시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훈을 세워 널리 알려졌던 영웅들의 현생활자료와 간단한 경력이 적혀있는 문건의 맨 마지막에는 처녀비행사였던 태선회의 이름으로 마감짓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창문쪽에 눈길을 주시었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시었다. 물론 문건 자체에는 빈틈이 없었다.

자신께서 무엇을 의도하고있는가를 알고 작성한 보고자료는 모든것을 예견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것이었다.

현 생활실태와 사업능력 지어 건강상태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적혀있었다.

하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왜서인지 그 문건이 이름을 부르다가 도중에 뚝 끊어버린 점점명부처럼 느껴지시었다.

파연 이 사람들밖에 더는 없겠는가!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아끼고 내세워 주시던 사람들, 늘 기억하시고 못잊어하시던 사람들이 더는 없겠는가?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색을 집중하시고 한사람, 한사람 짚어나가시었다.

그 사색의 갈피에 문득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

김군옥이었다.

수령님께서 자주 기억하시고 못잊어하시던 김군옥이.

그이의 눈앞에는 두해전 어느 봄날에 있는 일이 떠오르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 함께 싸운 한 투사의 머느리와 손자를 만나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많은 시간을, 참으로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시었다. 오찬회석상에도 함께 앉으시고 함께 정원도 거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었다.

석양무렵에야 그들을 배려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난 오늘 또 한시름을 덜었소. 별동대장에게

저런 꼴꼴한 손자가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피줄을 든든히 이어거던.》

수령님께서서는 뒤집을 지시고 만족하게 웃으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도 함께 웃으시었다.

수령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이런 순간을 천번이고 만번이고 다시, 또다시 마련해드리고싶으신 심정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가 그렇게 애써주니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사람이 지녀야 할 미덕중에서도 첫째가는 미덕은 도덕의리라고 생각하오. 그 숭고한 도덕의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의 이 위대한 창조를 이룩할수 있었겠는가.》

수령님께서서는 멀리 보이는 주작봉마루를 바라보시었다. 붉은 노을빛을 받은 주작봉은 적갈색의 빛을 발산하며 숭엄하게 솟아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덕분에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여한이 없이 눈을 감았소.

김일, 최현, 림춘추...

그들모두는 지금 저기서 옛전우들과 함께 영생의 대오에 서있소. 간 사람들뿐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김정일**동지가 잘 돌보아주기에 오늘도 기가 펄펄 살아서 일을 제끼고있지. 그들은 아마 백살을 넘겨도 영원한 청춘의 기백으로 일할거요.》

수령님께서 하시는 과분한 치하에 그이께서는 가슴이 후터워오름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자신께서는 그저 수령님께서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이어오신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그대로 이어온것인데 이토록 높이 평가하시니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많은 이야기를 하시었다. 그 이야기는 주로 잊지 못할 사람들에게 대한 추억이시었다.

그 추억속에 문득 김군옥의 이름도 올랐다.

《김군옥이두 전쟁시기에 잘 싸웠소. 세계가 떠들었지. 그래 그를 아끼느라고 외국에까지 보냈댔소. 그런데 그가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지 못하더니 한발 잘못 짚었거든. 군사지휘관으로서는 한몫 할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물혀버린지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소. 살아있다면 이젠 예순을 썩 넘겼을거요. 나는 그가 어느때는 대오에 다시 들어설것을 기다리고있었는데... 김군옥이, 정말 잊을수 없는 동무요.》

수령님께서서는 젊은 시절의 옛 영웅정대장을 그려보시듯 산발너머 멀리 동해바다쪽을 바라보시었다. ...

그날은 1994년 5월 어느날이었다.

그로부터 두달후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생각을 멈추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는 그이의 눈앞에는 환하게 웃으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다시금 짝 차오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던 때가 어느때 이던가!

아마도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날 때, 잊었던 사람을 찾았을 때인것 같았다.

그런 때면 눈물도 흘리시고 노래도 부르시며 오직 세상에서 그 일밖에 없으시듯 모든것을 다 바치시던 수령님!

수령님의 그 뜨거운 인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 위에서 1994년의 그 짧은 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령님을 만나뵈웠던가! 그처럼 분망하게 보내신 우리 수령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생각하셨는지 지금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생전에 그처럼 외우시며 못잊어하시던 사람들, 수령님과 특별한 연고관계가 있던 사람들은 수령님께서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계신다.

그중에는 김군옥이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수령님께서 자주 외우시던 김군옥이의 이름이 없다. 왜 그를 빼놓았을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화로 인민무력부의 해당 일군을 찾으시였다. 그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기본문제로 들어가시였다.

《여기 올려보낸 문건에 왜 김군옥동무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예, 그건 저...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고려할 점이란게 그의 과거 경력입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직관 물으시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의 생활을 알아보았습니까?》

《예, 김군옥동무는 지금 백암림산사업소에서 벌목공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960년도에 철직 제대되어 농장원으로 8년 일하다가 그 다음은 립산으로 자원진출한 둘째아들과 함께 지금까지 벌목공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한단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동무를 보고 <날도끼>아바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아마도 드세다는 표현인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이따금 사냥도 다닌다고 합니다. 작년겨울에는 웅노를 놓아 큰 메돼지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그 동무의 나이가 인젠 예순을 켜 넘겼겠지?》

《그렇습니다.》

《음, 그래 그다음 무엇을 더 고려했습니까?》

《알아본데 의하면 그 동무가 지금 신경통으로 왼쪽다리를 약간씩 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보고자료에 김군옥이의 이름을 빼놓은 일군들의 심정이 리해되시였다. 단순히 명예회복인것이 아니라 군복을 다시입는 문제인것만큼 심사숙고한것 같았다.

하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 김군옥이의 면모를 파악하시였다.

현재의 김군옥이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30여년의 나날이 환히 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김군옥이의 불미스럽던 과거의 과오만 크게 보았지 지금의 김군옥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예순나이를 넘긴 오늘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가 범한 과오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가 지금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까지 그렇게 산다는것은 우리 수령님을 따르고 당을 따르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그 마음이 귀중합니다.

그가 그럴 사람이였기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늘 기억하고계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영웅다운 기질이 있는 김군옥이만을 알고계셨습니다.

그가 가지고있는 별명이라든가 아직도 메돼지를 돌러메치는 그 기백은 전쟁시기의 영웅정대장 김군옥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지 않습니까?

그를 소환합시다.

그를 여기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줍시다.》

《알겠습니다. 즉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셨다. 의자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문건을 끄당겨 펼치시였다. 그러시고는 문건의 여백에 활달한 필치로 손수 쓰시였다.

김군옥.

직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군사칭호. 해군소장

공화국영웅. (첫 영웅칭호를 받은 정령날자로 할것)

입당. (복당으로 하지 말고 처음 입당한 날자로 할것)

함께 살던 둘째아들과 함께 소환하며 살림집을 해결하여줄것.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아 더 쓸 자리가 없는 문건여백을 보시다가 뒤면에 또 쓰시였다.

※ 소환 즉시 입원시켜 치료시킬것.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쓰신 글을 이윽도록 들여다보시였다.

그우에 김군옥이의 모습이 우렁이 떠오른다. 금줄이 빛나는 군모밑에서 반백이 되었을 귀밑머리가 흘날린다. 세월이 패워놓은 이마의 주름살을 군모의 채양이 가리워줄것이다.

수령님께서 아련 김군옥이를 만나신다면 얼마

나 기뻐하셨겠는가. 자신께서 좀더 일찌기 관심을 두지 못한것이 후회되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쪽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물기같은것이 번쩍이였다.

(수령님, 수령님을 받들고 가렬한 전쟁의 불구름을 헤쳐온 영웅들이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강태무, 표무원, 김군옥, 태선희...

수령님 생전에 그들을 내세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저는 가는 세월 오는 세월 다 잡아놓고 수령님을 따라 한생을 살아온 충신들을 영원히 그 시절의 모습으로 세워놓겠습니다.)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공훈강사인 해군소장 김군옥은 휴게실에서 평양전학 온 어제날의 농작마을 사람들을 만나고있었다.

락심천만해있던 그에게 힘을 주고 고무를 주던 어제날 최로인의 손자와 머느리, 머리 허연 작

업반장 그리고 갓김치단지를 안고오던, 인젠 할머니가 된 옆집아낙네는 그의 손을 잡고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실루 기차기두 하지비. 어쩌면 이렇게두 젊어 보이오.》

《그러게 말이우다. 한 20년은 되짚은것 같수다.》

옆집아낙네의 말에 반장이 맞장구를 친다.

김군옥은 친지나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따끈한 차를 권하며 말했다.

《예, 난 정말 청춘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인생항로를 잘못잡아 불시에 닦을 내렸지만 우리수령님과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랑의 배에 저를 싣고 오랜 세월 계속 함께 안고오시였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가슴아픈 세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리 전사들을 모두 품어안고 노를 저어가는 이 크나큰 사랑의 세월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야전복

김석전

그날따라 진눈까비는
왜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야전복차림으로 대덕산에 오신
우리 장군님의 어깨우에
철없이 덧쌓이던 이른 봄 진눈까비...

쌓였다간 녹아내리는 그 진눈에
옷자락이 다 젖는줄도 모르시고
해종일 병사들과 함께 계신 장군님
그날에는 우리 미처 다 몰랐던것을
한해가 흘러간 오늘에야 가슴치며 생각하노니

우러를수록 뜨거워지는 마음속에
소중히 살펴보며 불을 부비니
아, 우릴 위해 맞으신 모진 눈비가
그 한겹의 야전복에 다 젖어있구나

그 차림으로

수령님 자욱어린 초소들을 다 찾으시며
그 차림으로
병사들이 있는 마지막고지까지 다 오르시며
쉽없이 걸으신 전선천리길을 무슨 말로 전하랴

눈굽이 젖어라 봄꽃이 피는 출근길을 가고
불밝은 보금자리에서 편히 잠들며
우리 보낸 이 한해는
세월의 눈비바람을 다 막아주신
그이의 야전복아래서 흘러왔구나!

아, 오늘의 준엄한 폭풍속에
우리 사는 이 땅이
우리 누려가는 이 행복이
어떻게 수호되고 어떻게 꽃피였는가를
흐르는 세월속에 전해줄
아버이장군님의 야전복이여!



명절중의 명절

1973년 4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망울이 저 언제면 피어나랴싶던 길가의 살구꽃이 활짝 피어나고 생울타리로 심은 나리꽃이 노란 담장을 이루어 평양에 꽃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환희의 봄이 왔음을 알리고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둘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기념한 감격이 엇그제같은데 어느덧 또다시 4월의 봄을 맞은 수도시민들은 활기에 넘쳐 거리를 물결쳐갔다. 수도의 거리는 어디라 없이 명절분위기에 한껏 휩싸여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일군이 방에 들어서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한옆으로 밀어놓으시며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4월의 명절이 가까와오는데 어떤 사업을 조직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4.15를 맞으며 기념강연을 비롯한 몇가지 사업을 조직하였다고 말씀드렸다.

《조직한 사업이 그게 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중하신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 물으심에 일군은 한동안 갑자르다가 4.15가 정주년이 아니기때문에 크게 조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주년이 아니란 무슨 소리인가고 놀라우신듯 반문하시였다. 그러나 그것은 반문이 아니라 너무도 어이없는 일군의 대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한동안 말씀이 없이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다 정주년이 아니여서 크게 죄지 않는다는것은 참 묘한 론리라고 하시면서 알아본데 의하면 이번 4.15가 정주년이 아니라고 별다른 행사를 조직하지 않고 고작해서 기념보고회와 늘 하던 강연회를 조직하는것으로 그치고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4월 15일이 일요일이라고 하여 일요일 겸 명절이기때문에 휴식하라고 하였다니 그야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래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일군은 뒤말을 더 잊지 못하였다. 그때에야 일군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더우기 혁명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령도자, 혁명의 수령에 대한 의리가 깊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간곡히 깨우쳐주시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일을 정주년에 더크게, 더 의의있게 기념하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주년이 아닌 여느해의 4.15는 범상하게 지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생각해보시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노래하면서도 수령님의 탄생일을 해를 가려가면서 기념해서야 어떻게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설날이나 5.1절 그리고 8.15명절에 비기겠습니까. 4.15명절이 없으면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다른 명절이 무슨 의의가 있고 설사 명절이 있다한들 즐겁고 유쾌하게 지낼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4.15명절이 있기에 모든 기념일들이 더 의의가 있고 빛이 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고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준절하신 말씀에 일군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자신들이 조직사업을 잘하지 못하여 아버지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수 있는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래년부터는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흔들시며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아니, 금년 4.15부터 잘해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며 왜 래년부터 바로잡으려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4.15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어서 그런다고 대답올렸다.

《늦지 않았습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깨달았으면 당장 바로

잡아야지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늦잡는것은 혁명전사의 일본새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수습하여 4월 15일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알았습니다.》

일군은 기운차게 대답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4. 15를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내용과 하루이틀에 포치하여 할수 있는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4. 15를 어떻게 기념하는가 하는것은 당에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시며 이번 4. 15를 시범을 보여 들썩하게 잘해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뜨거운 감동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인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경사롭고 의의있게 경축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토의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취해주신 비상조치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들이 추가적으로

더 조직되어 4월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그리고 다음해부터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뜻깊게 기념하는것이 전통화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 469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인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여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천세만세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되는 하나의 정치적사변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생활풍습을 마련해준 위대한 역사적공헌이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명실공히 긍지높은 **김일성**민족임을 자랑하는 징표의 하나로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불멸의 공헌을 칭송하며 대대손손 전통적으로 길이 전해질 것이다.

솟아오르는 태양

아브들라이에 파니에 두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솟아오르는 태양
밤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과도 같이
사람들의 앞길을 밝혀주시여라
주체사상으로 조선인민의 단결을 이룩하신
그이
그이는 세계의 희망

그이는 솟아오르는 태양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 빛나게 이어가
시여라
그이는 민족통일의 구성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래일에 통일의 열매를 안아오시리
세계를 밝히는 희망의 등대
그이의 탄생은 세계의 영광

그이는 솟아오르는 태양
백두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시여라
자신의 힘을 깨우쳐주시는 스승
그이의 탄생은 세계의 기쁨

(필자는 기네전국작가동맹 위원장임)

뜻깊은 명절도 병사들과 함께 보내시며

봄계절이 한창이다.

시원스레 뻗어간 대통로를 따라 줄지어선 가로수들에 피어났던 연록색 햇순들도 어느덧 완연한 푸른색을 떨치며 피어올랐다. 용단처럼 펼쳐진 푸른 잔디밭, 여기저기 피어난 갖가지 꽃들이 저마끔 풍기는 꽃향기,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에서 따사로운 빛을 뿌리는 봄날의 태양, 그 어딜 보아도 청청하고도 싱싱한 봄기운이 한껏 넘쳐난다.

거리를 따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만남을 이겨내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해가는 승리자의 기쁨과 긍지, 자랑과 환희가 넘쳐난다.

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대렬을 맞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인민군병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얼굴마다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65돐을 뜻깊게 기념한 행복감, 위대한 령장의 전사된 영예가 한껏 넘쳐난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을 이끄시는 그 길에 바쳐오신 로고의 자욱자욱이 가슴뜨거워 어렵다.

65년전 안도의 수림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총대로 보위할 숭고한 사명을 안고 자기의 첫 걸음을 내디딘 우리의 혁명무력.

그날을 돌이켜보느라니 비운의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구원할 20대의 청년장군, 백두의 정기를 타고난 장군을 맞이한 감격을 안고 우리 인민이 터치던 환호성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다.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 청소한 혁명무력을 이끄시며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만주의 광야에서 풍찬로숙하신 밤은 몇천몇백밤이며 넘고 헤치신 험산준령, 피어린 눈보라길은 몇천몇만리던가. 해방후에는 우리 혁명무력을 정규적인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시였으며 전화의 그 나날에는 조국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포연자욱한 전선길을 또 그 얼마나 많이 걸으시였던가. 전후에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 세계에 그

위용 떨치는 자위의 강국을 세우시기 위해 불면 불휴의 노력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 건군의 길위에 한평생 바쳐오신 그 불멸의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무력은 그 어떤 대적과도 맞서 싸워 승리할수 있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대오로 자라난것 아니던가.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서시어 무적의 기상 떨치시며 우리 조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초부터 전선 동부와 서부, 중부를 주름잡으시며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어 령장의 슬기와 담력으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며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은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부터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결에서 명장의 지략을 키우신 장군, 백두산의 장군이시다.

정녕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사상도 필승불패의 사상, 령도도 백전백승의 령도, 기질도 이기는것을 천품으로 타고나신 무적필승의 장군이시다.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는 오늘의 승리의 명안도 우리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에 있고 그 어떤 천만대적과도 맞서 싸워 승리만을 펼쳐가는 무적의 장수힘도 장군님의 지략과 담력에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시며 온 나라가 다 쉬는 명절날이나 일요일에도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신다.

온 나라 인민이 다 즐거운 마음을 안고 휴식하고있을 때 머나먼 전선길을 달리시어 병사들을 찾으시어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원썬적멸의 장수힘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지난해의 건군절에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초소의 병사들과 함께 명절의 온 하루를 보내시지 않으셨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64돐이 되는 뜻깊은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명절을 쇠는 인민군장병들을 만나

보고싶으시여 아침일찍 수백리 먼길을 달려 전선 서부 대련합부대를 찾으시였다.

뜻깊은 건군절에 지나거나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부대에 모시게 된 인민군장병들은 솟구치는 감격을 억제할수 없어 만세를 높이 부르며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군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모두들 잘 있었습니까? 명절을 맞는 동무들을 축하합니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명절을 맞을 때면 수령님 생각이 더 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리여있는 사적건물들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사랑하는 전사들을 한뼘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촬영도 하시고 군인들의 체육경기도 보여주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지휘관들에게 전사들과 함께 조선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자고 하시며 부대의 문화회관으로 들어서시였다.

순간 장내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전사들의 걱정, 환호성과 감격의 흐느낌소리가 한데 어울려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전연에서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명절날에 인민군협주단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보여주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있는 예술단까지 보내주시고 오늘은 친히 전사들과 함께 공연도 보아주시니 군인들의 가슴이 어찌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수 있으랴.

군인들에게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는 공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잠시라도 더 안기고싶어 눈시울 적시던 전사들은 또다시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해가지고오신 명절음식상이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것이다.

명절이면 자식들의 구미에 맞는 색다른 음식을 한가지라도 더 차려주려고 마음쓰는 친어머니의 사랑을 백배로 합친다 한들 전사들의 식성까지 헤아려 준비한 명절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수백리 먼길을 이른새벽에 떠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다심하고도 웅심깊은 사랑에야 어찌 비길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수저를 들지 못하는 군인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전방초소에서 수고하는 동무들을 위해 최고사

령관이 차린 상이니 어서 많이들 드시오. 그래야 내 마음도 기쁘게 아니겠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음식그릇들을 군인들앞에 밀어놓으시며 명절날인데 많이 들라고 몇번이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끝없는 감격과 흥분, 무상의 행복과 기쁨속에서 뜻깊고 즐거운 식사시간이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군인들이 명절상에 둘러앉아 웃음을 피우는 그 모습은 최고사령관동지를 친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과 한식술,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군대의 행복한 대가정의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렇듯 군인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시며 오후에도 퍼그나 오래동안 부대에 머무르시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과 헤어지기 못내 아쉬우시여 좀처럼 부대를 떠나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떠나셔야 할 때가 되어 마당에 나오시여셔도 작별의 정을 금치 못하며 뜨거운것을 삼키는 군인들을 바라보시며 섣뜻 차에 오르지 못하시였다.

《초소를 동무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모두 건강하여 초소를 튼튼히 지키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따라나서는 군인들의 손을 다시금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렇게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차에 오르시여 군인들이 보이지 않을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드시였다.

그날밤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를 다녀오신 일을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그곳 부대의 군인들이 명절을 잘 쇠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며 일군들에게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명절을 더없이 뜻깊게 보낸 영광과 행복감을 금치 못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서야 저으기 안심되시는듯 미소를 지으시였다.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며 전사들과 온 하루를 보내시고도 주신 사랑 적으신듯 그렇듯 마음쓰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혁명무력의 위대한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그렇게 인정이 깊고 뜨거우시며 다심하신분이시다.

정녕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 그 어느 군대의 력사에 최고사령관이 건군절을 맞는 평범한 병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온 하루를 같이 보내며 친어버이의 사랑을 베풀적 있었던가.

인민군대 모든 전사들을 친자식으로, 한식술로 여기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배워실 수 있는 사랑이고 믿음인것이다.

우리들의 눈시울을 젖게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어찌 건군절 명절의 하루에만 있을것이라.

어느 겨울날에는 벼랑길에 눈얼음이 깔려 못올라가신다고, 자동차길을 라용하자고 하는 일군들에게 병사들이 오르는 길인데 우리도 어서 오르고 하시며 험한 벼랑길을 한결음한결음 톱으시여 초소의 병사들을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시여서는 바다바람에 녀성군인들의 얼굴이 튼것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모든 녀성군인들에게 약크림을 보내주도록 하시고 전선동부의 351고지를 찾으셨을 때는 군무를 서는 군인들의 숨통복도 몸소 만져보시며 숨이 얇아서 출졌다고 걱정하시며 숨을 더 두텁게 넣어주라고 말씀하신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병사들에게 베풀어 주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느라니 언제인가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에 대한 교시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릴줄 아는 장군이 진짜장군이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그렇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최고사령관이시기에 앞서 전사들의 친아버지이시며 병사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 원수들에게는 백두산의 호랑이로 칭송되는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언제나 우리 병사들이 제일이라고,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흠냄새도 말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위대한령장은 위대한 건군사를 창조하며 명장 밑에는 약한 병사가 없는 법이다.

세상에서 군인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며 그들과 하늘길, 배길도 함께 가시는 그러한 위대한령장을 모셨기에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불패의 위용떨치는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고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적구에서도 자기 수령의 초상휘장을 모신 군복을 가져오라고 당당하게 호통치며 싸우는 영웅전사로, 진짜배기 충신군인으로 자라난것이다.

사람들이여, 돌이켜보시라.

보병들을 찾으시여서는 하나가 백, 천을 담당

할수 있는 무쇠병사의 큰 심장을 안겨주시고 해병들을 찾으시여서는 적들이 호언장담하는 《바다의 섬》도 일격에 수장해버릴 담력과 기질을 키워주시고 비행사들을 찾으시여서는 조국의령공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하늘의 매》가 되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실뿐아니라 가시는곳마다에서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그러면 알수 있으리.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가슴마다에 맥박치고 있는 철의 의지와 불굴의 총폭탄정신이 위대한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장군다운 배짱, 뜨거운 인정미에 그 뿌리를 두고있음을.

참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처럼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령군술, 전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다같이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령장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사랑과 불타는 충성으로 굳게 맺어진 최고사령관과 전사들간의 끊을수 없는 혼연일체로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이러한 군대를 당할 그런 힘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에 안고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대도 최고사령관기 높이 날리며 반드시 승리를 떨쳐갈 신심에 넘쳐있다.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데 바친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

우리는 영생하는 삶의 최고영예, 최고행복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한다.

이것이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치는 신념이고 맹세이다.

우리 병사들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노래가 울린다.

장군님 사수하여 목숨바침은
전사의 제일가는 영광이여라
백승을 펼치는 혁명의 수뇌부
천만이 총폭탄되여 결사옹위하리라

본사기자 최용호

백과전서적인 로작의 위대한 생활력

리성덕

오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5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2년 5월 23일 백과전서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1~7부까지의 창작정형을 빛나게 총화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연속편을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완성하며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연속편 창작에서 거둔 성과를 분석총화하시고 이 예술영화야말로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한 정화로 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깊이있게 밝히시였으며 조선의 낯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된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그 근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히시였다.

한편의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로부터 시작하여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에서 주체적문학예술을 빛나게 총화한 나무랄데 없는 세계적인 기념비적걸작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과를 철의 논리와 뛰어난 예지로 사상리론적으로 깊이있게 정식화,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여기에 로작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가 있고 사상리론적거장으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멸의 로작에서 문학예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과 수행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은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문학과 영화, 가극과 연극, 음악과 무용, 미술과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

하여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주체의 혁명관과 민족관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 문제로부터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수령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과 인생관을 옹계 구현할데 대한 문제, 혁명적락관주의를 깊이있게 구현하는 문제, 주체의 미학관과 문예관을 작품에 잘 구현하는 문제 등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명에서 구현하여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명하고 이것들을 밀접한 통일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여야 문학예술분야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는것을 밝힌 로작의 사상이야말로 위대하고 독창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새것을 탐구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한가정처럼 굳게 결합된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옹계 반영할데 대한 문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문제, 우리 사회에서 사는 인간들의 생활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원리에 맞게 잘 형상하는 문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더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 등은 시대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살며 투쟁하는 새로운 인간들의 생활을 파고들어 자연스럽게 형상하는 문제로서 주체적인 문학예술이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로작은 내용이 새로워지는데 맞게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할데 대하여 밝히고있으며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하여 창작가, 예술인들이 옹은 창작방법과 창작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시기의 낡은 창작방법, 창작태도를 버리고 우리 식 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혁신하자면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잘 알고 지성도가 높고 사건보다도 성격이 위주로 된 작품, 인간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작품, 인물의 외면적행동보다도 내면세계가 깊이 파헤쳐진 작품, 꾸며낸것보다도 사실에 기초한 실화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로작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구체적인 실천방도들을 뚜렷이 밝히었다.

영화예술을 앞세우고 그것을 본보기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로작은 《민족과 운명》의 편속편들을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조하는 한편 다양한 주제, 다양한 양상의 영화들을 창작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혔으며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 로작에서 밝힌 주체적인 사상과 이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새로운 창작적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문학부문에 나선 중심과업이다.

《주체문학론》에는 주체문학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완벽하고도 독창적인 해명이 주어지고있는것만큼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그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무조건 실천에 구현하여 문학창작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로작은 무대예술부문에서 1990년대에 5대가극과 5대연극을 창작할데 대해서와 음악, 무용, 미술, 교예예술 부문에서 나서는 중심과업과 구체적인 실천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구현하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방도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높은 정치적자질과 창작적기량을 갖추게 하는 구체적인 방도들과 문학예술부문 당조직들의 전투적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참으로 력사적인 로작은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하고도 독창적인 해명을 준 백과전서적인 문예리론총서이며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실천으로 구현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이 불멸의 로작이 가르친 등대와도 같은 창창한 앞길이 열려져있어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지난 5년동안에만도 참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밑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이 이미 제40부의 계선을 넘어섰다.

권력의 시녀였던 흥영자의 정신적전환과정을 보여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8, 9, 10부, 조국의 강한 아들 리정모의 투쟁을 형상한 제11, 12, 13부,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음악가

윤상민의 투쟁과 생활을 보여준 제14, 15, 16부, 허정순의 극절많은 운명을 보여준 제17, 18부와 그의 속편, 귀화한 일본인녀성의 극적인 운명으로 정을 형상한 제19-24부, 로동계급의 《쇠물철학》을 깊이있게 구현한 《로동계급편》의 극적인 화폭들,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모대기며 정의의 필봉을 들고 일제와 싸웠으며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령도자를 애타게 그리며 방황한 지식인들의 다양한 운명을 보여준 《<카프>작가편》.

이 모든 작품들이 제기하고있는 문제의 심오성, 그에 대한 철학적해명, 포괄하고있는 내용과 규모의 방대성, 주제해명의 깊이와 예술적형상의 높이에 있어서 당당한 세계적수준에 오른 시대의 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되었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주제, 다양한 양상의 우수한 영화문학작품이 왕성하게 창작됨으로써 영화계에 화려한 꽃이 만발하고 대풍이 들게 되었다.

사회주의농촌체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도시 부럽지 않게 변모된 사회주의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청춘의 랑만과 행복을 마음껏 맛보게 된 우리 시대 청년들의 밝고 명랑한 생활을 웃음과 노래 속에 보여준 《도시처녀 시집와요》를 비롯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 무수하게 꽃피나는 공산주의적미풍을 감동깊게 극적으로 심오하게 전형화한 《고마운 처녀》, 한 체육인가정의 행복한 생활모습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춘들이 누리는 참된 삶의 희열과 궁지에 대하여 랑만적인 예술적화폭으로 생동하게 형상한 《청춘이여》 등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영화창작에서 높은 수준에 오른것으로 하여 로작의 위대한 생활력을 파시하였다.

력사적인 로작의 위대한 생활력은 군사물주제의 영화문학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데서도 높이 발휘되었다.

자기들이 속해있는 부대의 소속은 서로 달라도 누구나 최고사령관동지의 소속부대전사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조국에 위협이 닥쳐왔을 때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싸워나가는 인민군 지휘관들과 전사들의 위훈을 감동깊게 형상한 《소속없는 부대》, 혁명동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가장 아름다운 인간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적화폭에 담고있는 《담가소대장》, 군대에 입대할 때 굳게 다진 군인선서대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전사답게 빛나는 위훈으로 값있게 살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감동적인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준 《군인선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값있게 바친 조국실영웅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고귀한 삶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사랑도 다 바쳐 싸우는 길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예술적으로 천명한 《병사

는 모교로 돌아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의 작전적 의도와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원수들의 공격기도를 좌절시키고 승리의 길을 열어간 한 젊은 군사지휘관의 영웅적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젊은 참모장》 등은 군사물주제의 성과작들로서 주제영화의 풍성한 화원을 가꾸는데서 특색있는 열매로 빛나고있다.

이밖에도 독특한 예술적구성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한 녀학생의 영웅적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준 《그는 대학생이었다》를 비롯한 참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수많은 예술영화들이 련이어 창작되어 영화예술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의연히 앞장서나가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영화문학작가들이 영화예술은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심고리로 된다는것을 밝혀준 로작의 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창작적열정을 쏟아부은데서 이룩된 귀중한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의 위대한 생활력은 문학부문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발전에서도 뚜렷이 파시되었다.

문학은 예술의 선행관이라고 하시면서 주제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자면 문학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아로새긴 우리 작가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색을 깊이 하고 시대의 명작, 걸작들을 창작함으로써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피쳐올렸다.

혁신은 먼저 시문학부문에서, 특히 가사창작에서 일어났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하고도 구체적인 령도밑에 로작을 받아안은 그해에 벌써 《붉은 꽃을 드렸네》, 《후대들을 위하여》,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병사들아 영웅이 되자》를 비롯한 우수한 가사들, 형상성이 높고 철학성이 담보된 명가사들을 수많은 창작하여 노래로 만듦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훈을 세우고있는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의 시인들은 한편의 혁명적인 시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을 받들고 혁명성과 전투성, 서정성과 철학성이 훌륭히 담보된 명가사들을 양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며 널리 불리워지는 시대의 명곡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였다.

《백두의 말발굽소리》, 《아침도 좋아 저녁도 좋아》, 《그이의 한생》, 《매혹》, 《그이의 하루》,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황금을 뿌리여도 청춘은 못사》, 《친근한 그이 노래부르면》, 《전승절 경사로세》, 《우리를 당할자 없다네》,

《병사와 한순간》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1993년의 우리 시문단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명가사의 창작은 다음해에도 더욱 왕성해져서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신념과 의지의 찬가》를 비롯하여 《사랑의 계절》, 《우리의 **김정일**동지》, 《너를 보며 생각하네》,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 《병사들은 대답했네》와 같은 력작들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독창적이고 심오한 철학세계를 파헤치던 우리의 가사문학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와 같은 국보적인 작품들을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상의 수준에 오른 시대의 명가사들을 창작하도록 미숙한 초고들을 자자구구 다듬으시여 완성하여주시고도 그 공로를 우리 시인들의것으로 만들어주시였으며 하늘땅의 크기에도 비길수 없는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이에 고무된 우리 시인들은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3대장군의 총》, 《정일봉의 우뢰소리》,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장군님은 전조선에 계시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와 같이 시대의 요구와 지향이 담긴 명가사들을 련이어 써내고있다.

시문학의 창작적양양은 서정시 《로병들의 노래》, 《승리의 명절》, 《우리의 세월》, 《백두의 아들》, 《6월은 푸르다》, 《영원히 빛나시라》, 《12월의 눈》, 《꿈은 멀리에 있지 않았다》, 산문시 《인민의 옷감》, 담시 《푸른 강에서》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의 창작과 장시들인 《위대한 령도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빛나라 불멸의 위업이여》를 통해서도 확증되었지만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우리 설날》의 특출한 성과로 하여 더욱 훌륭히 담보되었다.

특히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는 우리 시문학이 도달한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준것으로서 주체의 문학사를 찬란히 빛내일수 있게 하였다.

문학의 창작적양양은 소설문학을 비롯한 산문분야에서도 이룩되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창건 5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에 당선된 작품들을 레증하는것만으로 충분하리라고 본다.

전국문학축전에서는 단편소설들인 《상봉》과 《불멸의 영상》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 《영원의 5년》, 《막내아들》, 《아버지네 집》, 《아버이께서 보신다》, 실화문학작품들인 《행복이

기다리는곳으로》, 《바다와 함께》, 《로병의 발걸음》, 《다시 쓴 중군기》, 《운행길에서 40년》, 운문실화 《전사들의 상봉》과 중편소설 《뜨락또르운전수일가》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장편소설들인 총서 《불멸의 향도》중의 《동해천리》와 《푸른 하늘》, 《력사의 새벽길》(하), 《붉은 흙》, 《기관사》, 《북부철길》, 《백금산》 등이 입선의 영예를 지냈다.

당선된 작품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밝히신 사상과 의도에 따라 소설문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우리 소설가들의 창작적사색과 탐구가 어려있는 귀중한 결실들로서 우리 소설문학의 발전면모를 충분히 보여주고있다고 할수 있다.

전국문학축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문학작품이 당선되었는데 중편소설 《봄열매》와 중편실화 《애기별》, 단편소설 《나는 하얀토끼》와 《꽃편지》, 동화들인 《고향의 버드나무》, 《아지랑이》, 《진주늪의 처녀시인》 그리고 서정서사시 《엄마마중》, 유년동요조 《우리우리 탁아소, 우리 유치원》, 동요묶음 《장수힘 솟았다》, 련시 《만수대에 먼저 올라요》 등이다.

이 작품들은 아동문학을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한것으로서 우리 아동문학의 주체적인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우리의 극작가들은 극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하였다.

희곡작가들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창작으로 제5차 전국연극축전과 제6차 전국연극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제5차 전국연극축전에서는 우수한 단막희곡들과 장중막희곡들이 무대에 올라 대성황을 이루었다.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을 말아키우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단막극 《우리 가정》, 부양할 자식이 없는 영예군인의 친자식이 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공산주의적미거를 극적으로 전형화한 단막극 《해당화》와 《한가정》, 비록 지난날은 잘못 살았지만 자신을 뉘우치고 소문없이 부모없는 아이들 열세명을 데려다 키우는 한 녀성의 개준과 공산주의적미거를 극성있게 펼쳐보인 단막극 《열세번째》, 제대군인이 자기가 영예군인이라는것을 숨기고 농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있는 처녀를 찾아내어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형상한 단막극 《이렇게 사랑합시다》, 돌격대를 회피하였던 한 청년이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개조하기 위하여 지원초소를 바꾸어 가면서 남모르게 위훈을 세우는 이야기를 담은 《밤하늘에 울리는 나팔소리》, 남조선출신의 한 녀성과과학자를 찾아온 남조선의 친아버지가 그 딸에게 기울인 아버지수령님의

은정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것을 폐부로 체험하면서 자신이 친아버지라는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다가 엄연한 현실앞에서 감격하여 자신을 로출시키고 딸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는 예술적화폭을 펼친 단막극 《우리 아버지》 등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주체연극예술의 참신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제6차 전국연극축전에서도 역시 시대생활의 본질적측면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우리의 희곡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극작품의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군대에 입대하려는 세 처녀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 풍모를 생기발랄한 형상으로 보여준 단막극 《세 처녀의 약속》, 첫 해산을 하게 되는 영예군인녀성의 안전을 위하여 예견된 군사훈련을 뒤로 미루고 태어나는 아기의 고고성이 울릴 때 해안포의 일제사격으로 축복해줄것을 명령하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특색있게 형상한 단막극 《축복》, 북과 남의 판이한 세계를 체험한 남조선의 너기자가 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령도자의 위대성을 법정에서 소리높이 증언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부각한 《너기자의 증언》,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던 그 슬픔속에서 위험에 처한 태어나는 세 쌍둥이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군용직승기를 산간벽지에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력사를 펼쳐보인 《우리 아버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계급과 농민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배려를 극적형상으로 조명한 단막극 《눈보라치는 밤》과 《포성은 벌써 울렸다》, 그밖의 작품들인 단막극 《고귀한 충정》과 《민음》, 《사랑의 의리》, 중막극 《나의 운명》 등 축전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연극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려는 희곡작가들의 지향과 노력이 엿보이는것으로서 시대정신에 민감하고 시대생활의 주류를 반영하고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것이였다.

희곡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진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은 특히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와 《소원》의 창작적성과를 두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열망이고 소원이던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창조한 여기에 우리 희곡문학의 창작과 연극의 창조에서 높은 경지를 개척하였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고 긍지와 자랑이 있다.

로작이 발표된후 텔레비존문학의 창작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탄부》, 《환희》, 《백금산》을 비롯한 수많은 우수한 장편소설들이 텔레비존련속소설 또는

텔레비존런속극으로 각색되어 시청자들의 절찬속에 여러차례 방영되고있다.

또한 《로병의 유산》, 《좌우명》을 비롯한 다부작으로 창작된 텔레비존극문학작품들이 주체문학의 화원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 텔레비존극문학은 우리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그 어느 문학형태보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종목으로 되었으며 따라서 대중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강유력한 형상수단으로 되었다.

로작이 발표된후 지난 5년동안 우리의 주체문학이 모든 형태들에서 이렇듯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그 기저에는 로작의 리론실천적진수들이 믿음직하게 안받침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로작이 밝혀준 지침대로 그 리론실천적진수들을 창작에서

철저히 구현할 때 문학예술혁명에서 계속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수 있고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주체문학의 대화원에 알찬 열매들인 시대의 명작, 걸작들을 보낼수 있고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보다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의 대 구절마다에는 혁명적 문학예술을 전진시키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게 하는 불변의 진리와 구체적인 방법론과 묘술이 어리어있다.

모든 작가들은 로작의 진수들을 더 깊이 체득하고 창작에 구현하여 졸작이나 타작이 없이 명실공히 시대의 명작, 걸작을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며 창작하였다는 긍지와 자랑을 소리높이 구가하여야 할것이다.

5월은 탄다

리연희

너희들은 그날
죽지 않았다
야수들의 대검에 배를 갈리우며
항쟁의 거리에 피를 뿌리며

눈을 감지 않았다
푸르른 5월의 하늘아래
열풍으로 달아오른 이 땅에
붉은태아로 던져진
불꽃으로 뿌러진 너희들은

땅에 묻을수도 없는
넋으로
속망으로
어느덧 열일곱해
너희들은 자랐다
살아있는 가슴들에 펄펄 불덩이로
이글거리는 용암으로

너희들은 자랐다
어머니의 달콤한 젖물이 아닌
분노로
증오로
그 분노로 키를 솟구쳐
그 증오로 가슴 태우며

물어보자 오늘은
오늘은 너희들의 나이 열일곱살
청춘, 청춘이 아니더냐
물어보자 너희들의 고향 광주
이 나라 활화산의 도시
청춘들의 도시가 아니더냐

터져오르라
광주의 열일곱살들아
5월의 대지우에
불줄기로 솟구쳐오르라
해불이 되어 해불이 되어
불의 노도를 펼치라

이해에도
5월은 뜨겁다
외세의 칼에 맞아 허리를 찢어준 이 땅엔
이해에도 5월의 새 생명들
불덩이 되어 태어난다

광주의 열일곱살들아
이해에도 뜨겁다
저 하늘의 해덩이가 아닌
이 땅의 불덩이로
이해에도
5월은 탄다!

번영하는 대지

—백두삼천리벌을 찾아서—

최성진

푸른 산, 천연수림은 가도가도 끝이 없을상싶더니 유곡을 지나면서부터 차츰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다. 숲속의 아담한 주택지구들이 나타나고 네모방정한 포전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였다.

백두고원의 기온이 이런 철이면 아침저녁과 낮 차이가 심하다. 아침저녁이면 선선한 기온이 돌지만 한낮때면 오히려 남쪽지방보다도 더 무더운 감이 든다. 그래도 돌아보면 만고풍상을 겪어온 백두산이 대공에 허연 백발을 날리며 위엄있게 솟아있다. 간밤에도 백두령봉에는 눈이 내린 것이었다. 그러고보면 여기 백두산일대에는 사계절이 모두 함께 있는셈이었다.

여기는 어디가나 항일혁명선렬들의 발자취가 새겨져있다. 방금 떠나온 삼지연에도 그리고 무봉을 지나 지금 우리가 가고있는 대흥단에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바친 려사들의 붉은피가 스며 있는것이다. 조국의 기슭을 적시며 흘러가는 두만강의 하얀 물줄기도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저 강을 넘나들며 해방성전에 피흘린 려사들은 정녕 그 일마였으랴. 저 진대나무 널린 기슭에도 그날의 사연 깃들어있는것이냐 아닌지?

문득 혁명시인 조기천의 시구절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베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

생각은 깊어만가는데 빠스는 쉬임없이 달리였다.

멀리 남쪽에 솟아있는 관모봉이 보이였다.

앞은 갈수록 트이였다. 대로는산이며 소로는산이며 하는 멀고 가까운곳에 떠엄떠엄 솟아있는 산봉우리들만 아니면 방향조차 가늠 못할 일망무제의 땅이었다. 하지만 길옆으로는 여전히 천고의 수림이었다. 철늦은 철쭉꽃이 갈수록 많아졌다. 노래에 철쭉꽃이 붉게 퍼서 홍단벌이나고 했기에 예가 바로 대흥단인게로구나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빠스는 대흥단전적지에 들어서고있었다.

대흥단전적지에서 시오리쯤 더 가면 신사동을 다. 그곳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목재소로동자들을 찾으시여 정치사업을 벌리신 유서깊은 고장이였다.

바로 이 신사동을 지나면 홍암땅인데 붉은바위가 있다고 하여 홍암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내가 기행로정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고장이였다. 대흥단군종합농장에서도 손꼽히는 홍암분장이 여기에 자리잡고있는것이다.

대흥단군종합농장이라면 홍암분장외에도 신흥분장, 서두분장, 신덕분장, 삼장분장, 농사분장, 개척분장, 삼봉분장 등 여러 분장들이 있는데 홍암분장은 규모나 장비수준에 있어서 력량이 대단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네차례나 찾아주시였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 자욱이 새겨져있는 땅이다. 평양에서 멀고먼 조국땅 한끝에까지 위인들의 자욱이 새겨져있다고 생각하니 이 땅을 찾는 나의 가슴은 뜨거웠다.

홍암에 들어서면서 나는 걸기로 했다. 소재지까지는 아직 시오리쯤 가야 할것이지만 벌써부터 이 땅을 밟아보고싶은것이였다.

길은 북동방향으로 아득히 뻗어갔다. 가로수의 서늘한 그늘에 묻힌 황토길이었다. 길옆으로는 포전이였다. 밀보리와 방금 싹터오른 감자가 한창 자라고있었다. 네모방정한 대규모의 포전들은 레외없이 무성한 방풍림에 둘러싸여있었다. 그것이 여기 고지대의 새로운 풍경이였다.

방풍림은 이곳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활적인것이였다. 거대한 자연방풍림에 둘러싸여 포전들은 별로 아늑해보이는데 실제로 이 방풍림은 북방에 때없이 터지군하는 사나운 바람으로부터 농작물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였다. 그리하여 이곳은 가로수들조차도 방풍림으로 되어 있는것이였다.

나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사동천의 맑은 물이 주절거리며 흘러가는 길아래로 내려갔다. 찬물이 시원히 세수를 하고싶어서였다. 그곳은 포전의 한쪽 모서리가 범람하는 강물에 사태쳐내린곳이였다. 며칠전에 무너진것이여서 미처 손질을 못한듯싶었다.

나는 어른의 키 한길쯤 되여보이는 자름면을 유심히 관찰했다. 땅의 오랜 력사가 자름면에 돌기져있었다. 맨 아래에는 보드라운 부석층이고 그 우로는 웅근 한길이나 되게 시꺼먼 부석토가 깔리였다. 여기 땅은 거름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던 말이 리해되였다. 땅자체가 거름으로 되여

있지 않는가!

용암의 거대한 분출이 조종의 산 백두의 탄생을 알리던 그때로부터 수수백만년의 오랜 세월! 인적없는 이 땅우에는 숲이 자라고 못집승들이 때를 지어 다녔다. 숲은 자라 진대가 되어 대지를 뒤덮고 그우에는 다시 새 세대의 숲이 자라고... 자연의 오랜 순화과정에 루적되어온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부식층이 대지를 이루었다. 그러니 이 땅은 얼마나 보배로운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된다.

아직은 이 나라 강토가 일제의 군화밑에 짓밟혀 신음하던 그때 항일대전의 기치를 드시고 조국으로 진군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 왜놈들을 모두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하면 이 넓은 대지를 모두 개간하여 황금의 옥답으로 전변시키라고 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고장은 왜놈들이 조선의 산림을 판도질해갈 목적밑에 설립한 복선제재소가 자리잡고 목재를 실어나르는 가스링차의 동음만이 처서군들의 가슴속에 처량한 메아리로 울리었다. 그런데 항일의 군복차림으로 오신 수령님께서 전변의 오늘을 내다보신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기간에 수만정보의 땅이 새로 개간되었습
니다. 함경북도 5호농장에서만 하여도 한개 군의 경지면적에 맞먹는 3,600정보의 땅을 새로 개간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땅에 전쟁의 불길이 한창 타오르던 그때에 이곳 고원의 대지개간을 위한 력량을 무어주시고 위대한 자연개조의 첫 폭음을 울리게 해주시었다.

전선에서 싸우던 젊은이들이 군복차림 그대로 달려왔고 기계수단들이 동음을 터치었다. 오랜 세월 잠자던 대지는 전변의 새 력사를 새기기 시작했다. 천고의 수림을 이루었던 아름다리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지고 기름진 대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날의 광경을 그려보며 지금은 파아랗고 연한 감자잎으로 일매지게 푸른 포전들을 바라보았다.

꿀안은 신사동을 벗어나면서부터 다시금 넓어졌다. 멀리 산기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였다. 파종기를 단 트랙토르를 앞세우고 일하는걸 보니 메밀파종을 하는 모양이였다. 감자와 밀, 보리는 한창 자라고 메밀이 파종기였다.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모두들 일손에 불이 달렸다.

길가의 포전에는 표말이 서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써여있었다.

홍암분장청년작업반 80포

면적, 9정보

곡종별, 감자

품종면. X X

씨불임날자, 5월 12일

평당주수, 28주

운전수, 양명주

파종수, 송승남, 윤용식

그런 표말은 매 포전마다 꽃혀있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깐지고 알심있게 해나가는 청년작업반원들의 일본새가 알려였다.

꿀안을 따라 심리쯤 더 내려가니 단층문화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소재지마을이 나타났다.

나는 분장사무실에 들러 분장일군인 엄병호동무를 만났다. 그는 갓 오십줄을 넘긴 중년이였다.

보통키에 날파람 있어보이는 그는 어느 모로 보든지 들에서 일하는 푸수한 농군을 만난듯한 인상이였다. 70년대말에 제대군인들이 오면서 그도 여기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았다. 그때 온 세대가 분장의 증추를 이루고있다는 세대도 많이 바뀐셈이다. 전쟁때 이곳에 와서 개척의 보습날을 박았던 사람들을 인제는 벌써 만나보기 힘들다.

엄병호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앞으로 나를 이끌었다.

분장사무실앞에 정중히 세운 현지교시판주변을 마침 그곳 인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깨끗이 정성사업을 하고있었다. 백두삼천리별의 미래에 살게 될 세대였다. 이 땅에 깃든 수령님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며 미래의 새 주인들은 자라고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79년 7월 5일 이고장을 현지지도하시던 그때로부터 1992년 8월 16일까지 네차례나 찾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이 력사의 고장을 찾아 오실 때마다 대흥단군종합농장에서는 감자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이고장 인민들의 생활을 따듯이 념려해주시고 평양으로 올라가시여서는 텔레비죤수상기며 령장고도 집집에 차례지도록 보내주시었다.

해방전 가난에 지친 처서군들의 한숨소리뿐이던 이고장에 생활이 꽃피었다.

나라에서는 대흥단지구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식량도 그전에는 다른데서 날라다먹던 고장이 지금은 자급자족하고도 남아 다른 고장으로 보내주게끔 되였다. 이 땅은 전변의 시대를 맞이한것이였다.

나는 이 전변의 대지를 모두 밟아보고싶었다. 그리하여 분장소재지를 나서는데 갑자기 백두산 쪽에서 소낙비가 몰려왔다. 소나기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상쾌하게 했다. 보다 무성한 활력의 계절을 불러오는 소나기이기때문이라.

대지는 삼시에 온통 비발속에 잠겨들었다.

소나기가 밀려가자 비물에 젖은 꺼먼 대지가 드러났다. 모든것이 선명해졌다. 숲은 더 푸르러 보이고 생기가 살아난 밀보리잎들이 산들바람에 날린다.

길은 동일한 구름을 타고 넘어갔다. 멀리 앞에 하얀 정각이 보인다. 가까이의 푸른 이깔숲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것이 보이였다. 이상하게도 그 흰 연기가 마음속에 상쾌한 기분을 자아냈다. 거기엔 이 자연속에 어울리는 생활이 있을듯한 예감조차 들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도 하다. 숲속의 연기를 보고서도 친근감을 느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정각은 구름의 정점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9년 7월 5일부터 1992년 8월 16일까지(4차례) 다녀가신 홍암정각》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정각옆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비가 서있었다. 안주평야지대를 열두삼천리 벌이라고 부른다면 대홍단군종합농장벌은 백두삼천리벌이라고 부를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가 거대한 화강암에 새겨져있었다.

나는 거기서 정각관리원 황명옥을 만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교장을 마지막으로 찾아주셨던 1992년 8월 16일 황명옥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주시였다.

처녀는 그날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가에 눈물을 담았다.

처녀의 목소리는 억양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친근감을 자아냈다. 북방특유의 말씨였다. 처녀는 정각악의 포전을 가리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포전이라고 했다.

포전에는 《홍암분장 제1작업반 2분조》라는 표말이 서있었다. 면적은 23.4정보이다. 방풍림에 둘러싸인 구획안에는 하나의 도시라도 들어앉힐 것 같았다.

이런 대규모의 포전에서 손로동으로 농사를 짓는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여기서 손로동은 찾아볼수 없었다. 파종으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은 기계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그러한 이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농장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왔던 독일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도 기계로 농사짓는 드넓은 대지를 감동에 젖어 바라보다가 백두산밑에 이런 대농장이 있는줄은 몰랐다고, 세상에 더없는 리상촌이라고 수령님께 말씀올렸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각관리원처녀의 눈에는 맑은것이 가랑가랑 고이였다. 나는 처녀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이 땅에 모시고 그이의 품에 안겨 기념사진까지 찍은 처녀가 아닌가! 번영하는 대지, 작황좋은 이 벌에 수령님

을 다시 모실수 없는 애절한 마음! 그것은 비단정각관리원처녀의 심정만이 아니라. 이 땅에 년년이 풍년날알을 가꿔가는 사람들모두의 마음 이리라.

나는 정각로대에 올라 앞을 바라보았다. 드넓은 포전가득 애어린 감자잎이 설레인다. 연한 푸른 빛의 바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벌은 일망무제하다. 대지의 끝은 정녕 어디인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까지 포전들은 뻗어갔다. 기계로 농사짓는 땅, 풍요한 대지! 가슴이 느닷없이 뭉클해온다. 이 모든것이 장장 80성상 파란만장을 겪으시며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께서 넘겨주신 고귀한 유산이 아닌가!

우리앞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이 기다리고있는가! 우리 인민은 얼마나 복받은 인민인가! 눈썹리 아득한 풍요한 대지를 바라볼수록 생각은 끝없이 뻗어만갔다.

나는 정각을 나섰다. 이 땅의 근로하는 주인공들을 더 만나보고싶었다. 마침 나는 가까이에서 일하다가 나오는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정각포전을 관리하는 작업반장 윤기준이였다. 그는 첫대면부터 손님을 허물없이 대했다. 열정적이고 일손이 드세보였다.

정각포전에서 작년에 소출이 얼마 났는가고 물었더니 감자 25톤을 냈다고 했다. 정보당 감자 25톤이면 최고 수확년도와 같다. 보기도문 풍년인 셈이였다.

올해는 몇톤을 바라보는가고 물었더니 빙긋이 웃기만 했다. 한참후에야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렸지요.》라는것이다. 자랑을 앞세울줄 모르는 소박한 말이었다. 소박한 말이지만 그 말속에는 더 큰 풍년을 위해 일을 하고 또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포전들을 돌아보는 사이에 점심참이 되었다. 내가 그만하고 분장합숙으로 찾아갈 소리를 했더니 그는 례의 그 사람좋은 미소를 지으며 합숙에 꼭 가야만 하겠는가고 하면서 나의 손을 잡아 무작정 이끌었다. 그들의 점심밥팩을 축내주고싶지는 않았지만 별수없이 따라갔다.

내가 찾아간곳은 조금전에 보았던 그 연기나는 숲속이였다. 커다란 물황철나무가 서있는 개울가의 평퍼짐한 공지에는 김이 문문 나는 삶은 감자를 한버치 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있었다. 방금 포전에서 일하다가 나온 차림의 젊은 남녀들은 윤기준의 작업반원들이였다.

생활은 얼마나 량만적인가! 나는 여기에 들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숲속에 펼쳐놓은 생활의 진미를 어디 가서 또 맛볼수 있겠는가! 아닌게아니라 속살이 툭툭 터져나온 감자를 보니 구미도 동했다.

작업반장이 나를 소개하자 모두들 반가와하며 저마다 와서 앉으란다. 인정도 통하고 마음도 하

나같은 그네들과 한자리에 앉으니 어느새 나도
그들과 한식술이 된것 같은 기분이였다.

얼굴이 복실복실하게 생긴 아름다운 처녀가 양
푼에 감자를 따로 담아놓으며 《감자맛 보시라
요.》했다. 인심이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나는 《감자맛》을 보는 몇분사이에도 사람들과
친숙해져서 좋은 이야기거리를 많이 들을수 있
었다.

식사가 끝나자 누군가 나무그늘아래에서 손풍

금을 가져왔다. 오락회가 벌어졌다.

노래는 대지로 울려갔다. 노래는 자연에 어울
리였다. 이 아름답고 풍요한 땅에서 노래가 없다
면 무슨 멋이라.

나는 그들의 랑만에 찬 노래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였다. 더 아름다와질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의 오늘을 위해 피흘리고 간 선렬들
에 대하여서도 생각했다.

나는 대흥단사람 외 1편

엄애란

몇마디 통성 없이도
누구나 선뜻 알아본다
나를 보면 대흥단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말하고싶다
투사들이 맞은 백두산의 눈바람
그 눈바람을 우리도 맞으면서
《유격전》을 벌려 《적진지》를 돌파하던
어제날의 그 《꼬마병사》시절을

그리고 또 말하고싶다
세월의 눈비에도 녹슬지 않은
소중한 탄피를 주어들고
총알처럼 용맹하자
손가락을 걸어 맹세하던 그 저녁을

어이 잊으랴
항일의 녀대원들 머리를 감던
흥단수의 맑은 물을 은보라처럼 뿌리며
조국에 대한 사랑 새겨보던 시구절을
두만강 흐름처럼 즐기치게 살자고
날마다 불타던 눈빛

이렇게 자랐어라

혁명전적지 이 땅에서
하여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폭풍같이 내닫는 성격을 지녔고
시련의 고비 앞을 막아서면
제 힘으로 뚫고가는 기질을 가졌나니

눈보라를 헤쳐 봄날을 안아온
꽃나이를 바쳐 조국을 안아온
투사들의 혁명정신 이어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창조하지 못했으리라
자력갱생모범군의 빛나는 오늘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꽃피는 행복을

투사들의 붉은 피 우리 심장에 뛰는 한
《고난의 행군》길 열번 다시 가도
우리는 주저없이 헤쳐가리
투사들처럼 곱힘없는 용맹을 안고
투사들처럼 뜨거운 사랑을 안고 살아

누구나 첫눈에 알아본다
우리의 걸음새
우리의 일본새만 봐도
대흥단사람이라고

내 고향의 흰 구름

저 하늘의 흰 구름이 여기 모두 내리였다
내 고향의 염소 양떼 구름처럼 흘러가네
홍암골에 뭉실뭉실 신사동에 뭉실뭉실
풀과 고기 바꾸라신 그 은정이 꽃피나네

저 하늘의 흰 구름은 소리없이 사라져도
내 고향의 흰 구름은 노래를 부르네

사양공처녀의 풀피리에 맞추어
소흥단에 매-매 대흥단에 매-매

영광의 땅 내 고향의 풍치를 돌려주며
날마다 늘어나는 행복의 꽃구름
높고낮은 산마다 행복을 꽃피우며
나는야 노래하네 장군님 사랑을

내 고향 대흥단 외 1 편

박정애

어디서 그 붉은 빛 물들었기에
산과 들이 온통 한 빛으로 단장했느냐
멋이로구나
발동소리 높이 풍년씨앗 뿌려가는
아침노을 곱게 비낀 백두삼천리벌

봄산에 고운
철쭉꽃이 피워준거나
방풍림 둘러선 포전마다
꿈부른 처녀들의 그 붉은 랑불
노을의 그 붉은 손길이 그려준거나
밀종자 등에 업고 분주히 오가는
《풍년》호의 기세찬 저 행렬

내 삶이 뿌리내린 대흥단
정든 고향의 숨결을 안고
장난 세찬 아이마냥 내달리는
시내몰의 그 이름만 불러봐도
마음이 붉어지는 흥단수

고향아
의미깊은 붉은 이름아
그 옛날 류량의 닳을 내린 일생들
북방의 눈보라에 묻혀 몸부림치던곳

조국진군의 못잇을 그날
우리 수령님 들고오신 붉은기의 나뭇김이
산에도 들에도 비껴오는 고장아

한줌의 흙 쥐여봐도
투사들의 고귀한 혈조가 숨배있고
한줄기 바람결 들이켜도
그날의 숨결로 살아있는 땅

아 그 냇으로 숨쉬고 그 뜻으로 살아
자연만이 아닌 사람도 붉은 대흥단
대오앞에 날리는 기발처럼
《고난의 행군》 승리를 위해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력사의 땅아!

자랑이여라
네 품에서 태줄을 끊은것이
이 나라에 이름난 고장은 많아도
내 너를 사랑하노라
그 어떤 광풍에도 그 빛 바래지 않는
영원한 그 뜻 이름으로 새겨안은
내 고향 대흥단을!

봄삭

파릇이 움터난 밀보리들
귀여워 쓸어보고 또 만져봄은
너를 기다린 반가움뿐인가
무서리 내린 봄들판에 날창인양 푸른 잎새 번쩍
들고

심술궂은 북방의 거센 바람속에서도
곳곳이 서있는 장한 그 모습
백두삼천리벌 사람들의 억세인 그 기개
잎새마다 어려와서 어려와서

가사

우리는 열일곱살

박천걸

움터난 봄씨앗 해빛을 받듯
청춘을 맞이한 꿈많은 나이
생활의 첫걸음 힘차게 떼는
우리는 열일곱살 청춘의 첫나이
설레는 이 땅도 우리를 부르네
저 넓은 하늘도 희망을 싣네
영웅의 푸른 꿈 가슴에 불타는
우리는 열일곱살 청춘의 첫나이

오늘에 새기는 첫자욱부터
값높은 위훈을 새겨가리라
보답의 나이로 한생이 이어진
우리는 열일곱살 청춘의 첫나이

아 열일곱살 열일곱살
장군님 품에 자란 우리는 열일곱살

나리꽃

송해경

6월초의 어느날, 나는 우리 탄광에 동발목을 보장해주고있는 양덕림산작업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동발목을 좀더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곳 림산작업소에서는 우리 탄광에 주기로 되어있는 동발목을 이미 다 넘겨주었다. 그러나 탄광이 스스로 높이 세운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자면 많은 동발목이 추가로 더 요구되었던것이다.

탄광자재과로부터 양덕에 갔다오라는 과업을 받았을 때부터 나는 마음이 별래졌었는데 정작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어딘가 낯익어보이는 산밭을 바라보느라니 이제는 삭막해졌던 추억이라는 큰 나무의 제일 작은 잎사귀까지도 모두 생생히 되새겨지면서 나는 쓸쓸하고 침울한 애수에 잠겼다. 나는 바로 여기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녀동생을 잃었던것이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였던 1950년 늦가을의 일이었다. ...

그때 나는 아직 어린애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기 얼마전에 나에게서는 귀여운 녀동생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을에서도 맨 나중애야 후퇴의 길에 올랐다. 그러다나니 우리는 큰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산밭을 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행은 셋이었다. 아직 젊고 아름다웠으나 손과 발이 몹시 부어올랐던 어머니와 아직은 이름도 없던 갓난 애기 그리고 물질투성이의 발을 질질 끌며 어머니의 잔등에 업혀가는 애기를 부러워했던 철없는 나.

때로는 굶고 밤에는 한지에서 떨면서도 우리는 북을 향하여 아호비령산줄기의 험준한 산밭들을 이악스럽게 툭어나갔다.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여지없이 불타버린 산등성이들을 타고넘을 때마다 산림설계원이었던 어머니는 더없이 가슴아파했으며 이 땅의 아름다운 산천에 그러한 참화를 들썩은 원썩들을 저주하곤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월참마다 산의 지세와 토양조건을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품고다니는 수첩에 전후에 푸르러질 숲의 설계도를 그려넣곤 했다.

철부지였던 나도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여기저기 뛰여다니면서 흙을 파오곤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후퇴길은 한없이 더디여졌다.

림산작업소 소장은 예순이 가까왔지만 아직도 근력이 좋고 로세대다운 풍채가 있는 점잖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찾아오게 된 사연을

듣더니 《탄부들의 심정이자 우리 림산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우리에게 아껴오던 좋은 림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즉석에서 동의해나섰다.

《그러니 근심말고 돌아가 기다려도 됩니다...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래일 떠나십시오. 여기서 멀지 않은곳에 우리 합숙이 있습니다.》

일이 잘되었다는 안도감때문에 한결 밝아진 마음으로 소장실을 나선 나는 그의 말대로 합숙을 찾아가면서도 래일 이고장을 떠나갈 생각은 없었다. 아직도 이고장에 들어섰을 때의 찌르르한 첫 감정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은 나는 웬일인지 며칠이라도 이곳에서 보내고싶었으며 한편으로는 다문 몇대라도 내 손으로 나무를 찍어 동발목에 보태고싶은 욕망이 부쩍 동하기도 했던것이다.

소장이 자세히 가리켜준대로 나는 길쭉구며 토끼풀이며 잔디가 웅단처럼 깔린 오솔길을 따라 한참 걸었다. 한줄기의 맑은 물줄기가 내 앞의 오솔길을 가로질러 새파란 풀밭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곳, 오솔길에서 안쪽으로 얼마쯤 떨어진곳에 검은 갈색을 띤 그리 크지 않은 바위가 누워있었다. 그것은 한마리의 배부른 새끼곰같았는데 가지런히 모두어 앞쪽으로 쪽 편것 같은 곰의 발통을 적시며 작은 샘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었다.

나는 잠시 그 바위우에 걸터앉아 샘물속에 잠긴 《새끼곰》의 발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퐁퐁 솟아오르는 정갈한 샘물우에서 나무잎 하나가 떠돌고있었다. 나는 그 나무잎을 집어 들고 손끝으로 뱅뱅 돌리며 어딘가 먼곳을 응시했다.

《엄마, 이 바위 곰갈지? 물에 잠근 곰의 발이 시릴거야.》

귀익은 소년의 목소리가 나의 귀전에 쟁쟁히 울려왔다.

그것은 어릴적 나의 목소리였다.

그때 우리는 여기 이 샘터에서 잠시 쉬여갔다. 내가 물을 먹으려고 하자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찬물에 손을 잠그고 물우에 떠있는 락엽을 말끔히 건져주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은 그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표정이였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를 나는 펴 후에야 알게 되었다.

얼마후에 나는 말잔등같이 늘씬한 산등에 올라섰다. 불타던 해는 이미 쏸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여 내려다보이는 우묵한 골짜기바닥에는 서늘한 그늘이 깔려있었다. 왼쪽으로 느슨히 흘러내린 평퍼짐한 비탈쪽에는 들성들성한 소나무사이로 한정보는 실히 뿜직한 큰 도라지밭이 펼쳐져

있었다. 끈은 줄기가 퍼그나 자라올라 이제 얼마 안있어 이랑을 푸르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 도라지밭에는 아직도 저녁해빛의 마지막잔광이 한쪽 모서리에서 뒹굴고있었는데 그 빛 가까이에서는 몸이 작고 수건뭉으로 흘러내린 희숙한 머리카락이 줄아든 귀밑에서 설렁거리는 늙은 녀인이 김을 매고있었다.

《어머니, 여기서 합숙이 먼가요?》

나는 녀인의 뒤통에서 큰소리로 길을 물었다. 이미 내가 다가오는것을 멀리서부터 알고있었던 듯싶은 녀인은 다만 자그마한 팔을 뻗쳐 반대쪽 비탈쪽을 가리키면서 젊은 시절의 생기를 잃어버린 흐트러진 굵직한 목소리로 《다 왔다고.》 하고 친절히 대답하고는 다시 김을 잡아나갔다. 보기와는 달리 녀인의 숨씨는 걸싸고 재빨랐다. 이미 그 녀인이 타고 지나온 이랑들은 아름다운 처녀의 머리에 빗질을 한듯 윤이 돌았다.

나는 도라지밭이 너무도 소담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 밭머리에 걸터앉으며 나는 말했다.

《도라지가 참 멋있구만요. 그런데 늙으신분이 왜 혼자서 김을 매십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지 않구요.》

그러나 녀인은 일손을 멈추지 않은채로 슬근슬근 말을 받았다.

《이건 그저 내가 하고싶어 하는 일이라요. 처음엔 손바닥만 했지요. 그런걸 해마다 좀씩 늘꾸었더니 이제 이렇게 다루기 힘들게 커졌다고.》

나는 더 묻지 않아도 도라지밭에 그 녀인이 흘린 하얀 땀방울이 남모르게 스며있음을 알수 있었다. 한데 이 많은걸 어디에 다 쓰려는걸까?

《여기에도 제 집을 떠나와 일하는 귀한 합숙생 젊은이들이 많아요. 모두 끝끝한 벌목공들이라고.》

녀인의 심상한듯한 어조속에는 자기가 가꾸는 도라지밭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이 엿보였다.

《합숙예요!...》

나는 마디가 불거지고 풀물이 들어 갈색얼룩이진 극성스럽게 흙을 매만지는 녀인의 거칠어진 두손에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한데 거긴 어떻게 오시는 손님이지요?》

녀인이 그제서야 일손을 놓고 한숨 쉬려는듯 내쪽으로 돌아앉았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찌르는 해월에 작은 눈을 아예 감아버릴듯이 쪼꼬리면서 물었다.

검질긴 산촌의 마지막 지는 해의 역광이 녀인의 한쪽 볼을 열광적으로 비치고있었다. 탄력을 잃어버린 안장코가 다른쪽 볼에 진한 그림자를 그리며 두드러져보였다.

그때 나는 자기의 심장이 뛰는 쿵쿵소리밖에는 더 들을수가 없었다. 주위는 갑자기 깊은 우물속처럼 고요해졌다. 금방까지 들었던 시원스러운 산골물소리며 누구를 놀리는듯한 뻐꾸기의 울음

소리며 숲을 흔드는 가벼운 바람결소리조차도 그 순간 나의 심혼속에서 아득히 먼곳에 쫓아들고 말았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서 줄곧 하나의 칼끝처럼 날카로운 생각에 시달리고있었다.

(아, 저 안장코! 그때 그 녀자가 아닌가?... 옳다! 그 녀자다! 나는 저 녀자를 알고있다!... 아니... 정말 저 로파가 그 녀자란 말인가?...)

나는 신경을 도사리고 김매는 녀인의 다 시든 얼굴을 났을 잃고 바라보면서 전쟁시기의 젊었던 모습을 되살려내려고 부질없이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일이었다. 흘러간 수십여년의 세월은 나의 희미한 어린 시절의 기억만으로 한 인간의 전모를 되살려내기에는 너무나도 길었다. 다만 한점 그 안장코만이 나에게 가슴이 선통하도록 잊을수 없는 옛 추억을 되살려주는것이였다.

... 《새끼곰》 바위 샘터를 지나 얼마 안가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잡자리를 마련해야겠다면서 락업을 굶어 모으고있던 어머니가 별안간 나직이 비명을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모닥불에 삭정이를 꺾어넣고 있다가 놀라서 달려간 나는 락업이 고인 축축한 웅덩이속에 쓰러져있는 빨간 견장을 단 젊은 병사의 모습을 보았다. 물날은 여름군복은 여기저기 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있었으나 가슴팍에 겨안은 총만은 창백하지만 따스한 한쪽볼에 꼭 대이고있었다.

《어서 더운 물을... 가져오너라...》

어머니는 가늘게 주먹을 떨면서 입속으로 말했다. 내가 한달음에 남비를 안고오자 어머니는 병사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병사는 깊은 무의식상태에 빠져있었다. 군복자락을 헤치고 상처주위를 문지를 때에도 거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듯 했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눈귀에서 번쩍거리는 눈물을 보았다.

계곡에 어둠이 깃들었다. 나는 병사의 곁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술곳이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무엇때문인지 깨어났을 때 나는 애기와 함께 락업속에 깊숙이 파묻혀있었는데 모닥불자리에는 어제저녁때보다 더 큰 불무지가 지펴져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머니의 목도리며 나의 솜옷이며 애기의 쪽포단에 휩싸인 병사의 머리맡에는 거의 비어버린 죽그릇이 놓여있었고 불빛이 비치여 희끄무레한 전나무송곳니에서는 허리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어머니의 손에서 낮익은 식칼이 희뜩거리며 내려질 때마다 나무아지가 끊어져나가는 모진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비비면서 전나무공지로 걸어갔다. 어머니는 병사를 태우고 갈 발구를 만들고있었다. 휘친한 전나무아지를 칙닝쿨로 차곡차곡 묶어올린 채 만들지 못한 발구가 곁에 놓여있었다.

이미 지나쳐온 마을을 찾아 우리는 새벽에 길을 떠났다.

쌀쌀하면서도 흐린 날씨였다. 어느때쯤 되었는데 지 숲속에서는 분간해내기 어려웠다. 멀지 않은 아래쪽에서 킁킁 개짖는 소리가 야릇하게 들려왔다.

《엄마, 마을이야!》 하고 내가 막 기쁜 소리를 치려는 순간 땀에 젖은 어머니의 손바닥이 나의 입을 가볍게 눌러막았다. 그다음 어머니는 지그시 끌어당기며 말없이 손을 들어 누런 잎이 영성한 마가울의 잡관목덤불쪽을 가리켰다.

나는 풀빛곤복들이 얼씬거리고 아침해빛이 종신에서 발산되는 강철빛이 번뜩거리는것을 보았다.

속중한 군화발들이 내는 버석버석 락엽 밟히는 소리와 무어라 지껄이는 소리가 간간히 찬바람에 실려오더니 이어 카빙총을 아무렇게나 둘러멘 군대들이 우줄우줄 드러났다.

《놈들이다...》

머리우에서 어머니의 속삭임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한마디의 말에 삶과 죽음의 그 얼마나 첨예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캄캄한 어둠속으로 굴러떨어지는듯한 전율을 느꼈다.

《엄마, 어떻게 하나?》

나는 파랗게 질려 어머니의 겨드랑이밑으로 새처럼 파고들었다.

마침 우리는 밀둥이 굽은 참나무밑의 우묵진곳에 있었기때문에 당장은 놈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놈들은 점점 가까이 몰려오고 있었으며 별거벗기 시작한 숲은 우리를 감싸줄 힘이 없었다.

발구우에는 병사가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가끔 헛소리를 치면서 곁에 놓인 총을 찾곤했다. 어머니는 병사의 옆에 들른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찬바람에 뒤척이는 목도리의 자락을 꼼꼼히 여며주고있었다. 그 눈빛,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침착하였던지 나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따라서 병사의 가슴우에 작은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 손을 꼭 움켜잡은 어머니는 병사의 곁에서 조금 떨어진 떨기나무숲속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석봉아, 너 아홉살이지?》

어머니는 나의 머리칼속에서 뒤텁킨 풀씨를 살뜰히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황황 불타는듯한 눈길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속삭였다.

《그러니까 넌 아무 일이나 다 할수 있어. 그렇지? 석봉아, 우린 저 인민군대아저씨를 꼭 살려내야 해... 엄만 널 믿는다. 믿어. 만약에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면... 애야!》

갑자기 어머니는 목소리가 울켜해서 나를 와락 품속에 껴안으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엄마를... 기다리지 말아...》

어머니는 한순간 참나무밑의 병사를 돌아보았다. 근심으로 흐려진 눈빛이 파스했다. 그 다음

은 또 울먹거리며 매여달리는 나를 보았다. 눈을 감으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다음순간 눈을 감은채로 사정없이 나를 밀어버렸다.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등뒤에서 갓난애기가 울었다. 한무리의 적들이 어머니를 향해 총을 쏘며 뒤쫓아갔다. ...

길고 긴 몇순간이 지나간뒤 나는 부어오른 눈을 씻고 산발을 헤더듬었다. 가까운 벼랑밑에서 말라 버린 쇠덩쿨에 입구가 가리워진 작은 동굴을 찾아 냈다. 한사람쯤은 넉넉히 누울수 있다는 것이 얼마간 기뻐다. 나는 천정의 수북한 거미줄을 털어내고 바닥에서 돌맹이들을 치운다음 쇠잎을 모아 폭신한 자리를 만들었다. 그다음은 한치한치 발구를 끌어다가 거기에 병사를 눕혔다.

《아저씨, 이젠 어찌면 좋아요... 우리 엄만 놈들에게 잡혀갔어요. 우리 얘기두요. ... 아저씨, 어찌면 좋아요. 정신 좀 차려요. 네...》

나는 또다시 비오듯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굽히고 병사의 뜨거운 이마우에 얼굴을 가져다댔다. 한참동안이나...

나는 홀로 산을 내렸다. 마을은 집들이 절반은 더 비어있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집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듯이 문을 안으로 닫아걸고있었다. 싸늘한 기운이 마을의 구석구석에서 풍겨나왔다.

어느 한 집에 부엌문이 열려져있었다. 올라타 째므로 들여다보니 허름한 수건을 늘려쓴 젊은 녀인이 마당에서 장작을 날라들이고있었다. 나는 어쩐지 그 녀자가 나의 부탁을 꼭 들어줄것만 같은 예감에 숨이 가빠올랐다. 왜냐하면 나는 그 녀자가 두르고있는 새하얀 앞치마의 한쪽 기슭에서 고운 꽃을 보았기때문이었다. 그것은 잎도 없이 수놓은 한송이의 빨간 나리꽃이었다. 나리꽃은 흐린 날씨인데도 막 불타오르면서 나의 눈을 찔렀다. 살아서 향기를 뿜는듯했다. 그 나리꽃으로 하여 안장코가 당실한 그 녀자의 얼굴도 아름다와보였다. 것처럼 틀림없이 마음씨도 고운 녀자일것만 같았다. 나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슬금슬금 마당으로 들어갔다.

《아지미...》

나는 그 녀자가 혹시 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워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산속에 쓰러져있던 인민군병사에 대하여, 놈들에게 잡혀간 어머니와 애기에 대하여 그리고 벼랑밑의 자그마한 동굴에 대하여... 나는 어느새 흑흑 느껴울면서 말하고있었다.

《아지미, 빨리 가서 좀 도와달라요. 인민군대아저씨가 죽어가요!...》

그 녀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한가치 두가지 팔에 장작을 덧쌓으면서 듣고있었다. 별안간 그 녀자는 장작을 껴안고 일어서며 마당이 울리도록 소리쳤다.

《밤이 어디 있어. 썩 물러가! 시끄럽다니까.》

그 다음은 나의 뒤쪽으로 상냥한 웃음을 던지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까만 옷을 입고 완장을 두른 서너명의 《치안대》놈들이 대문안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 녀자는 《치안대》식당일을 하고있었던것이다.

후두둑 나의 얼굴에 차거운 비방울이 떨어져내렸다. ...

변화무쌍했던 고난의 그 계절도 세월과 함께 아득히 흘러가버렸다. 나는 어느덧 맏아들을 인민군대로 떠나보낸 세 아이의 아버지로 되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적막한 산골의 한가로운 도라지밭에서 40여년전 그날에 원쑤처럼 증오했던 그 녀자를, 아니 그 비슷한 녀자를 본것이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한갓 착각은 아닌지? 그러나 한번 내킨 생각은 달콤한 유혹처럼 검질긴것이었다. 어릴적 기억은 비상한것이다.

이제는 해벌의 마지막자취도 사라지고 숲속으로부터 재빛어둠이 스며내리기 시작했다. 골짜기도 등판도 그리고 푸른 도라지밭이며 그속에서 김매는 흰옷입은 녀인까지도 뚜렷한 하나의 동색으로 그 재빛속에 고즈넉이 감겨들고있었다.

림산합숙은 수려한 밀림이 둘러싼 넓은 공지의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었다. 2층으로 지은 합숙의 통나무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나는 우선 접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관리원을 찾는다는것이 그만 식당칸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곳에 관리원이 있는것도 아니였으나 나는 저도 모르게 그 빈방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눈처럼 새하얀 식탁보, 그우에 빛나는 빨간 산꽃들... 산골에 이처럼 멋진 식당이 있을줄이야! 아름다움보다 소박함이, 한그루의 붉은 단풍나무를 보는듯한 우아함이 나를 둘러싸는것이였다. 바로 여기서 이름없는 별목공청년들이 왕자처럼 떠받들려 로동의 기쁨을 즐길것이 아닌가. 어느 뉘의 보배같은 손길이 이 수수한 통나무벽식당을 누구나 사랑하는 어여쁜 처녀처럼 단장해놓은것인지?

나는 무심결에 허리를 굽히고 배식구의 미닫이가 병식이 벌어진 틈으로 주방쪽을 들여다보았다. 큰 무쇠가마가 뿜어올리는 김발너머의 장작무지결에서 착한 마음이 내비치는 봉긋한 입술을 가진 수수한 젊은 녀인이 정성스럽게 수저의 물기를 닦고있었다.

《손님은 관리원을 찾으십니까?》

녀인은 나를 찌어보자 상냥히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녀인은 재빨리 마지막수저를 닦아넣고 반짝거리는 놋수저통을 안고 일어섰다. 앉아있을 때 반쯤 꺾여졌던 흰 앞치마가 제모양대로 퍼졌다. 그때 그 앞치마의 한쪽 기슭에 도드라진 한점의 빨간 무늬장식이 언뜻 눈에 띄었다.

고산지대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종잡기 어려웠

다. 낮에는 분명 맑았으나 언제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한것인지 어두워가는 하늘 먼 저쪽 어디선가 둔중한 우뢰소리가 가슴 서늘하게 메아리쳐왔다. 그 우뢰소리가 이 골안에 남기고간 어설픈 여운마저 간간히 사라져버릴 때 굵은 비방울들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녀인은 수저통을 배식구에 가져다놓고 장작이 젖겠다면서 황급히 뒤울안으로 달려나갔다. 그곳에는 굵직굵직 패놓은 한무더기의 바짝 마른 장작이 그냥 쌓여있었다. 나는 장작을 창고안에 날라 들이느라 경황이 없는 그 녀인을 돕기 시작했다. 그때 눈여겨보니 녀인의 앞치마에 도드라진 무늬장식은 손수를 놓은 한송이의 빨간 나리꽃이였다.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나는 갑자기 아이가 되어 아득한 세월의 저쪽으로 되돌아간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때 안장코의 녀인이 두르고있던 앞치마와 그리도 같은가!...

빨간 나리꽃이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장작을 날라들이는 녀인과 그앞에 앉아있는 나, 저 멀리 검은 하늘가에서 울려오는 둔중한 우뢰소리...

나는 흐르던 세월이 이 순간 갑자기 정지되어버린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가슴속 밑바닥으로부터 바위에 짓눌려온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 그 낮익은 앞치마의 주인은 전혀 다른 녀인이였다. 마찬가지로 못잇을 어린 날의 뚜렷한 추억의 그림자를 던져준 그 앞치마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상관도 없는 한갓 다감하고 부지런한 산골녀인의 류다른 취미에 의하여 만들어 진것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단 한송이의 나리꽃이 눈에 방불한 그 앞치마가 다름아닌 안장코녀인의것일수 있으리라는 미련을 좀처럼 뿌려던질수가 없었다.

《손님은 동발목때문에 오셨구만요.》

장작들이는 일이 끝나고 관리원실로 들어왔을 때 녀인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나서 이 조그마한 산골합숙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툼한 접수책에 나의 주소를 끈끈히 적어넣기 시작했다.

이때 문가에 납작한 보구레미를 옆에 낀 귀염성스러운 작은 총각애의 얼굴이 해죽 나타났다. 비가 오는데 왜 돌아다니느냐는 녀인의 지청구에는 아랑곳 않고 총각애는 무작정 달려들어와 녀인의 뒤희리를 꼭 그러안았다.

《엄마, 어제밤엔 왜 집에 안왔댔나? 보구프게 시리.》

녀인을 총각애가 몸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가끔 글씨를 흐트러뜨리면서도 탓하지 않고 대꾸했다.

《오, 합숙생누나가 몹시 앓아서 간호해주느라 구. 그 검척공누나 있지 않니. 요전날 아버지네 작업소 속보관에 이름이 크게 났던 누나 말이야.》

《어디가 아파서?》

나직이 한숨을 내뿜는 총각애의 까만 눈빛은 제법 근심으로 흐려졌다. 당장 누나를 찾아가봐야겠다면서 뛰어나가던 그 애는 곧 되돌아와서 알박한 보꾸레미를 내밀었다.

《자 엄마, 할머니가 이거 줘.》

접수책을 덮고 관리원실을 나가기전에 너인은 비를 맞아 얼룩이 간 앞치마를 풀고 아들이 두 고간 보꾸레미속에서 뺏뺏이 풀을 먹여 다림발을 세운 깨끗한 앞치마를 꺼내 갈아입었다. 그 앞치마에도 한송이의 빨간 나리꽃이 있었다. 티없이 새하얀 바탕에 어울려 나리꽃은 한결 더 싱싱하게 불타올랐다.

《아니, 어찌면 앞치마마다 그렇게 똑같은 나리꽃을 수놓았습니까?》

나는 가방을 들고 그냥 복도에 선채 지나가는 말처럼 초면의 너인에게 럼치없이 물었다. 내가 같은 너인이라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습고 어리석은 물음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가슴속에 진한 상처를 남긴 어린날의 추억으로 하여 나는 합숙녀인이 그저 평범해보이질 않았고 뭔가 사연이 있을것 같았으며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사연을 나의 추억속의 그 나리꽃앞치마와 련결시켜보려고 애쓰는것이였다. 어떻게 해서 이 너인이 안장코녀인과 똑같은 앞치마를 가지고있을까? 순수한 우연일까? 허나 이 세상에는 순수한 우연이란 있을수 없는 법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싶다는 강한 유혹을 물리칠수가 없었다.

너인은 봉싯한 입술에 빙긋이 웃음을 담았을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웃음이 뜻밖에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가슴저린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엄마, 이 곱은 발이 시릴거야.》

그때 어머니는 바로 저렇게 소리없이 웃으시었지. …

《2층으로 가십시오.》

관리원실의 문을 잠그고 좁은 나무층계를 앞장서 오르면서 그제야 너인은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일을 도와준 마음좋은 길손에게 선의를 베풀어 늦은 물음에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리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전쟁후부터 여기 합숙관리원으로 오래동안 계셨어요. 그 기간에 앞치마를 수십번이나 다시 만들었지만 언제나 똑꼭 이 나리꽃 한송이만을 손수 수놓곤하셨습니다. 뭐 별다른 사연은 없어요. 그저 우리 어머니가 남달리 그 꽃을 사랑하시기때문이지요. 어머님 말이 나리꽃은 남모르는 산속에 피지만 붉은 색으로 열렬하게 꽃핀 다더군요.》

몇해전에 년로보장을 받고 이 합숙을 나에게 인계해주실 때 어머니 제가 쓰던 앞치마도 함께 넘겨주시는것이였어요. 그게 천백마디 당부보다

더 가슴을 치더구만요. 지금도 어머니 늘쌍 저의 앞치마를 덮을세라 빨아주고 다려주고 그러지요. 요즘은 얇으시면서두 도라지발을 가꾸시느라 구… 자, 이 끝호실에 드십시오.》

나에게 호실과 비품들과 열쇠를 인계해준 합숙녀인이 복도로 멀어져가는 발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씩씩히 미소를 지었다.

안개는 벗겨졌다. 그속에 가리웠던 산은 뚜렷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놓고야말았다. 도라지발의 로파는 그때 그 안장코의 녀인이 틀림없었다. 한데 이렇게 다시 만날줄이야…

깊은 밤. 합숙의 처마밑에서 주룩주룩 락수물이 떨어져내리고있었다. 가슴속을 파고드는 락수물소리, 아득한 추억속의 락수물소리…

가닥가닥 뭉쳐진 머리칼을 타고 비릿하고 차거운 비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자주 입안에 고인 비물을 뱉어버려야 하였다. 나는 문짝이 떨어져 나간 어느 길가집의 허정간에 허겁지겁 뛰어들었다. 허정간 기둥에 매달린 오골쫂꼴한 무오가리 몇개를 정신없이 씹어먹었다. 그다음은 쪼그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며 참새처럼 즐기 시작했다. 졸면서도 나는 근심을 했다.

(부상병아저씨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그사이 놈들이 또 나타나서 아저씨를 붙잡아가지 않았을까?…)

화닥닥 놀라 눈을 떴다. 휘뿌리는 비속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우뚝 서버렸다. 약! 나는 되돌아섰다. 심리나 된다는 읍거리로 종주먹을 쥐고 달렸다. 그런데 어찌하랴. 내가 어느 초라한 약방에서 까만 고약 한덩지를 얻어가지고 산으로 달려갔을 때 동굴은 썰렁하게 비어있었다. 황토빛 락수물만 이 동굴바닥으로 흘러들고있었다.

그날의 모질던 락수물소리, 락수물소리…

아,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나는 목이 메여올랐다. 이밤 영원히 잃어버린 살뜰한 혈육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어머니가 목숨바쳐 남기고간 마지막부락을 지켜주지 못한 가슴치는 죄책감이 뜨겁고 소리없는 눈물이 되어 끓어오르면서 나는 잔물에 심장을 행구어내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마침내 그것은 견잡을수 없이 안장코녀인에 대한 증오감으로 뒤바뀌면서 오랜 세월 가슴속 깊은곳에 숨어지내오던 묵은 분노가 꾸역꾸역 서려올랐다.

나는 한동안 자기자신을 억누르느라고 안간힘을 써야 하였다. 그 어디에 살고있든 세상을 발각 뒤져서라도 기어이 찾아내고싶었던 그 녀자, 그래서 비수같은 말로 심장을 찔러 내가 받은 그 모든 마음속고통을 알게 하고싶었던 그 녀자, 바로 그 녀자가 지금 내앞에 나타난것이다.

아침에 밝은 해빛이 비치면 나의 이 증오의 불길은 꺼지게 될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이른새벽에 잠을 잤다. 간밤에 내리던 비는 이미 말끔히 멎고 새파랗게 개인 하늘이 비껴 있었다. 나는 세수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합숙 뒤 울안으로부터 동쪽으로 비스듬히 뻗어올라간 이 슬 맺힌 좁은 오솔길을 따라 달콤한 새벽공기에 취하여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비맞은 숲, 물소리, 잠을 깬 산새들의 조심스럽고도 열정적인 지저귓소리... 그러나 밤보다 더 깊은 고요가 깃든 듯하였다.

새벽대기를 헤가르며 어디선가 산비둘기의 소리와 같은 잠내쉬인 처녀의 말소리가 호들갑스러운 방울염소의 울음소리에 엮여 메아리처럼 울려왔다.

《광운이 할머니, 거기서 뭘해요?》

《오, 산옥이냐. 체네가 부지런하니 그 염소가 이젠 꽤 컸구나.》

굵직한 녀인의 목소리가 새벽안개속에 잦아들듯 그에 대답한다.

《이자리가 너무 허전하길래 내 능금나무 한그루를 심어놓자고 그런다.》

《능금나무라구요?!》 하고 산비둘기의 목소리가 사뭇 놀란다.

《그건 어디서 났어요? 난 우리 고장 산에선 그런 나물 못봤는데요?》

느릿느릿 퍼내는 녀인의 말소리.

《그럼 우리 이 나무에 능금이 열리거든 정성껏 씨를 받아서 온 산에 퍼뜨리자꾸나.》

《은 산에요?!》

푸드득 깃을 치며 날아오르듯 산비둘기의 목소리는 환성을 올린다.

《어마나, 그럼 우리 산에 보배가 한가지 더 늘어나겠네요!》

그 말소리들이 하도 야릇하여 나는 길 아닌 관목숲을 꺾지르고 연한 안개가 흐르는 산기슭을 울려다보았다. 소박한 비석의 아담한 봉분이 푸른 숲에 안기듯이 솟아있었다. 바로 그 봉분결에서 머리칼을 뽀족이 쏜진 처녀와 함께 내가 온 밤을 증오한 안장코녀인이 어린 나무를 심고있었다. 서로 주고받는 말소리가 도란도란 돌려왔다.

《할머닌 이 렬사를 보았는지요?》 《그래.》 《이름이 뭐였됐나요?》 《나도 몰라. 이름이 뭇지. 어디서 살다가 후퇴하던 길인지, 또 누구의 안해였는지... 그저 <치안대>감방에서 입 한번 안열어 보이고 숨진 착한 아낙네라는것밖에. 그 녀인은 한 부상당한 인민군 병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죽었지. 아까운 젊은 나이를 바치고갔어.》

《알고있어요. 한데 능금나무를 왜 여기에 심나요?》

《글쎄, 어디에 심은들 뭐라냐만은 난 꼭 여기에 심고싶구나. 림종직전에 내가 감방에 밥을 날

라간 일이 있었지. 그때 하는 말이 자기는 죽는 것이 싫지 않지만 불타버린 산들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하더구나. 그 녀인은 산림설계원이었어.》

《그래요!》

《난 그 녀인의 마지막말이 늘 잊혀지지 않는구나. 이제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엔 열매가 달리는것을 보면, 그래서 저 산마다 능금나무가 퍼지는걸 보면 땅속의 그 녀인도 기뻐할것만 같구나.》

두 녀인이 골짜기로 내려간후 나는 묘지로 올라갔다. 눈물을 머금고 오래동안 봉분우의 푸른 잔디를 어루만졌다. 그때 나의 심정을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오래간만에 어머니의 품에 안긴듯한 기쁨, 나는 분명히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 괴로움 그리고 어쩐지 안장코녀인의 깨끗하지 못한 손이 와닿은것으로 하여 순결한 어머니의 넋이 더럽힘을 받은듯한 분한 생각...

아침에 나는 림산작업소 소장과 함께 림지로 올라갔다.

나는 숲이 아니라 천연동굴속으로 들어서는데 한 느낌이 들었다. 울창한 숲속은 끝없이 고요했다. 곧추 뻗어오른 아름드리 거목들로 꽉 들어찬 무성한 숲속에는 해빛이 거의나 스며들지 않았다. 그래서 숲은 더욱 푸르려보였으며 억세고 황홀해보였다. 한대의 나무도 베여내지 않은 우람찬 숲은 힘차게 숨을 쉬면서 처녀와도 같은 싱싱한 활기와 무진장한 아름다움을 한껏 뽐아올렸다.

나는 숲에 매혹될수록 어린날의 추억의 토막속에 또다시 잠겨버렸다.

...후퇴길, 나는 보통이를 인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불타버린 산발을 걸어간다. 죽어가는 나무들, 타다남은 동결들...

《여기서 좀 쉬여가자꾸나.》

어머니는 보통이를 내려놓는다. 어머니는 얘기를 추스르며 산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동굴고 맑은 어머니의 두눈이 여러가지 빛갈로 변한다. 처음에는 어둡게, 그 다음은 뜨겁게, 꿈속을 더듬어 수첩에 무엇인가를 그려넣을 때는 부드럽게 다시 밝아진다.

《이제 이 산은 이깎나무숲이 될게다.》...

상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제야 눈앞에 숲을 보는듯했다. 숲! 40여년전 그날에 나의 어머니가 그려보던 숲! 오늘 그 숲을 안고 탄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마냥 가슴이 벅차올랐다.

《숲이 대단합니다. 소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알면 우리 탄부들이 얼마나...》

나는 저도 모르게 소장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원녀동무에게 해야 합니다.》

소장의 눈길은 멀리 숲속으로 미끄러져갔는데 눈물이 어린 눈처럼 부드러워졌다.

《여기서는 아이들도 함부로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저 평범한숲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한 녀인의 성실한 한생이 비껴있습니다...》

그 녀인은 남들이 다 노는 명절날에도 영예군인인 남편과 함께 한대두대 나무를 심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모를 살려내겠다고 무더위에 물지게를 지고 땀을 흘리며 산발을 뛰어다녔습니다. 전쟁때 모조리 불타서 벌거숭이로 되었던 이 산이 오늘 이렇게 숲으로 변하기까지는 정말...》

조용히 숲의 연혁사를 이야기하던 소장은 문득 반색을 지었다.

《아, 저길 보십시오. 원녀동무가 여기로 올라오고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숲을 찍으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아마 마지막으로 이 숲이 보고싶어 저렇게 남편과 딸과 함께 올라오는가봅니다.》

숲의 아래쪽에서 산뜻한 푸른 오솔길을 따라 두 녀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저는 건장한 로인을 랑열에서 부축해주며 천천히 움직여오고있었다. 그 사람들은 나직이 웃기도 하고 뭔가 다정히 속삭이고 어떤 나무앞에서는 멈춰서서 밀등을 추연히 쏘아보기도 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림한복판으로 들어갔다. 미구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만큼 뻥뻥이 들어찬 나무들은 풍성한 아지를 겹겹이 펼쳐들고 자기의 주인들을 포근히 감싸버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의 세계, 이 숲을 사랑으로 키워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도저히 맛볼수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은 환희로운 자기들의 세계에 몸도 마음도 흠뻑 잠겨버린것이였다. 그 세계를 감히 어떻게 깨뜨린단 말인가. 우리는 더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확연히 알아볼수 있었다. 그속에서 이 숲을 가꾼 녀인, 소장이 원녀동무라고 부르는 그 녀인이 다름아닌 안장코녀인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나는 놀랐다. 그러니 점차 형언하기 어려운 모순된 감정, 뜨겁고 찬물이 뒤섞인듯한 석연치 못한 감정으로 하여 나는 심한 피로움을 당했다. 그것은 한 녀인의 성실한 한생이 비긴 소중한 창조물을 눈앞에 확인하는 감동적인 이 마당에서조차 나의 가슴속 깊은곳에 웅크리고있는 그 녀인에 대한 한가닥의혹이 다시 증오심으로 변하고있다는데 원인이 있었다.

허나 조용히 숲을 둘러보고있는 흰옷 입은 녀인의 자그마한 모습은 티끌만한 한점의 시름도 없어보였다. 그 녀인은 자주 새하얀 웃고름을 눈가로 가져갔는데 그것은 이 푸른 숲에 어울려 그 지 없이 행복해보였다. 때묻지 않은 순결한 마음이 없어야 지금 저 녀인의 얼굴에 어떻게 사심없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릴수 있을것인가. 하다

면 저 녀인은 어떤 사람인가?

《소장동지, 한가지 물어봐도 일없겠습니까?》

나는 좀 주저하며 말을 꺼냈다.

《저, 전쟁때의 일을 다 기억하고계십니까?》

소장은 의아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스스로없이 대꾸했다.

《글쎄요. 더러 잊어버리긴 했어두 준엄한 시절이 아닙니까. 그때의 일들이야 일생 쉽게 잊어버릴수가 없지요.》

소장이 너무도 소탈하게 말을 받아주기때문에 나는 어지간히 마음을 놓고 목새길수만 없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난 후퇴때 이 지방을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난 아홉살이었는데... <치안대>식당일을 해주고있는 저 녀인을 보았습니다. 소장동지가 원녀동무라고 부르는 저 안장코의 녀인을 말입니다.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난 소장동지가 일생을 이 고장에서 보낸분이라길래 진심으로 묻는 말입니다.》

《아니 그럼》 하고 소장은 눈을 치뜨고 다급히 다급히 되물었다.

《부상당한 인민군대를 동굴속에 숨혀놓고 우리 원녀동무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그 더벅머리 총각애가 혹시?》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갑자기 소장은 와락 나의 팔을 껴안으며 꺾꺾 웃음을 터뜨렸다.

《야, 사람이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꼭 다시 만나게 되는구만요. 글쎄 우리 원녀동무가 얼마나 기뻐하겠소!. 그때 그 아이를 쫓아버린 일이 늘 가슴에 맺혀서 어디엔가 살아있으면 찾아가 용서를 빌고싶다는것이 우리 원녀동무의 소원인데 이젠 됐수다!. 자, 어서 그 녀인에게로 갑시다. 지금 저기에 동굴속의 병사도 있소. 우리 원녀동의 남편이라오.》

녀인이 서있는곳으로 걸어가면서 소장은 나에게 그 녀인에 대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오랜 세월을 증오하며 살아온 안장코녀인에 대하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을때 평범한 인간이 얼마나 숭고해질수 있는가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때 원녀동무는 처녀였는데 인민유격대의 임무를 받고 적후공작을 하고있었습니다. 나도 그때 산에 들어가 유격대지휘부에 있었으니까 우리 원녀동무의 일을 잘 압니다. 공작상 안전을 위하여 아이를 쫓아버린후 그가 산으로 가보니 아이는 없었지요. 인민군부상병만이 동굴속에 홀로 누워있었는데 상태는 몹시 위급했다고 합니다. 더 생각할새도 없이 병사를 돌쳐업고 산발을 넘어서 먼 친척별이 되는 집인가 찾아갔더구만요. 그후 인차 우리의 재진격이 시작되면서 병사는 인민군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 찾아가보니 그 병사는 한다리를

없는 영예군인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녀동무는 서슴없이 그의 안해가 되었지요.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온몸은 후더워올랐다. 가슴속 밑바닥에서는 시꺼멓게 뭉쳐있던 그 무엇이 웅어리채 뿔혀 나가고말았다. 나는 진정할수 없는 가슴을 안고 녀인에게로 한걸음 두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던 나는 눈물에 푹 젖어버린 그 녀인의 말소리에 못 박힌듯 서버렸다.

《이 기쁜 날...》

녀인은 딸의 손목을 다정히 잡아쥐고 소소리높은 거목의 아스라한 우듬지를 울려다보면서 말했다.

《네 친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구나. 오늘 이 숲을 함께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너의 어머니는 산림설계원이었구 눈물 감으면서두 불탄 산들을 걱정했어. 참 아까운이가 남을 살리자고 감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졌구나. 죽은 엄마의 싸늘하게 식은 품속에서 갇난애기가 자고있었지.

그게 바로 네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일을 더 잘해라. 합숙일을 제집 일처럼 잘하자면 힘이 드느니라.》

《알아요. 어머니, 다 알아요!》

딸은 녀인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무엇인가 둔한것이 나의 가슴을 쿵 찌르는듯했다. 아니 그럼 저 애가 지금껏 죽은줄로만 알고있던 내 동생이란말인가.

달려가는 어머니의 잔등에서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갇난 동생,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나의 동생이었고 그 모습은 빼없이 나와 기억속에 나타나 나의 심혼을 괴롭히곤하였다. 이름도 지녀보지 못하고 떠나가버린줄로만 알았던 나의 동생이 지금 어엿한 애어머니로, 아릿다운 녀인의 모습으로 내앞에 서있는것이다. 흐릿한 안개가

나의 눈앞을 가리더니 어느새 뜨거운 눈물로 고여 두불을 타고 흘러내린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눈부신 해빛은 수림속을 껴비쳤다. 숲속은 들리지 않는 노래와 보이지 않는 향기로 가득찼다. 그 노래는 어디서 울리는가? 그 향기는 어디서 뿔기는가? 송고한 노래도 짙은 향기도 바로 저 흰옷 입은 자그마한 녀인의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빛발쳐나오는것이다.

준엄한 전화의 그날에는 애어린 처녀의 몸으로 조국을 지키는 싸움에 나섰고 전후에는 나의 어머니가 남기고간 그 희망을 안고 자기 한생을 푸른 숲에 바친 저 녀인... 내 저런 녀인을 오해하다니.

숲 첫머리에서 기계톱소리와 한대 두대 통나무 넘어가는 소리가 울려왔다. 벌목공들이 드디어 이 숲을 찍어내고있는것이다. 이제 그 나무들은 동발이 되어 천길 땅속에 억척같이 서있을것이다.

녀인은 천천히 머리수건을 벗어들었다. 반백의 단정한 머리가 드러났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 녀인은 지금 한생의 보람이 깃든 자랑찬 숲을 어머니조국앞에 삼가 두손으로 높이 받들어올리는것이다.

나는 그 녀인의 얼굴에 어린 그 미소에서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오늘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바로 저렇게 희열에 넘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으리라...

《어머니!》

나는 오열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녀인의 발치에 무너져내렸다.

꿇어앉은 나의 무릎가에 한송이의 빨간 나리꽃이 피어있었다. 가름하게 예쁜 꽃송이는 수집은듯 살쫂이 수그리고서도 온몸의 열정을 짙그리다해 불타오르고있었다.

가사

잠간만, 렬차여 멈추어주려마

리용

작별의 역두에 움직이는 렬차여
잠간만 내 말 듣고 멈추어주려마
모내기를 도와주고 떠나가는 병사들께
잘 가세요 그 인사말 한마디만 더 하게

아쉽게 서둘러 움직이는 렬차여
잠간만 내 말 듣고 멈추어주려마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 많던 병사들께
내 고향의 첫물팔기 바구니채 드리게

내 어이 렬차여 멈춰서진 못해도
실고가진 못하나 간절한 이 마음
돌아오는 군대명절 위문공연 가는 그날
가슴속에 넘치는 정 노래속에 담을래

출근부를 펼칠 때마다

박두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자그마한 생활세계를 가지고있다. 쇠물을 끓이는 용광로와 천길 지하막장, 파도세찬 먼 바다와 심산유곡 그 어디서나 사람들은 이 작은 생활세계를 통하여 무변광대의 세계를 인식하고 시대에 반응한다. 어찌보면 인간의 운명파도 같고 삶의 행로와도 같은 이 생활세계를 유지하고 생의 궁지를 맞보게 하는데서 떼어놓을수 없는 생명소와 같은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노동일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인간에게 오늘이 있게 하고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게 하는 천하지대본이다. 더우기 노동이 상품화되어 생존경쟁의 고역장으로 전변된 착취사회와는 달리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노동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어 누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을 깡그리 바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공민의 자각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이러한 노동이 나에게도 작은 생활세계를 가져다주었다.

웃음이 있고 랑만이 흘러넘치는 나의 생활세계, 생에 활력을 부어주고 창조의 미래로 끊임없이 치달아오르게 하는 이 생활세계의 하루는 늘 아침출근으로부터 시작되군한다.

연록색의 작은 일들을 펼친 가로수가지들마다에 해빛이 아롱져 웃는 이 아침 나는 일과처럼 출근길에 오른 종업원들의 밝은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군한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받들고 진군길을 다그쳐가는 근로자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길을 끄는 우리의 출근길, 활짝 열린 정문에서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과 여전히 고정된 자세로 주의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색형의 얼굴들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시계를 바빠 들여다보며 달음박질하는 처녀들, 아무리 바쁜 출근 길에서도 귀여운 아기의 따뜻한 불에 입술을 대고 웃음짓는 녀인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도 보인다.

아침정서에 한껏 취해있던 나는 중앙현관에 이르러 문득 복도에서 주고받는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렇게 출근부만 들여다보시나요. 혹시 눈이 잘... 안보이시나요?》

얼마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갓 배치되어온 처녀 동무였다.

《아니... 그런게 아니야. 어쩐지 출근부를 펼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와서...》

목소리의 임자는 공무직장의 용접공청년이였다.

《호호, 출근부를 펼치는데 가슴은 왜?...》

처녀의 천진란만한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는 느슨한 미소가 어리였다.

《참, 동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다고 했지. 그러니 우리보다 식구가 많겠구만. 우리 집은 식솔이 넷이요. 올해 집사람까지 부기일군양 성소에 가고나니 집안에 로력자라곤 나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우리 네식구에게 식량과 생활비를 주고 온갖 사회적혜택을 다 돌려주고있소. 동무네도 마찬가지일테지. 그러니 우리가 자나깨나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나... 나는 아침마다 출근부를 펼칠 때면 내가 하군하는 출근수표가 범상하게 여겨지질 않소. 왜냐면 480분 노동시간이 출근수표로부터 시작되거든. 그러니 이 수표를 받아안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우리들의 량심의 서약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정말!》

처녀는 두손을 모두어잡고 한동안 청년의 얼굴을 선망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나는 오래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량심의 서약, 가슴에 후터운것이 스며들었다.

량심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도덕적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순결한 사상감정이다. 강압으로는 얻을수 없고 법률로써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그 진실성으로 하여 량심은 이미 많은 산문글과 문학작품들의 주제로 되어왔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의 출근수표문제를 두고 생활적으로 진지하게 나누는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정무원 총리로부터 외진 등대섬의 이름없는 등대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아침이면 펼쳐드는 출근부. 망국의 비운이 칠칠이 드리웠던 지난날 일제의 군화발밑에서 수난에 찬 력사를 걸어야 했던 우리 인민은 일자리가 없이 비참하게 살아왔다.

암흑의 세계속에서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며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겨야 했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후에야 비로소 제이름

석자를 출근부에 올리고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을 누릴수 있게 되지 않았던가. 돌아보면 지금 우리 인민처럼 만방에 자기의 존엄을 떨치며 가슴 펴고 미래로 확신성있게 나가는 인민은 없다.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는 조국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들과 로력혁신자들이 일 자리에서 쫓겨나 동양을 구걸하고 로동계급의 오랜 수령들의 위엄은 배신자들의 룡락물이 되어 력사의 진창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사람들은 기형화된 생활속에서 타락의 세계를 방황하고 자유화의 바람은 나라를 파국의 위기로 사정없이 몰아가고있다. 그러나 맑게 개인 우리의 하늘, 우리의 대지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대오가 지구를 광광 울리며 광풍을 맞받아 가고있다.

수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은 수령을 그 하늘의 태양으로 받들며 깨끗한 마음에 성실한 로동으로 충성을 새기는 이 혈연적인 관계, 아무리 욕심나도 가질수 없고 아무리 칼질해도 끊을수 없는 이 혼연일체의 생활세계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참모습이다. 실업자와 거지가 거리를 헤매고 온갖 패륜패덕

과 사회악이 살판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이 세계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와 꼭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복중에도 최상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만이 가질수 있는 사랑과 의리의 황홀경이 아니겠는가. 수령복, 인민복이 가져다준 이 세계속에서 나의 작은 생활세계도 끊임없이 내려치며 흘러가고있다.

나는 숨엄해지는 감정에 휩싸여 출근부를 펼쳐 들었다.

출근부에서는 수많은 수표들이 보람찬 로동의 나날들을 주마등처럼 비쳐주었다.

(나도 영웅들처럼 살고있는가? 당의 은혜에 얼마만한 땀을 바쳤는가?)

나는 용솟음치는 마음의 열정을 다잡으며 수표란에 나의 이름을 토박토박 적어넣었다.

발자국소리가 들려온다.

무수한 손과 손들에 받들려 출근부에 수표가 새겨진다.

또다시 우리의 로동은 벅찬 현실을 안아오고 인류가 그토록 오래동안 기원하여온 리상세계를 이땅우에 펼치며 끝없이 바쳐질것이다.

들끓는 벌

권강일

날셀녁부터
들끓는 벌
모내기로 들끓는 벌

저봐라
지원자 마중에
분조장의 뒤잔등에 농립모가 춤을 춘다
논둑길이 미끄럽지만 않은들
걸어올린 정쟁이에 불이 일겠다

야단이다
온 벌에 사람들이 차고넘치는데
읍으로 향한 큰길우엔
아직도 기발의 행렬이 아니 끊기고
병사들의 힘있는 노래에
물힌 초소에 잇닿은 령길을 보아라

오고 또 오는 지원의 물결
마치도 자기들이 주인인듯
스스로 찾아드는 일손에

분조장도 할말을 못고르누나

굴러온 돌 배긴 돌 뻘다더니
모기계운전공의 어깨를 툭 치며
몸에 배인 자세로 모기계를 바꿔타는
병사들 그 모습에
처녀들 웃음소리 더 여무누나

눈내리는 겨울에도 함께 가꿨지
온 벌에 거름 내며 갈아엎으며
농기구도 차판가득 실어보내며
언제나 함께 가꾼 벌이여서
봄들판에 펼친 정이 뜨겁구나

이렇게 극성스레 도와주지 않은들
우리 분조 우리 땅을 못가꿀가
장군님의 뜻으로 새날을 열며
온 나라가 벌에 사는 뜨거운 봄날이다
주인이 따로없는 들끓는 벌이로다

추천의 말

나 어린 필자의 단편소설 《넓은 교실》을 읽기 시작했을 때의 인상은 커다란 기대였고 호기심이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저도 모르게 작품에 끌려 들어가면서 필자가 펼쳐보이는 소박하고도 진실한 사춘기청년들의 사색과 감정에 공감하는 한편 우리들모두가 언젠가 한번 체험하였고 이제는 어슴푸레한 기억으로만 남은 그 시절어로 다시 려행하는듯한 느낌이였습니다. 작품의 마감폐지를 넘길 때의 인상은 물론 커다란 기쁨이였습니다.

그것은 필자가 이제 겨우 16살이라는것, 그 나이에 바람직한 소박성, 평이성은 물론 놀랍게도 매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언어구사, 감정조직 등

이 그토록 진지하고 진실하기때문입니다.

나는 이 작품의 어느 대목, 어느 장면이 여사 여사하게 되였더라면 더 좋았을것이라는 혼계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모두가 자기의 일생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고하는 사춘기의 그 잊지 못할 시절을 어린 필자의 글에서 생신하게 펼쳐보인것만으로도 만족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나는 첫걸음을 착실히 자기식으로 뻗어나 어린 필자가 끝까지 성실하게 문학수업을 계속해나감으로써 우리 문단의 화원에 특색있는 한송이 고운 꽃으로 향기를 풍기기 바랄뿐입니다.

작가 정기종

단편소설

넓은 교실

백의남

선고개를 넘긴, 중기에 몸이 그닥 나지 않은 력사선생은 수업시작종이 울리기전에 교실뒤출입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드문히 그렇게 들어와서는 뒤출의 빈 결상에 조용히 앉아 떠들어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곤하였다.

《세계력사》과목을 무척 좋아하는 학급반장 철우는 선생이 이렇게 미리 들어올 때면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했다. 학급애들에게 선생님의 사색에 방해된다고 떠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대체로 선생 자신이 이런 소란스러운 휴식시간에 앉아있는것을 좋아하는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

학급애들은 력사선생의 평소의 말없는 친절, 아량과 너그러운 성품에 습관이 되어 선생이 들어와 있건 아랑곳없이 휴식시간을 마음껏 보내고 있었다. 이야기판을 독차지해서 처녀애들과 사내애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모으곤하는 송진아의 맑고 쟁쟁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애는 수업종이 울리고 력사선생이 금방 교탁에 다가섰을 때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진아의 얼굴에 조금 미안쩍어하는 기색이 떠돌았으나 자기 자리로 가는것을 보니 별로 어려워하는것 같지 않게 자연스러운 손가짐으로 목덜미에 흘러내린 탐스런 머리를 추스리였다. 진곤색 나이론 사뻑천으로 교복을 모방해서 멋지게 지어입은 그애의 주름치마자락이 사르락거리고 짙레꽃향기갈

기도 하고 장미꽃향기갈기도 한 화장비누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 냄새는 분명 상쾌하고 싱싱한 기분을 자아내는것이였으나 철우는 우정 낮을 판데로 돌리고 숨을 들이쉬지 않았다.

력사선생은 진아가 자리에 앉은 다음에도 뒤늦게 들어오는 다른 학생이 있지 않을가 하고 잠시 기다렸다. 멀찌감치에서도 알릴 정도로 서리가 내린 선생의 머리는 총이 세서 손으로 이따금 버릇처럼 쓸어넘기는데도 고집스레 뻗뻗이 일어섰다.

어찌보면 잘 다듬지 못해 푸수수해보이기도 하는 머리칼이지만 오자락과 팔소매에 백목가루가 희끗이 묻은 후련한 제진깃양복과 어울렸다.

력사선생은 백목을 쥐고 칠판에 돌아서서 활달한 필체로 《제3절. 고대로마제국》이라고 큼직히 쓰기 시작했다.

교실안에는 종이장을 번지는 소리와 필갑을 조심성없이 여닫는 잔소음이 일뿐 그만하면 조용하였다. .

철우가 학습장에 제목을 쓰고 《세계력사》교과서를 펼치는데 남학생들이 앉은 오른쪽줄에서 빨간 꽃송이같은것이 획 하고 포물선을 그리며 녀학생들 줄쪽으로 날아갔다.

《아야!》

몸집이 뚱뚱한 수옥이가 손으로 목을 부여잡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애는 펄쩍 돌아앉아 자기목덜미를, 찢른 줄기에 가시가 붙은 장미꽃을 집어

들고 남자애들쪽을 노려보았으나 다들 놀랍고 천연스런 표정이거나 은근히 재미있어하는 낯색들이어서 《범인》을 짚어낼수 없었다.

력사선생은 마침 칠판에서 돌아선 때이라 죄다 목격했지만 말없는 질책의 눈길로 수옥이쪽을 보았다.

《꽃송이를 이리 내오시오.》

얼굴이 시뻘겋게 단 수옥이는 제격 일어나 장미꽃을 교탁에 가져다바쳤다.

선생은 꽃송이를 쥐고 식물학자마냥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온화한 빛이 가신 약간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미꽃을 누가 교실에 가져왔습니까?》

철우는 력사선생이 꽃을 던진 애가 아니라 애초에 교실에 가져온 애를 찾아내려는것을 봐서 원인을 따져 단단히 문제시하려는것이라고 생각했다.

철우는 송진아쪽에 눈길을 던졌다.

철우는 아침에 등교할 때 진아가 바로 그 빨간 장미꽃송이를 코에 가져다대고 향기를 탐스레 맡으면서 계단을 올라오는것을 보았던것이다.

력사선생이 다시금 장미꽃 임자를 물었으나 대답하는 학생은 없었다. 진아는 살눈섭을 착 내리깔고 조각상처럼 딱딱 앉고서 앉아있었다. 자기는 별로 상관없다는듯이.

철우는 진아가 솔직하지도 대범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학급애들앞에 나서는걸 주저하는적이 없더니 자기 잘못을 인정할 조그마한 용기도 없는 처녀애판말인가.

송진아는 작년가을 4학년 새학기가 시작될 때 전학해왔다. 시내 다른 구역의 학교에서가 아니라 멀리 대륙을 넘어 유럽땅에서 왔다. 그 나라의 대사직무를 맡아보던 아버지가 조국에 소환되어 구역행정경제위원장이 된것이였다. 학교의 교원들은 물론 상급학년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송진아를 알고있었다. 그것은 진아의 아버지가 승용차를 타고 운동장에 드문히 와서 학교사업을 도와줘서가 아니였다. 굵실굵실한 선천적인 반고수인 단발머리를 옆가름내어 이마가 열리게 시원히 빗어 올린 진아는 긴 속눈썹속에 류달리 정기도는 검은 눈을 가진 매력있는 처녀애였다. 진아는 앞가슴에 레스가 달린 꽃무늬 박힌 하늘빛샤쓰를 입기 좋아했고, 자주색칠이 반짝거리는 오이씨모양의 맵시있는 구두를 신고 다녔다. 다른 처녀애들의 구두밑창에서는 성가신 소리가 났으나 진아의 구두에서는 듣기 좋은 타악기소리같은것이 복도에 울렸다. 진아가 학생들속에서 유묘하게 두드러진것은 차림새나 미모보다도 류창하게 번지는 영어회화술과 우수한 학업성적 그리고 늘쌍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애들을 자기 주위에 끄는 기질때문일것이다. 진아는 아버지를 따라 유럽대륙에도 가보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것이 많았다.

장미꽃의 주인이 나서기를 바라던 력사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교실에 드리운 침묵을 깨뜨렸다.

《유감이로구만… 나는 장미꽃을 가져온 학생을 꾸짖자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 학생은 장미꽃을 펴 좋아해서 꺾었을것입니다. 나는 장미를 사랑하는 학생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긴장해서 앉아있던 학생들의 표정이 느슨해지고 의아쩍어하는 빛이 어렸다. 다른 선생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너그러움이고 관용이였다.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파마머리를 뒤로 쏜 화학선생만 해도 이런 경우에는 참고 가만있지 않는다. 시간이 가더라도 수업을 방해한 그 장난군을 기여이 붙잡아내서는 한바탕 된욕을 퍼붓고야 넘어가군했다. 화학선생은 학생들이 싸부렁대거나 조금이라도 떠들면 그것을 단순히 수업규률을 어기는 문제로만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수업을 치르는 선생 자신의 인격과 존엄을 허무는 짓으로 보았고 그래서 모욕을 당한것처럼 성을 냈다. 그런데도 화학시간의 정숙은 잘 보장되지 않아 선생은 학급반장인 철우에게 자주 불만을 쏟았다. …

(장미꽃이 화학시간에 날아가지 않은것이 다행이지.)

철우는 진아가 그냥 태연히 앉아 나긋한 흰손으로 책상모서리를 문지르는것을 찌뿌듯이 건너다보았다. 진아가 그런 군동작으로 애써 내심의 당황함을 감춘다고 생각되였다. 철우는 수업을 방해한 장미꽃임자를 붙잡아내서 따끔히 혼내우지 않고 지나친 인내와 아량을 보이는 력사선생이 저으기 불만스러웠다.

그러나 력사선생은 식물학자이기라도 한것처럼 엄지손가락과 두번째손가락으로 장미꽃가지를 쥐고 찬찬히 살펴보더니 더욱 온화한 낯빛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학생동무들에게 물읍시다. 장미꽃은 어떤 꽃입니까?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은 긴장이 아주 풀어지고 버쩍 흥미가 살아나 웅성거렸다.

철우도 어쩔수 없이 끌려들어 장미꽃의 미학적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학생들중에서도 사색형이 못되는 재빠른 애들 몇이 그닥 자신은 없으면서도 먼저 알아맞추는 영예를 지니려고 수선거리는바람에 생각깊고 진득한 성미의 애들에게 방해물을 주었다.

《수옥학생이 어디 말해보시오.》

력사선생이 장미꽃가시에 찢린 그 처녀애를 돌봐주기라도 하듯 선참으로 쪼였다.

몸이 나서 교복샤쓰의 겨드랑이혼솔이 터질것처럼 팽팽히 불어난 수옥이는 풍보체질에 어울리지 않게 손으로 치마깃을 애교스레 비다듬으며 일어났다. 자기를 알아주는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다른 학생들에 대한 미안쩍은감이 그 몸가짐에 담겨있었으나 어딘가 무대에 나선 어린 소녀

무용수의 거동을 모방한 느낌이 들어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장미꽃은 가시가 있는 붉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 뻔한 상식적인 대답은 누가 못할라구.》
수옥의 대답에 단박 통을 준 애는 키가 크고 몸이 가늘어 《까나리》란 별명을 듣는, 어른처럼 울대가 푹 빠여진 인석이였다. 철우는 모름지기 그애가 장미꽃송이를 수옥에게 던졌다고 생각했다. 어찌된 일인지 인석이는 하루라도 수옥이를 못살게 굴거나 결함을 꼬집지 않고서는 편안히 견뎌배기지 못하는 애였다. 수옥이는 인석이쪽을 사납게 흘겨보고 털썩 앉았는데 의자가 힘에 부쳐 삐걱거렸다.

《흰 장미도 있지 않아.》

《분홍색장미도 얼마나 곱다구.》

《그래, 아름답다는건 대답이 못돼.》

애들은 점점 큰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을 깊이 굴리지 못한 자기들의 견해가 선생한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것을 알아채고는 인차 입을 다물어버렸다.

교실안이 조용해지고 자기들의 얄은 지식에 실망을 느낀 애들이 력사선생의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는데 녀자애들쪽에서 송진아가 침착히 일어섰다. 진아는 들꽃이 핀 풀숲에서 쑥 솟아난 유난스러운 나리꽃처럼 의젓한 자태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이제 내가 말할테니 꽃들은 떠들지 말고 잠잠해있다가 들으라는듯한 기색인것 같다.

철우는 진아가 잘못을 시인해야 할 난처한 순간엔 침묵을 지키다가 자기를 빼겨볼 때가 오자 버젓이 일어나는것이 알미웠다. 그러나 진아에게서는 고음에 가까운 평소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가책이 어린 주저하는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생님... 그 장미꽃은... 제가 꺾어왔습니다.》

진아의 때늦은 솔직한 뉘우침은 철우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놓았으나 력사선생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것 같았다. 선생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돌리며 잠자코 미간의 굵직한 주름살을 모았다. 그리고 여느때의 아량이 느껴지지 않는 다소 랭정한 음성으로 말했다.

《난 이미 시효가 지난 질문에 대답하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금 장미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고 물었습니다.》

《장미꽃은...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열정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열정을 상징한다... 아주 괜찮은 답변입니다.》

학생들의 부러운 눈길이 일시에 진아에게 쏠렸다. 력사선생에게서 《괜찮다》는 말은 《훌륭하다》는 의미를 대신하는것이였다.

진아는 사뭇 자부심에 싸여 남학생들을 할깃

둘러보고서야 앉았다.

철우는 진아의 겸손치 못한 거동과 눈길에서 지식을 뽐내고 남자애들을 업신여기는것 같은 태도를 엿보자 속이 부르터올랐다.

《장미꽃에 대해 또 다른 생각을 말할 동무는 없습니까?》

선생은 기대어린 눈빛으로 다시금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진아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할수 없는지 학생들은 잠자코 있었다.

철우는 은연중 승벽이 치밀었다. 망설이다가 선뜻 일어났으나 정작 말하자니 자기 생각이 알곳은데가 있음을 깨닫고 당황했다. 그러나 애들의 호기심 짙은 눈길들이 집중되고 또 력사선생의 말없는 고무적인 눈길을 받자 주저감을 털어버렸다.

《저는... 장미꽃을 저만 잘났다고 우쭐해하는 처녀애한테 비유하고 싶습니다.》

교실안은 대번에 벌동지처럼 소란해졌다. 처녀애들은 격분해서 화산이라도 분출한것처럼 웅성댔으나 남자애들은 사기가 올라 어지간히 깨고소해서 처녀애들을 건너다보았다.

귀뿌리까지 장미꽃처럼 붉어진 진아가 탄성고무에 튕기듯 일어났다.

《선생님, 이건 사람을 모욕하는겁니다.》

진아가 더 적중하고 혹독한 말마디를 고르지 못해 갑자르는데 력사선생이 웃음을 머금고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화해라도 시키듯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철우학생이 진아나 그밖의 녀학생들을 모욕하자고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미꽃에 대한 철우학생의 비유는 줄기의 가시처럼 좀 찌르고 날카로운데가 있지만 자기로서의 형상적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견해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편협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꽃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견해는 갈을수 없습니다.》

리해심이 발은 처녀애들이 무언의 항변으로 입을 삐죽했다. 선생이 력사과목을 좋아하는 학급반장을 두둔한다는것이였다. 진아는 박아놓은 송곳처럼 앉아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력사선생은 장미꽃송이를 창턱의 꽃병에 꽂았다. 그리고 총이 센 머리가 또 일어섰을것 같은지 익숙한 손동작으로 쓸어넘기고 교탁을 마주섰다.

《학생들은 사물현상을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다면적으로 고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력사도 편견이 없는 옳은 관점으로 공부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로마제국>에 대해 학습합니다.》

철우는 교과서에 눈길을 박았으나 무안쩍은 감정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철우는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깔려있던 진아에 대한 불만의 감정, 늘 우쭐해 돌아가는 그 처녀애를 면박주고싶던 생각

이 솟구쳐서 한 말이었지만 왜 그런지 속시원한 느낌은 조금도 없었다. 도리어 어떤 정당치 못한 일을 했을 때에 느끼는 그런 피로운 감정이 고여올랐다. 그는 분명 진아를 빗대놓고 고의적으로 말한 것이었다.

철우가 진아를 아주 밍게 본것은 봄철에 잡혀서 열린 첫 초급단체총회때부터였다. 그때 학급애들은 거의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원으로 되어 있었다.

원래 철우는 늘 해오는 학급반장사업을 그닥 달갑게 여기지 못했다. 학급의 출석정형이라든가 수업규율, 과외활동조직 그리고 담임선생이 주는 과업들을 수행하느라 정말 마음의 여가가 없다. 그런속에서도 다과목소조에 다니는 그는 공부를 남들보다 뒤지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밤늦게라도 소설책 보는 시간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아는 그날 총회마감에 교탁에 나가서 철우를 따갑게 비판했다.

《철우동무는 요즘 력사소설책만 보면서 학급장사업은 적당히 하고있습니다.》

진아는 교탁모서리에 한손을 얹고서 너선생 못지 않게 태연자약한 자세로 철우쪽을 굽어보았다.

철우는 모닥불을 들썩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허가 입안에서 굳어진듯 반발을 할수 없었다. 진아의 계속되는 비판은 철우를 더욱 궁지에 몰아 넣었다.

《...그리고 철우동무는 학교다과목소조에도 잘 참가하지 않습니다. 동무가 력사과목에 몰두하는 것은 반대없어요. 그렇지만 다과목소조선생님이 없는 틈을 타서 그렇게 자유주의를 부리면 다른 동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교실안은 조용했다.

남자애들은 물론 처녀애들까지 고개를 돌리고 호기심에 차서 철우를 흘금흘금 보았다. 처녀애들의 얼굴은 불안하고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남자애들은 대체로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철우의 가슴에서 모욕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잔등으로 불덩어리가 굴러내리는것 같았다. 난생처음 처녀애한테서 그렇게 땀나게 얻어맞은 것이다. 억울했다. 다과목소조에 두번인가 가지 않은것은 수업후에 이런저런 학급반장사업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일이 바로되자면 나중이라도 소조에 갔어야 했을것이다. 그렇다고 자유주의 딱지를 붙이다니! 철우는 끓는 속을 누르며 참고있자니 이마에 식은 땀이 났다.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십분간이 웅근 십년을 기다라는것만치 힘들었다.

철우는 동무들이 흩어져 나가기 바쁘게 우뚝해서 진아한테로 다가갔다. 진아가 당황해서 책상뒤로 한발 물러섰으나 철우는 모난 눈썹로 그를 붙들어세웠다.

《진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망탕해?!》

《뭐가 잘못됐?》

《뭐, 내가 자유주의를 부린다구?!》

진아는 별로 큰일이 아니라는듯 살는섭을 착내리깔고 책상우의 학습장을 신경질적으로 재빨리 거두었다.

《그렇잖구. 다과목소조는 참가하고프면 하고 말면 마는 사업이 아니잖니. 우리 학생들은 다과목소조에서 모든 과목을 우수하게...》

《여, 여 진아, 주체님께 늘어놓지 마. 넌 제가 무슨 선생님이라도 되는걸로 착각하는게 아니야?》

《난 다과목소조사업을 책임졌어.》

진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다.

《으응... 그런걸 몰라봤구나!》

철우는 여유작작하게 비웃음을 지었다. 진아가 몹시 어리석어보였다.

원래 4학년 다과목소조를 책임진 수학선생은 서른살이 넘은 로쳐녀였었는데 얼마전에 결혼식을 했다. 그때 수학선생은 다과목소조학생들을 모아 놓더니 어쩐지 좀 멋적어하는 얼굴로 자기가 요즘 일이 바빠 그러니 다들 자각적으로 소조에 나와 공부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수물과목에 우수한 송진아를 임시 《대리책임자》로 지명했다.

철우는 바로 진아의 《대리책임자》행세에 웃음이 나갔고 솟불처럼 타던 노여움마저 사그러들었다.

철우의 비웃는 낯색을 보자 진아는 새파래서 쏘아붙였다.

《난 동무에게 정당한 비판을 했어. 동문 고쳐야 해.》

진아는 학습장들을 가방에 넣자 자크의 쏘르레기를 쭉 당겨 숨쉴틈을 채웠다. 그리고는 더 상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로 철우를 교실에 혼자 남기고 출입문을 열고 썩 나가버렸다.

그 일이 있던 다음부터 철우는 진아에게 반감을 가졌다. 전에는 그렇거니 여겨지던 진아의 일거일동이 다 교만하고 우월감과 소충명이 가득차 보였으며 그가 앞가슴에 레스를 단 새 셔츠를 입고 학교에 오면 공연히 멋을 낸다고 생각했다.

철우는 진아에게 결함이 생기면 단단히 찢려주려고 맘먹었지만 좀처럼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진아한테는 우점만 수두룩했다. 철우와 다른 다음에도 진아는 교실에서나 다과목소조에 가셔도 철우를 외면했지만 다른 동무들과는 명랑하게 어울려지냈다. 그것이 철우의 속을 더 부르뜨게 했다.

《...고대로마의 력사는 라틴인들과 사비니인 그리고 에투루로인들에 의하여 리브르강언덕에 로마 도시국가가 세워진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력사선생은 체소한 몸집을 구부란채 세계지도 걸그림열을 천천히 오가며 설명하고있었다. 선생의 조용하고 느린 말마디에서 울리는 심정과 표

정과 거동은 그 자신이 아득한 기원전 7세기경의 리브르강기슭에 서있는것만 같았다.

《전설에 의하면 트로아전쟁에 참가했던 에네아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라티움지역에 돌아갔는데… 후에 광주리에 담겨져 리브르강으로 떠내려 가던 그의 손자인 로물루스가 성장해서 새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국가를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철우는 력사선생의 이야기를 귀가에 들으며 슬며시 진아쪽에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살구고 싸늘해서 앉아있는 진아의 얼음처럼 뻥뻥한 눈길과 마주쳤다.

철우는 진아의 자존심을 무시하듯 비웃음짓고는 선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척했다. 마치 학급의 처녀애와 있는 보잘것없는 심경이나 불쾌한 감정보다도 세계력사가 더 중요하고 관심을 끄는 태도를 지었다. 진아의 쏘는듯한 눈길을 보니 저렇게 도고하고 말쑥 처녀애 양감음이 되더라도 면박주는것이 옳았음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

철우는 《세계력사》과목을 류다른 흥미를 가지고 파고들었다. 사전에는 력사란 뜻이 인물을 포함한 사물현상의 지나간 일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서술하는것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철우는 사전적인 정의가 단순하고 범속하다고 생각했다. 철우의 지식과 안목으로 견해를 세워보건대 세계력사는 전쟁과 평화의 끊임없는 순환의 력사였다. 평화는 력사의 갈피에 별로 흔적을 남기지 못하니 주로는 전쟁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로부터 필로폰네소스전쟁, 마케도니아왕 알렉산더대왕의 애굽원정, 북쪽 게르만족의 유럽침입, 십자군원정, 칭기스한의 정벌전쟁, 나폴레옹전쟁, 제1차세계대전, 2차세계대전… 큼직하게 생각나는 대로 잠깐 꼽아도 그 전쟁들이 력사의 페이지를 차지해버린다. 행성을 진동시킨 그런 큰 전쟁들 말고도 세계력사에는 부족들의 싸움, 종족과 민족들간의 리해관계와 지배와 신앙, 계급, 략탈을 위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칠새없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철우는 그러한 싸움과 전투, 전쟁이 많이 취급되는것으로 해서 《세계력사》과목이 재미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바다와 벌판, 산밭을 넘어 중형무진으로 진군하는 장수와 사령관들과 군사들의 땀에 젖고 피흘리면서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들이 보이는듯하면서 까닭모를 흥분과 의기가 솟아오르는것이였다. 전쟁의 력사를 더 깊이 파고들어 칭기스한이 어떻게 되어 동쪽의 발해만으로부터 서쪽의 아드리아해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땅을 차지할수 있었겠는가? 말과 검과 담력인가? 유럽을 거의나 먹었던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점령

하고서도 어쩌서 꾸꾸조브에게 패하였는가?… 하는것들을 생각해보느라면 시간가는줄 모르게 되는것이였다. 이미 상급반동무한테서 교과서를 얻어 죄다 앞질러 읽은 철우였지만 세계력사수업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열중했다.

력사선생은 오늘도 수업종이 울리기전에 교실뒤 출입문으로 들어와 빈결상에 앉았다. 평소의 그런 부드럽고 말없는 조용한 표정이였다. 선생은 저마금 떠들어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빙그레 웃더니 다음엔 뻗뻗이 일어선 머리를 쏘여 넘기고 묵묵히 창밖멀리를 내다보았다. 선생은 그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수백수천년전 력사의 한 갈피에서 어떤 심각한 교훈을 끄집어내려는것 같았다.

말수더구가 많으나 지식이 빈약하고 보고 들은것이 적은 학급애들의 이야기는 벌써 동강이 났으나 송진아의 낮으나 쟁쟁 울리는 여문 목소리는 끊치지 않고 휴식시간의 화제를 독차지하고있었다.

철우는 다른 애들처럼 진아의 주위에 몰켜서서 턱을 쳐들고 멍하니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 정신을 판적이 없었다. 별로 들을 소리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었고 그렇게 가뜩 모여서서 듣노라면 진아의 우월감과 자부심만 돋켜주는것이였다.

흥미있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진아에게서 듣는다는것은 철우의 자존심에 허락치 않았다.

력사선생이 교실의 뒤자리에 앉아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진아는 세계에 대한 자기의 견식을 한껏 자랑하고있었다.

프랑스의 한 소도시에서 만든 막대기빵의 길이는 1키로메터였다는것, 세상에서 가장 큰 과자는 직경이 4메터이고 높이는 3메터나 되며 그 한개의 과자를 만드는데 60키로그램의 밀가루가 들었다는 등의 《기니스기록집》에 있는것들이였다.

진아의 주위에 몰켜진 애들은 그런 토막이야기들에 감탄하고 놀라군했지만 력사소설 《스파르타쿠스》를 읽고있는 철우의 귀가에는 시시한 말거리로 흘러지고있었다.

철우는 도대체 진아가 세계에 대한 그런 단순한 삽화적이고 일화적이며 상식적인 지식을 자랑하는것을 경멸시하였다. 그따위 흥미본위의 잡동사니화제보따리를 펼쳐놓고 세상을 전문넓게 아는것처럼 떠들어대며 그리고 마치 자기가 세계력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듯이 말하는 진아가 경박하고 어리석어보였다.

《옛날에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있었지 뉘.》

진아는 또 다른 이야기가지기를 펼쳤다.

《그 의원이 주는 약을 먹거나 처방대로 한 사람은 며칠새에 병을 고치고 건강해서 장수했다는 거야. 몽골초원의 제왕인 칭기스한까지 예순나이에 이르자 더 오래 살고싶어 그 의원을 청했어. 의원은 말을 타고 1만 5천리나 되는 먼길을 가서

칭기스한을 치료했어.》

《어떻게 치료했대?》

수옥이가 증빨나게 묻자 진아는 한순간 어정쩡해있더니 인차 눈을 흘겼다.

《그건 나도 몰라.》

《칭기스한은... 예순네살에 죽지 않았니.》

인석이 아는체 빈정댔다.

《남의 말에 찬물을 끼얹지마. 그 의원이 치료했으니 그만큼이라도 살았을게 아니가. 문제는 칭기스한의 병까지 봐준 명의라는거야.》

송진아가 대바람에 찢러주자 인석이는 울대뼈가 꿈틀하도록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철우는 책을 읽다말고 속으로 코웃음쳤다. 칭기스한의 죽은 나이도 똑똑히 모르면서 덤벼대는 것이었다.

수옥이가 인석을 비호해서 말머리를 돌렸다.

《진아야, 그 의원자신은 장수했니?》

《했지 뭐. 백살을 넘겼으니까 장수한거지. 그렇지만 그런 명의로도 로쇠와 죽음앞에서는 어쩔수 없었던 모양이야. 파파늑은 의원은 림종을 앓두고 아들을 불러 큼직한 나무궤를 내놓았어. <얘야, 이 궤는 의술을 배운 네게 물려주는 나의 유산이다. 궤안에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열어보아라.> 하고 의원은 유언을 남기고 운명했어. 아버지장례를 치른 아들은 며칠이 지나자 나무함속의 비밀을 알고싶어 혼자 방문을 달아걸고 함뚜껑을 열었지 뭐.》

《그래서?》

수업에비중소리가 울렸으나 애들은 력사선생이 앉아있는 뒤쪽을 흘금 보고는 진아의 주위에서 흠여지지 않았다.

《함안엔 그보다 작은 궤가 있지 않겠어. 애들은 그 궤의 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그안에 모양이 같은 궤가 또 나졌어. 그래 그걸 열었더니 글썽 보다 작은 궤가 있지 않겠니. 화가 나서 뚜껑을 또 열었지. 이번엔 가족을 씌운 함이 나졌어. 이것만 열면 될게다 하고 열었더니 그속에 아까보다 썩 작은 나무함이 또 있지 않겠어.》

《야, 속상해죽겠다. 무슨 함이 그렇게 많아.》

《진아, 다 열었다 하구 어서 장수의 비결이나 말하려무나.》

수업종이 울렸다.

력사선생은 뒤결상에서 일어나 교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선생은 교탁을 조용히 마주하고서 진아와 애들의 화제를 깨뜨리기 저어되는듯 교수안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이 일분가량의 시간이었지만 철우에게는 한 시간이 넘는것만치 참기 어려웠다.

철우는 력사선생의 아량있는 침묵과 너그러운 양보심을 대하기가 딱했고 짜증이 났다. 왜 큰소리를 질러 진아와 애들을 닦아세우지 못하는가?! 선생은 도대체 성을 낼줄 모르지 않는가? 화학

선생같으면 얼마나 노하겠는가. 화학선생은 결코 이런 때 진아를 가만두지 않았을것이다.

겁 많고 눈치 빠른 애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흠여져갔으나 진아는 모르는지 모르는척하는지 함속에서 또 함을 꺼내며 아이들의 애간장을 말리고 호기심을 우롱하고있었다.

철우는 진아가 력사선생의 부드러운 성품을 악용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전날의 장미꽃사건으로 토라진 맘을 가시처럼 쓰느라고 일부러 선생의 존재를 무시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아는 수업규률을 문란시키고있으니 옳지 않은 처녀애다.

《여, 진아동무. 이야기가 좀 그만하자.》

철우는 속이 부글거렸으나 선생의 너그러운 말이 상하지 않게 애써 부드럽게 충고했다. 그제야 진아는 시간이 된것을 알았다는듯이 서두른다. 그는 철우쪽에 얼핏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는 태연히 제자리에 가앉았다. 선생과 동무들에게 조금도 미안한감을 느끼는것 같지 않았다.

력사선생은 빙그레 웃음을 지을뿐이었다. 그 미소에는 한 처녀애의 바르지 못한 성품같은건 거창한 력사에 비할바가 아니라는 아량의 뜻이 담겨져있는것 같았다.

《정철우학생!》

뜻밖에 력사선생이 불러 철우는 엉기주춤 몸을 일으켰다.

《칭기스한이 몇살에 죽었습니까?》

《칭기스한은 일흔네살에 서하정벌전쟁에 나섰다가 감숙성의 한 골짜기에서 말에서 떨어져... 그 어혈로 죽었습니다.》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그럼 송진아학생이 말한 의원에 대해 알고있는게 있으면 말해보시오.》

《전... 잘 모릅니다.》

철우는 슬그머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솔직히 대답했다.

《그 의원은 이름을 구장춘이라고 불렀습니다.》

력사선생은 호기심어린 학생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명을 받은 구장춘은 백발의 늙은 몸을 돌보지 못하고 황막한 먼길을 걸어 대설산기슭에 있는 칭기스한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1222년 봄이었습니다.》

〈진인이 만리밖에서 이곳에 이르렀는데 어떤 장생불로약처방을 나에게 선사하러느냐?〉

칭기스한이 묻자 구장춘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장수하기 위해 몸을 보양하는 방법은 있어도 종래로 장생약은 없는줄로 아뢰오.〉

〈그럼 장수보양법은 어떤거냐?〉

〈육당을 누르고 덕을 쌓으며 마음을 깨끗이 가지는것이 중요하오이다.〉

〈음, 그렇단말이지... 듣거라. 나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말 한필 거접할 땅 한뼘기 없어 사망 초원을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했다. 허지만

의로운 맘을 가지구 선정을 하니 부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구 무변광대한 땅을 얻게 되었다. 진인은 어떠냐? 존엄과 덕망이 천하를 덮은 내가 마땅히 장수할수 있지 않느냐?>

<한은 장수하기 어렵소이다. 비록 일찍 고생을 하면서 담력을 키우고 덕을 쌓아 쇠진한 부족을 일으켜세웠지만 그담엔 천하를 욕심내는 검은 포부로 맘을 불태웠소이다. 한의 군사들이 지나가면 마을들이 불타고 주검이 들을 덮었사옵니다. 한이 거머쥔 천하는 말발굽과 칼부림과 피의 공포로 복종하는 천하인줄 아옵니다.>

살기쁜 신하들이 의원을 잡아내리려고 덤벼지만 칭기스한은 손을 내젓고 장막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동해 뒤이야기를 기다렸지만 력사선생은 수업을 시작하려고 교과서를 펼쳤다. 꼬리설명엔 필요가 없으며 학생들 스스로가 이야기의 요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기색이었다.

력사선생은 칠판에 돌아서서 백묵으로 이 시간에 배울 절제목을 써나갔다. 철우는 아까의 자존심이 쑥 들어갔다. 세부를 파고들어 력사에 대한 인식을 깊이해주는 선생이 그지없이 돋보였다.

수옥이가 결눈을 살피더니 탄탄히 접은 종이쪽지를 진아에게 홀 집어던졌다.

철우는 모름지기 수옥이가 의원이 남긴 궤속의 비밀을 알고싶어 재촉하는 글쪽지를 썼을것이라고 짐작했다. 아니나다를까 조금후에 진아는 선생이 돌아선 틈을 타서 글쪽지를 툭툭 말아서 수옥이에게 던져주었다.

수옥이는 재빨리 쪽지를 펴보고나서 흐뭇한지 뚱뚱한 상반신을 결상등받이에 쪽 폈다. 그는 발은 목을 빼들고 큰 비밀을 알았다는듯, 알고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듯한 약간 방자스런 기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아가 눈치를 차리고 눈을 꾹썩하며 경고신호를 보냈지만 수옥이 성미에 그런 비밀을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였다. 수옥이는 누구에게 알려주는 혜택을 베풀것인지 두루 살피다가 유독 그 상대를 늘쌍 자기한테 통을 주거나 못살게 구는 인색이를 골랐다.

그러나 수옥이가 던진 글쪽지는 애들의 머리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가 인색이한테까지 가닿지 못하고 철우의 책상우에 떨어졌다.

철우의 옆에 앉은 무슨 일이나 꾸물거리려 늦어지군해서 《거부기》라고 놀림을 당하는 득찬이가 의외로 쪽지를 재빨리 덮쳤다. 득찬이는 열책상에서 인색이가 《까나리》몹집을 솟구고 울대뼈를 실룩거리며 이쪽을 넘겨다보았으나 보는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둠속에서 로획물을 날째게 덮쳐잡은 부엉이처럼 다음 동작이 참을수 없이 느렸다. 아이들의 말없는 눈길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음을 알았는지 우정 느릿느릿 쪽지를 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손을 책상 밑으로 넣어 채 아물지 못해 가려워나는 발등의 종처를 한참 긁고나

서 다시 쪽지에 손을 댔다.

인색이는 속이 달아 구슬프게 얼굴을 찡그렸다.

철우는 눈길을 판데로 돌렸지만 득찬이가 함께 보자고 책상복판에 팔을 뻗쳐 쪽지를 퍼드는바람에 안볼수 없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머리는 차게, 배는 굶다 하게, 발은 뜨뜻하게, 이것이 백년장수의 비결이니라.》

진아는 의원의 유서에 실감을 부여하려고 그랬는지 《백년장수》와 《비결》은 한문으로 멋지게 휘갈겨썼다. 대학생 못지 않게 능란한 필체였다.

기다리기에 지친 인색이 울대에서 변성기를 갓 넘긴 비명같은 억눌린 괴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득찬이가 종이쪽지를 꼬져서 인색이한테 던지려는것을 철우가 막았다.

력사선생은 설명하면서도 철우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잔소요에 얼핏 나무라는 기색의 눈길을 보내는것이였다.

철우는 학급반장인 자기에 대한 선생의 신뢰의 마음을 저버릴수 없었다. 력사선생의 말없는 책망의 눈길보다 더 아픈 충고가 있으랴싶었다. 철우는 득찬이 손에서 쪽지를 뺏어 호주머니에 쓸어들었다. 그것을 애들에게 돌린다면 45분 력사 수업은 아주 파탄될것이었다. 진아와 수옥이와 인색이네들이 철우를 불만스레 살폈으나 그는 청동으로 부은 사람처럼 꾹썩않고 칠판쪽만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어찌는수 없이 학생들은 의원과 유서에 대한 호기심을 단념했다. 소음은 가라앉고 교실엔 정숙이 깃들었다. 력사수업은 무난히 치르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 애들은 여느때처럼 분주히 가방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다들 좀 제자리에 앉읍시다.》

철우는 교탁에 나서서 엄하게 말쪽지를 뺏으나 학급애들의 의혹질은 눈길앞에서 어색하고 거북한 감을 느꼈다. 오늘은 스쳐지나지 않고 수업 규률정형을 따끔하게 총화지으려고 결심을 굳혔지만 품고있던 말은 목안에서 맴돌았다. 수업규률을 문란시킨 애들과 함께 진아를 껴들어 말해야겠는데 선뜻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소총명과 교만을 부리는 진아가 그렇게 얄밟더니 정작 그 처녀애의 결함을 충고하자니 마음이 약해지고 차라리 다들 아프지 않게 두리뭇실하게 총화짓는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우가 망설이며 다음말을 고르는데 송진아가 불쑥 책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철우동무, 난 좀 바빠서 먼저 가봐야겠어.》

학급장과 학급애들 전체를 무시하는것 같은 진아의 거만한 행동은 누굽이 사그라들었던 철우의 가슴에 확 불을 끼얹었다. 등골로 싸늘한 모욕

감의 랭기가 쪽 흘렀다.

《동문 뭐가 바빠?》

철우는 자기가 여느때없이 랭정하고 침착해지
는것을 느꼈다.

《다과목소조에 일이 있어서...》

진아의 말투는 확고하지 못했다.

철우는 진아가 구실을 댄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일을 만들어 갈수도 있겠지...

《진아동문 있어. 동문 뭐 우리 학급 학생이 아
니야?! 아무리 바빠도 총화가 끝난 다음에 가도
록 하자...》

할수 없는지 가방을 거칠게 밀어놓고 결상에
앉은 진아의 태도는 여유있고 태연자약했다.

《동무들, 이 며칠째 우리 수업규율이 너무 나
쁩니다. <세계력사>시간에 더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하거나 떠들지 말고 조용히 선생
님의 설명을 듣는것은 우리 학생들의 도덕이고
의무입니다.》

철우는 학급애들이 가책을 받아 진지한 낯빛으
로 앉아있는것을 둘러보면서 말을 이었다.

《력사선생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잘못을 너그럽
게 대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거나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의 이런 관용을 버릇없이 대하고
나쁘게 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주 유식하게 말한다 애.》

앞줄에 앉은 처녀애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철
우의 귀전에 날아왔다.

《인석동무와 수옥동무... 그리고 송진아동무가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철우가 무척 힘을 들여 세 이름을 꼽기 바쁘게
반말이 왔다.

인석의 불만이 어린 《쿵-》 하는 코소리가 들
리고 수옥은 입을 삐죽하며 뚱뚱한 몸집을 소리
나게 비틀어 옆으로 돌아앉았다. 송진아는 용수
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학급반장동문 사람을 어떻게 알고... 모욕하는
거예요?!》

《동문 뭐 특별한 존재야?! 력사수업시간에 제
멋대로 행동하는건. 바로 진아동무야. 모욕으로
생각지 말고 고치는게 좋을것 같애.》

《동문 내게 반감을 가지고있군요. 난 학급장동
무에게 이름을 꼽히울 정도로 잘못된게 없어요.》

《없다구? 장미꽃은 누가 가져왔구 글썽지는 누
가 썼니?!》

《남자가 감정을 앞세우고 시시하게 굴지 말아
요.》

진아는 가방을 잊은채 교실뒤출입문으로 치마
바람을 일구며 썩 나가버렸다. 문이 탕 닫기자
교실안은 얼어붙은것처럼 고요했다.

철우는 말뚝같이 굳어져 움직일념을 못했다.
상처입은 자존심에서 천천히 흘러나온 피방울이
온몸 혈관속으로 누벼갔다. 철우는 자기가 결코

낮가림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옳은 비판을 했
다는것을 의식하면서도 진아에 대해 감정을 앞세
웠다는것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진아는 처녀애의
에민한 감수성으로 철우의 복잡한 심리를 옹계
포착하고 약한 측면을 콕 찌른것이다. 철우는 당
혹감이 서서히 풀리자 면박을 당한 의분이 불길
처럼 솟구쳐올랐다. 자기를 지켜보는 학급애들앞
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리성을 찾기
어려웠다.

아까부터 철우에게 줄곧 동정과 지원의 눈길을
보내던 득찬이가 참지 못하고 책상밑에 손을 넣
어 발등의 상처를 긁더니 벗어놓은 운동화를 소
리나게 끄당겨 신었다.

력사선생이 교실문을 열고 들여다보지 않았더
라면 철우는 이런 정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을지
몰랐다.

《왜들 돌아가지 않고있느냐?... 학급장,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닙니다. 그저 총화짓는중입니다... 끝났습니
다.》

철우는 서둘러 교탁에서 물러났다.

력사선생은 철우의 어색한 눈길과 기분이 상해
하는 침울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짐작한듯 줄레줄레 나가는 학생들쪽에 눈
길을 던졌다.

《송진아는 어데 있나?》

선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은 없었다. 철우
도 침묵했다.

이때 교실뒤출입문으로 진아가 아까처럼 썩 달
려들어오더니 자기 책상에서 가방을 집어 들고 가
려고 했다.

력사선생은 딸자식의 경거망동을 사랑스레 지
켜보는 아버지의 그런 미소를 지었다. 흥분한 처
녀애의 얼굴과 거동을 보고 력사선생은 모든것을
알아챈듯싶었다.

《진아학생.》

력사선생의 부름에 진아는 멈춰섰으나 이쪽으
로 돌아서지는 않았다.

《진아!...》

선생의 목소리는 나직하나 엄했다.

《날 따라오너라.》

력사선생은 한마디 따끔히 뇌이고는 교원실쪽
으로 걸어갔다.

진아는 잠자코 서있더니 뿌루통해서 가방을 도
로 책상에 털썩 내려놓고 마지 못해 선생의 뒤를
따라갔다. 무언의 불만을 드러내듯 따각거리는
구두소리가 복도에 떨어져갔다.

어느덧 학급애들은 거의 다 교실을 나갔다. 맨
나중에 수옥이와 인석이가 주춤거리며 어딘가
미안쩍은 기색으로 침울해있는 철우를 흘깃흘깃
보더니 상관하지 않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대로 교실을 나가버렸다.

청소함근방에서 머물거리던 득찬이가 발등의

중치때문에 운동화뒤축을 꺾어신고 다가왔다. 한 책상동무를 남겨두고 갈수 없는 모양이다.

《집에 가지 않을래?》

《먼저 가.》

《기다릴래?》

득찬이는 진아의 가방을 결눈질했다.

《누굴말인가?》

철우는 득찬이가 미리 자기 속내를 꿰질러보려는것이 언짢아 되물었다.

《까짓거 내버려두고 가자꾸나. 저 잘났다고 코대를 세우는 처녀엔 욕 좀 먹어야 해. 철우도 잘 비판했지 뭐 그래.》

《뭘 말하자는거야?! 뒤소리하는건 나빠.》

《체. 그게 무슨 뒤소리가. 할말을 하는건데.》

《날 역성들지 밀어. 내겐 너의 그런 지지가 필요없어.》

《넌 괜히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득찬이는 성이 나서 우락부락하더니 운동화뒤축을 끄슬며 나갔다. 출입문이 팡 닫겼다. 바람이 교실안의 탁한 공기를 철우의 얼굴에 들썩였다. 그다음엔 조용했다.

철우는 어쩐지 힘이 빠져 발에 걸채는 아무 걸상에 주저앉았다. 《코대를 세우는 처녀애》가 욕먹게 됐는데도 마음속은 조금도 개운하지 못했다. 그토록 너그럽던 력사선생이 엄하게 다스리려고 데려갔는데도 속시원하지 못했고 도리어 자기가 잘못해서 진아가 불려간것만 같은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조금전까지 마음을 아프게 하던 상처입은 자존심은 아물어버렸다.

한동안 기다렸으나 진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이 어둡스그레해졌다. 황혼이 아니라 하늘에 검은 비구름장이 짙 덮인탓이었다. 비꽃이 떨어지는것이 창유리로 보였다. 운동장에는 뒤늦게 집으로 가는 애들 몇이 비를 피해 뛰어가고있었다.

철우는 모름지기 진아가 선생한테 욕을 먹고 교실에 들릴 생각도 잊은채 그대로 집에 갔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진아의 책가방을 교실에 버리고 갈수는 없었다. 진아네 집에 가져다주는것이 옳을것이였다.

철우가 일어나 자기 책가방을 들고 진아의 책가방도 집으려는데 멀리 복도쪽에서 귀에 익은 구두소리가 들려왔다. 진아의 구두발소리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여느때와 같은 자신심과 우월감,

생기에 넘친 아무 꺼리낌없는 룰동적인 발자국 소리가 아니였다. 몹시 조심하는것 같기도 하고 깊은 상념에 잠겨 주저하며 내짚는것 같은 주눅이 든 발걸음소리였다. 이윽고 교실뒤출입문이 소리없이 열리고 송진아가 문지방에 나타났다.

철우를 보자 진아는 흠칫 놀라 멈춰섰다. 순간 철우는 진아의 살눈섭 짙은 눈가에 맑은 눈물이 가랑히 고인것을 보았다. 진아의 눈매는 연약하

고 어질어보였으며 교만과 우월감의 차거운 눈빛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다음순간 진아는 눈물을 보이기 싫었는지 얼굴을 돌리고 철우를 외면한채 자기 책상쪽으로 갔다.

《책가방이 여기 있어.》

철우는 누그럽게 말했다.

진아는 잠시 자기 책상결에 돌아서있더니 손으로 황급히 눈물을 짖어내고는 철우한테 다가왔다. 진아의 발은 곧추 왔지만 몸과 얼굴은 옆으로 향하고있었다.

철우는 진아의 꼭 다문 입과 완강히 외면한 눈길에서 그 어떤 삭이지 못한 불만과 원망의 뿔뿔한 빛을 가늠할수 있었다.

철우는 그에게 책가방을 넘겨주었다.

진아는 입술을 깨물며 무슨 말인가 할듯하더니 가방만 집어 들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조금후에 철우가 아래층계단을 내려가니 비내리는 바깥현관 채양아래에 력사선생이 진아를 데리고 기다리고있었다.

《철우. 빨리 내려오지.》

력사선생은 접이우산을 퍼들며 따뜻이 나무랬다.

《여적 집으로 가지 않고 진아를 기다렸나?》

《...》

철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진아가 학급장이 교실에 남아있다고 하더구나. 하마트면 그냥 갈뻔했지.》

선생은 반쯤 룡조로 뇌이고는 철우의 어깨를 끌어당겨 자기의 바른편에 세웠다. 그리고 송진아를 왼편에 서게 하고 우산을 높이 쳐들었다.

《가자.》

세사람은 비에 갓 젖어 번들거리는 운동장을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 엇비스듬히 내리는 비발이 철우의 한쪽 어깨와 옷자락을 적셨다. 셋이 한우산을 쓰기에는 비좁았다.

《횡대로서서는 안되겠어. 한데 뭉쳐서자. 너희들은 앞에 서거라.》

그렇게 하니 우산날개의 면적을 훨씬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철우는 자기들 앞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우산날개를 보고 뒤에 선 선생의 잔등이 비에 젖으리라는걸 알았다.

침묵속에 걸어갔다. 셋이 뭉쳐 걸으니 자연 발걸음이 떠졌다. 뽕뽕히 행기운 우산등의 방수천을 두드리는 비소리만이 소란스러웠다.

《철우... 진아...》

력사선생은 나직이 말머리를 뺐다. 아주 진지한 말투였다.

《내보기에 너희들은 서로 잘못을 일깨워주면서 정답게 지낼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 감정을 풀지 못하고있다. 진아는 철우를 옹졸하고 시기심을 가진 사내로 여기는가 하면 또 철우는 진아를 교만하고 소충명

이 가득한 처녀로 생각하지.》

력사선생은 철우와 진아가 사이가 벌어져 비를 맞으며 걷는것을 보자 어깨를 잡아당겨 우산날개 밑에 들여세웠다.

《난 너희들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비를 가릴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너희들은 그런 리해심없는 행동이 공부에 지장을 주고 학급의 단란한 분위기를 흐리게 만든다는걸 알아야 한다.》
진아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더 떠졌다.

철우는 변명하고싶었지만 그보다 부끄러움과 수치감 비슷한 감정이 뒤엉켜 온몸을 지지는바람에 입을 열지 못했다.

《철우야, 넌 <세계력사>과목을 좋아하지. 진아도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 아는것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역사과목을 어떤 흥미나 충족시키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학문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 역사공부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 전쟁과 사변들과 사건들, 일화들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세계력사의 주체인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의 갈피에 새겨진 인간들은 후세사람들에게 자기나름의 삶의 의미와 경험과 교훈을 남겼다. 역사는 꾸밈없는 냉혹하고도 공정한 철리로써 그들의 생의 흔적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력사선생의 담담한 얼굴표정에서는 교탁에서처럼 사색이 비끼고 열정이 뿜겨나오고있었다. 선생의 저력있는 음성은 여느때없이 철우의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너희네 학급애들은 아직 여러가지로 결함이 있지만 난 너희들을 격이 있게 점잖게 대하고싶다. 너희들은 열다섯살이 아니냐. 사춘기시절이다. 어른의 문어구에 당당히 들어섰다. 자신과 세계를 돌이켜보구, 정의와 진리를 깨치는 독자적인 사색을 해야 하는 나이이다. 너희들은 다같이 인류력사의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그력사의 창조자들도이다. 너희들에게서 벌어지는 사건과 생활은 평범하게 흘러가는것 같지만 후세사람들에게는 역사로 되는것이다.》

세사람은 한우산을 쓴채 비물에 바지가랭이와 신발이 젖으면서 학교운동장을 벗어나서 큰길로 가는 사이길에 들어섰다.

력사선생은 비에 어깨와 잔등이 흠뻑 젖는데도 여전히 우산날개를 철우네쪽에 기울였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역사의 창조자들인가? 철우, 말해보지?》

《!...》

철우는 손으로 이마의 비물방울을 훔치는척하며 대답을 못했다.

《그럼 진아가 말하렴.》

《저... 새 시대력사를...》

《추상적인 대답이다. 너희들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평도따라 붉은기력사를 창조하고 있다. 너희들, 학생들은 이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력사는 투쟁과 창조의 력사이고 믿음과 사랑의 력사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인덕정치,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력사는 앞으로 세계력사의 모든 갈피를 수놓게 될것이다. 인류가 기억하는 수천년 력사에 사회주의조선의 붉은기력사처럼 그렇게 정의와 진리와 량심, 사랑과 의리를 기폭에 새긴 아름답고 위대한 력사는 없었다.》

길옆의 화단에는 붉은 장미꽃이 덤불을 이루고 있었다. 비줄기에 함초롬히 씻기는 푸른 잎새들속에서 꽃송이들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철우야, 진아야, 이젠 내가 너희들의 력사관을 바로잡아주자고 해서만 말하는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활이 력사로 되자면... 력사를 창조해 나가자면 너희들의 가슴에 뿌리를 내린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믿음과 신뢰, 사랑이 억센 줄기로 자라고 잎새를 펼쳐야 한다는것이다. 어린 나무가 거목으로 되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혹 동무의 견해가 비위에 맞지 않아도 존중할줄 알게 되고 결함은 제 잘못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따듯이 일깨워줄수 있다. 력사를 창조하는 사람은 마음을 웅심깊이 지녀야 한다. 바다보다 넓은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웅장한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력사를 낳는다.》

철우는 눈시울을 적시는 비물을 훔칠념을 앓고 존경어린 눈길로 력사선생을 쳐다보았다. 선생의 평소의 너그러운 침묵, 아량의 밑바탕에는 얼마나 숭고한 사상과 인간미가 흐르고있는가!

철우의 가슴속에서는 가책이 일렁이고 력사의 창조자로 살고싶은 뿌듯한 긍지와 결의가 굵이쳤다.

진아의 호수같은 눈에도 그런 후더운 심정이 비껴있었다.

력사선생은 우산손잡이를 철우에게 억지로 넘겨주었다.

《난 다 왔다. 너희들 집은 한참 가야 되지 않느냐. 어서 함께 쓰고 가거라.》

력사선생은 비내리는 포장길로 저벅저벅 물탕을 텅기며 걸어갔다.

철우와 진아는 우산밑에 나란히 서서 오래도록 선생을 바라왔다.

(필자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임)

《북애자》

김정설

에로부터 일러오기를 진정한 애국자에게는 나라일밖에는 족히 개의할바가 없는고로 나라일을 버리고 즐거할것도 없고 희망할것도 없고 환희도 없는것이고 분노도 없는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진정한 애국자들의 그 애국심의 방술은 서로 같지 않아 혹은 허로도 하고 혹은 피로 하며 혹은 검으로 하고 혹은 붓으로 하되 먼저 부르면 뒤에 따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북애자도 바로 나라일을 두고 즐겨도 하고 분노도 하던 사람중의 한사람이였고 필검으로 나라의 역사를 빛내이려 고심참담하던 애국자의 한사람이었다고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민족사에 이름을 남긴 역사적인물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습니다.》

북애자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 역사에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역사적인물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것은 그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규원사화》라는 책을 내놓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여직 북애자는 널리 알려져오지 못하는 인물이다. 한것은 그가 《규원사화》를 쓴것이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인 1675년이였으나 이 책이 일찍부터 해빛을 보지 못한채 전해왔기때문이다. 오늘까지 필사본으로만 전해오는 《규원사화》는 책명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역사설화체로써 서술한 단군과 고조선력사에 대한 책이다.

《규원사화》는 서문, 조판기, 태시기, 단군기, 반설 등 다섯개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문에는 《규원사화》를 쓰게 된 동기가 서술되어있고 조판기에는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에 의한 인간창조신화, 태시기에는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에 의한 인간세상의 창조신화가 서술되어있으며 단군기에는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건립과정사 그리고 단군조선의 47대왕력이 서술되어있고 반설에는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긍지를 피력하고있다.

이 책은 당시까지 전하여오던 우리 나라의 옛 문헌들과 중국의 옛 문헌들을 포함한 40여권의 희귀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씌여졌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역사와 함께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수많은 신화, 전설들을 풍부하게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전설을 발굴수집정리하는데서 귀중한 책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책을 내놓은 필자는 북애자라는 호만이 전해오고 그 이름이나 그의 공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오지 못하고있다.

일부 글들에서는 그의 이름은 권현이라고도 하고 그가 살던곳과 그의 서원 《규원서원》이 있던 곳은 서울의 삼각산 어느 양지바른곳이었다고 전하고있으나 아직 확증할만한 근거는 없는것이다.

단지 《규원사화》의 서술동기를 밝힌 이 책의 서문만을 통하여 그의 행적과 이 책을 쓰게 된 그의 애국심을 어느정도 찾아볼수 있게 하고있다.

북애자는 《규원사화》의 서문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말로 맺었다.

《아, 후세에 이 책을 불안고 기쁨에 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땅속에 있는 내 혼령의 무한한 기쁨으로 될것이다.》

이 말은 북애자가 이 책을 온 넋을 다 바쳐 썼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애자가 《규원사화》를 쓰게 된 동기는 그가 과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급제하지 못하게 된 울분으로 붓을 던지고 방랑의 길에 올라 전국을 편답하면서 새로 받아안게 된 충격때문이었다고 하였다.

그가 안해를 홀로 남겨두고 처음 방랑길을 택한것은 남쪽지대였다.

남쪽지대인 전주, 월성, 사비, 웅천 등지를 두루 돌아 금강산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방랑길은 그의 울적한 기분을 가셔주지 못하고 도리어 국치와 울분만을 더욱 받아안게 하였다.

이때는 바로 일본과 청나라의 침입으로 일어났던 임진조국전쟁과 병자호란 등 큰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그의 걸음이 땅은곳마다에서는 땅이 황폐화되고 마을들은 쓸쓸하였으며 백성들은 너나없이 빈궁에 허덕이면서 침략자들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들려오는 논의는 국치를 두고 물끓듯하였으나 국치를 가실 방책은 없어 모두 가슴만 두드릴뿐이라고 했다.

이런 목격으로 가슴이 더욱 무거워진 북애자는 금강산에 이르러 속세를 떠나 이곳에서 한생을 바칠 생각도 해보았다.

나라는 국치를 당하였어도 금강산의 산천의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북애자는 무거워진 마음을 씻어보려 구슬같이 흘러내리는 벽계수를 따라 거닐며 기암

괴석을 바라보기도 하고 천지를 진감하며 내려쬘
는 폭포수가에 몸을 세워보기도 하였으며 만이천
봉우리가 굽어보이는 비로봉에 올라 찬란한 동해
바다의 해돋이를 바라보기도 하였다.

허나 보이는 절경마다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하
여 주지 못하고 도리어 가슴을 허비여주었다.

구슬같은 벽계수는 치욕에 울고있는 백성들의
눈물같았고 천지를 진감하며 쏟아져내리는 폭포
도 치욕에 떠는 백성들의 통곡같았고 동해의 찬
란한 해돋이도 어찌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강산이
외적들에게 유린되어 치욕을 당하는가 하는 항
변으로 안겨들기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북애자는 비통한 눈물만을 더해주는
금강산에 그대로 머물수 없어 다시 방랑의 길을
을 옮기었다.

그가 다음에 이은 방랑의 걸음은 우리 나라 서
북지대인 구월산일대였다.

구월산일대에 이르러 삼성사를 찾아보던 북애
자는 감회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삼성사는 고조선의 건국시조인 단군과 그의 아
버지 환웅, 할아버지 환인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를 지내는 사당이었다. 그앞에 참배를 하면서 북
애자는 정녕 이 나라는 단군으로 하여 동방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궁지가 뜨겁게 가슴에 젖어
들어 감회가 솟구쳐올랐던것이다.

북애자는 이러한 감회를 안고 자신도 모르게
북쪽 의주땅으로 달려가 통군정에 올랐다. 그리
고 여기서 일찍부터 강성부강하였던 옛 조선을
그리여보았다.

넓은 강토, 위력한 군력, 찬란한 문화 이것이
바로 옛날의 우리 나라가 아니었던가. 그때에는
우리 백성들이 치욕을 모르고 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에 와서 우리 나라가 외
적들에게 유린당하여 모든 백성들이 국치로 몸부
림쳐야 하는가.

북애자가 이러한 의혹과 아픔으로 허비는 가슴
을 안고 평양에 돌아왔을 때였다.

이때 평양에서는 마침 을지문덕의 사당을 세우
고있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백만대군의 침략을 물리
친 고구려의 명장이었다.

북애자는 여기서 다시 고구려를 더듬어보았다.

고구려는 역시 옛 조선의 뒤를 이어 일떠선 나
라로서 강대한 나라였다.

고구려는 을지문덕을 비롯한 수많은 명장들과
백성들로 하여 그 어떤 외적들도 물리쳐 용감히
싸워왔으므로 천여년동안이나 자기의 위용을 만
방에 떨쳐왔다.

을지문덕의 사당을 세우느라고 봄비는 평양사
람들속에 서서 옛 조선과 함께 고구려의 역사를
더듬어보던 북애자의 뇌리에 하나의 생각이 번뜩

이였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결코 작고 약한 나라는
아니였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처럼 국치를
당하고있는것은 나라의 이러한 궁지와 자랑을 길
이 지니지 못하고 그것을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분투가 결여되어온데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오늘 나라의 변통은 우리 나라의 고대력사를 모
르는데 있다. 자랑찬 우리의 역사를!)

북애자는 이런 생각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나
라의 큰 변통이 우리 나라의 역사가 바로 전해오
지 못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었
다.

당시에는 고대의 역사책이 거의나 찾아보기 어
려웠다.

한것은 수천년의 역사의 흐름속에 헤아릴수 없
이 당하여온 전란속에 고대의 역사책이 거의다
불타 인멸되어버렸기때문이었으며 게다가 봉건사
대주의자들은 큰 나라의 역사만을 내세우고 자기
것을 찾아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데 있었
다.

그리하여 사대부들이 읽는것이란 큰 나라의 책
뿐이고 내세우고 따르는것은 모두 큰 나라것으로
만 여기어왔으므로 먼저 자기의 근본을 세워 자
기의 나라, 자기의것을 내세우고 빛내이려는 생
각은 전혀 가져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
라사람들이 대부분 대줄기처럼 굳세이지 못하고
결핍하면 남을 쳐다보고 남의 힘에 의거하여 생
존하려 하니 어찌 비극과 치욕을 면할수 있었으
랴.

이러한 생각에 북애자는 나라의 치욕을 씻기
위하여 오늘에만 아니라 래일에도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라의 고대력사를 찾아 정립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각오하고나니 지난날 자신이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나라일에 전혀 관심없이 오직 한
개인의 명리만을 위해 과거공부에만 빠져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뉘우침에 뼈가
저려 났다.

명예는 손님과 같은것이다.

내 명예를 바라다 이 꼴이 되지 않았는가.

나도 죽으면 백골이 되는 인생인데 내 이제도
어찌 큰 나라일을 뒤에 두고 작은 명리에 급급하
여 다투겠는가.

오직 타고난 성품을 간직하고 나라를 위한 뜻
을 기르며 도를 닦아 공을 세워 후대의 자손들이
본받도록 하는 일을 한생의 보람과 영광으로 삼
을뿐이다.

이런 각오로 정작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되살려 쓰려고 하니 북애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
해 낼 재력이 너무도 부족하였다.

몇년동안에 걸친 방랑의 길에서 집으로 돌아가

니 홀로 있던 안해마저 그동안 병으로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애자는 일신의 불행과 부족한 재력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고대의 역사를 되찾아 밝혀내기 위한 일에 심력과 뇌력을 다 바쳐갔다.

그는 여러 문인들을 찾아다니며 옛 책을 구하고 명산의 바위굴에 보관된 책들을 추적하였다. 그러다 뜻밖에 고려의 문인 리명이 쓴 《진역유기》를 얻게 되었다.

이 책은 리명이 당시까지 전하여오던 고조선에 대한 역사책인 《조대기》를 참고하여 서술한 것으로서 비록 간략하여 자세하게 서술되어있지 않았으나 당시까지 전해오는 어느 책에 비교할바 없이 내용이 풍부하였다.

북애자는 이 책을 근본으로 삼고 이에 우리 나라와 중국의 여러 문헌들을 가지고 옛집의 남쪽 《부아악》이라는 산기슭 양지바른곳에 《규원서원》을 짓고 우리 나라 고대역사 집필에 착수하게 되었다.

고대역사인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밝히려는 그의 집필은 밤낮으로 이어지는 악전고투의 나날이었으나 그는 그 순간순간을 감격과 기쁨으로 여기였으므로 맛나는 고기를 먹어도 맛을 잊을 지경이었으며 오직 걱정이라면 그 한책을 다 끝내기전에 자기의 한생이 다하지 않겠는가 하는것뿐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집필의 나날에 하루같이 빈것은 이 한책을 다 끝내도록 자기의 생이 이어지는 것이었고 바란것은 《아침에 도를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옛 글의 뜻대로 이 한책을 끝내어 세상에 내놓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것이었다.

북애자는 이렇게 애국의 온 넋을 담아 이 책을 집필하였기에 그가 이 책의 집필을 끝내면서 《아, 후세에 만약 이 책을 붙잡고 기쁨에 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땅속에 있는 내 혼령의 무한한 기쁨으로 될것이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세상에 나온지 어언간 300여년이 흘러갔어도 이 책을 붙잡고 기쁨에 우는 사람은 없었다.

이 책이 나온 17세기는 봉건관리들이 사대주의에 빠져있었던 때였으므로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내세우고 빛내이려는 이 책은 그들의 비위에 거슬러 해빛을 보지 못하였으며 20세기초엽에 이르러서는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하여 날치던 일제침략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또다시 빛을 보지 못하고 단지 필사본으로만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전해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은 도리어 우국지사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빛내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피눈물만을 자아내는것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단군릉과 단군유골의 발굴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 오늘에 와서 《규원사화》는 역사학자들만이 아니라 구전문학전문가들에게 커다란 도움으로 되는 귀중한 책으로 리용되고있는것이다.

정녕 이 세상에 령혼이 있다면 《규원사화》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오늘이야말로 북애자의 혼령이 무한히 기뻐할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정립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한 단군유골의 발굴은 오늘 우리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고있을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대의 역사를 불안고 그를 빛내이려 몸부림치며 기원하던 그 수많은 우국지사들의 령혼도 땅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감격으로 설레이게 한 민족의 거사가 아니였는가고 생각하게 된다.